

# 蘇齋 盧守慎 研究

—文學·政治·思想을 中心으로—

金光淳·文暻鉉·崔丞灝

<p>&lt;目 次&gt;</p> <p>I. 文 學</p> <p>1. 序 論</p> <p>2. 生涯와 文學의 背景</p> <p>3. 遺稿를 通해 본 蘇齋의 作品世界</p> <p>4. 蘇齋詩의 變貌와 展開樣相</p> <p>5. 結 論</p> <p>II. 政 治</p> <p>1. 序 論</p> <p>2. 家 系</p> <p>3. 仕 宦</p> <p>4. 學統과 蘇齋</p> <p>5. 乙巳土禍</p>	<p>&lt;目 次&gt;</p> <p>6. 流配生活</p> <p>7. 黨 爭</p> <p>8. 孝 子</p> <p>9. 政治人 蘇齋의 評價</p> <p>10. 結 論</p> <p>III. 思 想</p> <p>1. 序 論</p> <p>2. 心과 精神</p> <p>3. 持敬說</p> <p>4. 人心道心說</p> <p>5. 執中說</p> <p>6. 結 論</p>
--	---

## I. 文 學

### 1. 序 論

蘇齋는 조선조 당대의 文臣이며 대학자였다. 자는 寡梅 호는 蘇齋<sup>1)</sup>, 伊齋, 暗室, 茹峰老人 등이라 하고, 본관은 光山인데 活人署別提 鴻의 아들로 中宗 10年(1515)에 서울 南部 樂善坊에서 태어났다.

17세에 李延慶의 딸과 결혼하여 장인의 門下生이 되었고, 27세에 李彥迪과 학문을 토론했다. 中宗 38年(1543)에 式年文科에 장원하여 典籍·修撰을 거쳐 1544年 侍講院司書가 되고, 같은 해에 賜暇讀書를 했다. 大尹派로서 仁宗 즉위 초에 正言이 되어 李芑를 논핵하여 파직시켰으나 明宗이 즉위(1545)하면서 小尹 尹元衡이 李芑와 함께 乙巳土禍를 일으키자 吏曹佐郎으로 있다가 파직되어 明宗 2年(1557)에 順天으로 流配되고, 이어서 良才驛 壁書事件으로 죄가 더해져서 珍島로 移配되어 섬에서 19년간 귀양생활을 했다.

※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蘇齋와 蘇齋를 혼용하고 있으나 先生이 生存 당시에 세운 祖父 左贊成公 珞와 父 領議政 鴻의 神道碑의 기록과 先生의 生存 당시 친구와 門生들이 쓴 「十青亭詩帖」(尙州郡 化西面 沙山里 黃山洞 盧柄龍氏 所藏)에 李俊民, 柳根, 金東隱, 許茂 등의 親筆記錄에서 모두 蘇齋라 쓴 것으로 보면 蘇齋라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비록 蘇와 蘇는 相通하기도 하나 先生이 生存 당시에 쓰던 글자대로 쓰는 것이 옳다.

그 동안 李滉, 金麟厚 등과 서신으로 학문을 토론하고 朱子의 人心道心說에도 異說을 세워 李恒과 논쟁하여 「人心道心辨」을 저술하고, 四七論에 대해서도 奇大升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학문에 정진했으며, 「大學章句」, 「童蒙須知」 등을 주석했다. 明宗 20년(1565)에 槐山으로 移配되었다가 宣祖가 즉위(1567)하자 畿陽지에서 풀려나와 校理로 기용되고, 이어서 大司諫, 副提學, 大司憲, 吏曹判書, 大提學을 지낸 다음 宣祖 6년(1573)에 右議政, 宣祖 11년(1578)에 左議政, 宣祖 18년(1585)에 領議政에 올랐다. 宣祖 21년(1588)에 사임하고 領中樞府事가 되었으나 이듬해 己丑獄事 때 科擧에 鄭汝立을 천거했던 관계로 臺諫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宣祖 23년(1590)에 棄世하니 享年 76세였다. 그는 문장과 서예에도 능했고, 陽明學도 깊이 연구하여 주자학파에게 공격을 받았으며 休靜, 善齊 등과의 교제가 있어 그의 학문에 불교적인 영향을 받기까지 했다. 尙州의 道南書院, 鳳山書院, 忠州의 八峰書院, 槐山의 花巖書院, 珍島의 鳳巖祠 등에 祭享되었고, 諡號는 文懿였는데 후에 文簡으로 고쳐졌다.

이처럼 政治, 社會, 文學, 思想 등에 큰 공적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蘇齋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그의 文學研究를 위해 먼저 그의 生涯와 文學의 背景을 修學期, 宦路期, 流配期, 再宦路期의 四期로 나누어 考究하고, 다음으로 「蘇齋集」을 비롯한 遺稿를 통해 그의 作品世界를 考察하며, 끝으로 그 가운데서도 文學作品으로서 가장 중심되는 詩文學作品을 修學期의 詩, 宦路期의 詩, 流配期의 詩, 再宦路期의 詩로 나누어 그것의 變貌와 展開樣相을 고찰하고자 한다.

本稿에서의 연구 자료는 蘇齋先生文集<sup>2)</sup> 天·地·人 3冊과 內集 1冊, 附錄 1冊, 宗家秘藏遺稿<sup>3)</sup> 7冊을 臺本으로 한다.

## 2. 生涯와 文學의 背景

盧守愼(1515~1590)은 字를 察梅, 號를 蘇齋 또는 伊齋, 暗室, 茹芝老人 등으로 別稱하였으며 本貫은 光山이다.

蘇齋先生文集에 수록된 年譜와 行狀, 神道碑銘 등을 통해 그의 生涯를 修學期, 宦路期, 流配期, 再宦路期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2.1. 修學期

蘇齋는 中宗 10년(1515) 閏 4월 16일에 서울 南部 樂善坊에서 태어났다.<sup>4)</sup> 그는 高麗 監門衛大護軍 愼의 十二世孫으로 曾祖 諱 敬長은 敦寧府 參奉으로서 吏曹判書에 贈職되

2) 蘇齋先生文集(蘇齋先生文集刊行會, 大邱市 東區 孝睦洞 144-25, 1987. 2. 30). 蘇齋先生文集 附錄 年譜, 蘇齋先生文集刊行會, 1987, p. 1. 以下 蘇齋集으로 略稱하기로 한다.

3) 蘇齋先生 宗家秘藏遺稿는 大邱市 東區 孝睦洞 144-35 居住 盧應九氏 所藏本임.

4) 蘇齋는 서울 南部 樂善坊에서 태어났으나, 先祖 대대로 尙州 化寧에서 생판해 왔고, 자신도 尙州 化寧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李彥迪과 李滉과의 學問的인 交流로 보아 嶺南 士林派에 가깝다. 金澤榮의 「韓國歷代小史」에서는 東人으로 분류되었다.

었고 祖父인 珩은 豐儲倉守로서 議政府左贊成에 贈職되었다. 그리고 先考 鴻은 活人署別提로서 領議政에 贈職되는 禮優를 받았다. 참고로 蘇齋의 家系를 살펴보면<sup>5)</sup>,

恕—壹—嵩—尚仁—處和—德基—熙善—敬長—珩—鴻—守愼—大海—道亨—碩命 ……

蘇齋는 나면서부터 純粹하고 아름다웠으며, 옷을 입을 줄 알 만한 때부터 의젓함이 어른같았다.<sup>6)</sup> 특히 그는 총명 박학하여 文章을 짓는 데는 經術方面에 더욱 造詣가 깊었다.<sup>7)</sup>

6세(1520)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붓을 주자,

그대가 이 붓을 주었으니  
그대로 인해 내 글이 능해지리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훗날 청운의 꿈을 꾀리.

此筆出於君 爲君能成文  
未知何以報 他日登青雲<sup>8)</sup>

라고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처럼 그는 어릴 때부터 글공부에 관심을 가진 까닭으로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成童이 되기 이전에 벌써 문장과 학문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成人의 器度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남달리 총명하고 영리하여 13세(1527년)가 되자 詩賦를 능숙하게 지을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해 친구들과 함께 東湖로 나가 散步하던 중 湖堂學士가 妓女를 보내 그를 부르자,

누가 기생을 보내 날 부르는가?  
나는 이런 것 즐기러 온 게 아니오.  
조각배 저어 돌아가야 할 시간,  
이 아름다운 山水가 속세 밖 그림일세.

誰遣紅裙訪我呼 我曹非是取歡娛  
扁舟短棹歸來晚 勝水佳山世外圖<sup>9)</sup>

라는 시를 읊으며 거절의 뜻을 전하였다.

17세(1531년) 때 灘叟 李延慶의 사위가 되어 그에게서 「小學」 등 心性을 수양하는 학

5) 蘇齋集, 世系圖, pp. 476~477 참조.  
6) 蘇齋集, 行狀, p. 104. “生而粹美 自能勝衣 屹然如成人”  
7) 蘇齋集, 神道碑銘, p. 146. “聰明博學 爲文章尤深於經術”  
8) 蘇齋集, 年譜, p. 1.  
9) 蘇齋集, 年譜, p. 2.

문을 배워 棟梁之材의 길을 닦게 된다. 그는 이때 灘叟에게서 관념적 지식으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실천공행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운 것이다.

20세(1534년)에 生員·進士 兩試에 合格하여 成均館에 들어가게 된다. 첫답이 올면 衣冠을 경계하고 앉아 밤늦도록 책을 읽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동료들조차 그의 상투머리를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sup>10)</sup> 그의 이러한 학문에의 열정을 모두가 존경하였으며 이때부터 그의 문장은 크게 떨치게 되었다.

25세(1539년) 때 楓岳으로 놀러갔었는데 마침 그때 科擧가 있다는 家信을 접했으나 科擧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때 紀行詩의 일종인 「己亥遊山錄」 60首를 지었다.

26세(1540년)에 慕齋 金安國이 知館事로 太學에 들어와서 「時習箴」으로 여러 선비들을 시험하고는 인재 없음을 한탄하다가 蘇齋의 글에 이르러 크게 감탄하였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방금 한 말은 경박스러운 것”<sup>11)</sup>이라고 하였다.

蘇齋는 孔子의 ‘時習句’에 대해서,

대저 배운다는 것은 精하고 한결같이 하려 함이다. 그러나 반드시 때때로 마음에 익히면 마음과 이치가 서로 함양되어 마르고 가다로운 병통이 없어 아는 것이 더욱 정하여질 것이요, 반드시 때때로 몸에 익히면 몸과 일이 서로 편안하여 위태하고 불안한 걱정이 없어서 행하는 바가 더욱 한결갈을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기거 동작의 가운데에 바쁘고 급한 뜻이 없고 日用에서도 거듭 익힌 뒤에야 한가지를 자득하여 조금도 끊어짐이 없이 저절로 그치지 못하게 함은 반드시 여기에서 얻어질 것이다.<sup>12)</sup>

라 하여 ‘精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선조 초에 經筵官이던 草堂 許曄이 이 「時習箴」을 註解하여 王에게 올렸다.

27세(1541년) 때 그는 晦齋先生이 서울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書面으로 幣帛을 갖추어 禮를 닦고 存心의 방법을 물었다. 晦齋가 손바닥을 보이면서 “여기에 물건이 있는데 짝 쥐면 깨어지고 쥐지 않으면 없어진다”<sup>13)</sup>고 하자 이게 바로 勿忘勿助의 異名임을 알아차리고 더욱 求放心에 힘썼다.

## 2.2. 宦路期

29세(1543년) 때 初試, 會試, 殿試에 모두 壯元으로 급제하여 初任으로 成均館典籍에 拜命하여 비로소 그의 宦路生活이 시작된다. 곧 이어 弘文館修撰으로 자리를 옮겼다.

30세(1544년)되던 봄에 世子侍講院司書에 임명되어 세자(仁宗)에게 體用을 겸하고 動靜을 함해서 살피고, 歌聲과 女色을 멀리하도록 가르쳤다. 이는 결국 精一의 功을 가하여 道心을 항상 主宰로 삼아서 人心(人欲)을 경계토록 한 것으로 敬, 仁, 誠의 主旨를 강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세자에게 孝悌에 진력할 것과 賢邪를 분별하

10) 蘇齋集, 年譜, p. 3. “雞鳴冠帶而坐讀書 不輟至夜 分乃寢同處之士未嘗有見其髻者”

11) 蘇齋集, 年譜, p. 4. “前言輕發”

12) 蘇齋集, 時習箴, p. 207.

13) 蘇齋集, 行狀, p. 105. “有物於此 握則破 不握則亡”

는 이치를 반복하여 들려주었다.

그해 9월 賜暇讀書하던 중 玉堂에서 당대의 석학 退溪를 만나 道義를 논하며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다.

仁宗 元年(1545년) 31세 때 司諫院正言이 되어, 간사한 것을 하는 李愼가 높은 자리에 있음은 부당하다고 탄핵하여 파직시켰고 吏曹佐郎에 옮겨졌다. 그해 7월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9월에 파직되어 충주로 돌아갔다.

이때 간사한 무리들이 일을 꾸며 士禍를 일으켰는데 蘇齋와 어릴 때부터의 친구였던 尹春年이 매일 찾아와 미리 화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蘇齋는 그의 의사를 알아차리고 늘 이웃에 있는 선비 李敏德을 초빙하여 같이 지내므로 尹春年은 말을 해 줄 기회가 없었다. 마침내 蘇齋가 화를 입어 파직당해 향리로 돌아간 후 春年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先生에게 살 길을 알려주려 했으나 매일 李敏德이 곁에 있어 말할 틈이 없었기에 마침내 쫓겨가게 되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sup>14)</sup>라 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蘇齋에게 고하자 그는 “내가 오늘을 보전함은 오로지 李敏德의 功이다. 만약 尹春年이 일러준 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반드시 나를 죽였을 것이고 내가 순종했더라면 내 평생은 다 버렸을 것이다”라 하여 당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해 10월에 孝陵挽詞 二首를 지어 恩德을 追頌하였다. 32세(1546년) 때 尚州에 있다가 그 해 2월에 祖父喪을 당했다.

### 2.3. 流配期

1545년 그의 나이 31세되던 9월에 파직당한 뒤 조부상으로 인해 1년 6개월 동안 유배가 지연되다가 1547년(33세) 3월에 順天으로 定配된다. 이때 국론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어 죽고 귀양가는 자가 끊이지 않았고 그 화는 蘇齋에게도 미쳐 험난한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더우기 乙巳士禍를 일으켜 大尹派를 제거한 尹元衡一派는 반대파의 근절을 목적으로 다시 良才驛壁書事件을 꾸며 이미 파직되고 귀양간 사람들에게 괴를 더하였는데 蘇齋도 9월에 珍島로 移配되는 고초를 겪었다.

20년간의 진도 유배는 그에게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중시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절감케 한 개인적 불행의 시기였지만 한편으로 사회의 현실문제와 유학사상을 문학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기라고 할 수 있다. 珍島 유배기간을 통해 그는 한 韻通으로 이루어진 장편시 <沃州二千言>을 비롯하여 1023餘首에 이르는 詩를 썼음은 주목할 만한 문학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진도에 온 다음날부터 그의 저작열은 불붙기 시작하여 전에 감추어 두었던 書筵講義의 原稿가 매몰되어 전해지기 않을 것을 염려하여 甲辰年에 지은 書筵講義를 修正하였다.

34세(1548년) 때, 朔州에 귀양가 있던 忠定公 權檉이 죽자 그를 애도하는 글을 지어

14) 蘇齋集, 年譜, p.6.

주었다. 그해 겨울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灘叟先生의 訃音을 전해 듣고 哀哭斷腸의 슬픔으로 挽詞三首를 지어 冥福을 빌었다.

37세(1551년)때, 辭旨가 簡切하며 학문의 大法이 구비되었으므로 학자가 자세히 理解함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 歸趣를 아는 자가 없음을 한탄하여 구절마다 명백한 주석을 배풀어 〈夙興夜寐箴〉을 註解하였다.

38세(1552년) 때 朱子의 ‘我讀我書如病得蘇’<sup>15)</sup>라는 구절에서 글자를 취해 三間茅屋에 다 蘇齋라는 편액을 걸고 그 안에서 독서를 즐겼다.

41세(1555년) 때 入學할 나이에 있는 두 조카를 위해 「字訓」과 「童蒙須知」를 註解하였다. 그는 「童蒙須知」註解에서 衣服과 冠履에 관한 절차, 언어와 步趨의 법도, 灑掃涓潔의 절차, 글 읽고 쓰는 절차, 雜細한 事宜<sup>16)</sup>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어린이들의 修身에 도움이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42세(1556년) 때 河西 金麟厚에게 화답하는 詩와 〈歲暮戲題〉를 지었는데 앞의 글에는 곡절찬 인간적인 情이 담겨져 있다. 〈歲暮戲題〉의 詩<sup>17)</sup>에는 어려운 유배생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아를 성찰하며 살아가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어 고통스런 자신의 처지를 읊은 和答詩와는 모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44세(1558년) 때 「夙興夜寐箴註解」에 대해 退溪先生에게 書信으로 답하였다. 이때 퇴계는 그의 〈註解〉를 보고 “우려 동방에 유학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글은 후세에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sup>18)</sup>라 하여 극찬하였다.

45세(1559년) 때 羅整菴의 「困知記」에 영향을 입어 「人心道心辨」을 지었는데 이 글은 退溪, 一齋 등에 의해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道心을 性, 人心을 情으로 파악하고, 心은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 말하는 것은 動과 靜의 구분이요 體와 用の 구별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道心을 未發의 大本으로서 心의 體라고 주장하였다. 즉, 人心을 人欲이라 하면 道心을 已發이라 해야겠지만 人心을 善惡이라 하면 道心은 未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蘇齋는 「人心道心辨」의 내용을 시로 압축해서 표현하기도 했는데 「次韻奉呈 鄭僉使迴軒復題一篇憑達一齋侍者」其二가 바로 그것이다.

원래 道와 器는 이웃 아니니  
人心은 外塵임을 알겠도다.  
모름지기 道心을 大本으로 삼으면

15) 蘇齋集, 行狀, p. 112.

16) 蘇齋集, 童蒙須知, pp. 330~346 참조.

17) 蘇齋集二, p. 126.

天地之東國以南 沃州城外數間菴

有難赦罪難醫病 爲不忠臣不孝男

客日三千四百幸 生年乙亥丙辰慚

汝盧守慎將無醉 補得公私底事堪

18) 蘇齋集, 行狀, p. 113. “斯道不亡於吾東則此解必傳於後世”

쓰일 때에 도리어 道心이 人心을 타게 됨을 보게 되리라.

元來道與器非隣 可認人心是外塵  
須就道心爲大本 用時還見道乘人<sup>19)</sup>

47세(1561년) 때 「人心道心辨」을 논한 一齋 李恒의 書信에 답하였다.

48세(1562년) 때는 「執中說」을 지어 執을 字言과 義訓의 측면으로 나누어 각기 持, 守의 의미로 풀이하였다.<sup>20)</sup>

49세(1563년) 때는 人心道心を 논한 金啓와 盧禎의 서신에 답해 주었으며 羅上忱과는 喪禮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51세(1565년) 때 羅士傑, 金千鎰과 人心道心에 대해 논하던 중 그해 겨울 璽恩을 입어 槐山으로 量移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化寧에 계신 父親을 찾아 뵈었으며 大夫人을 槐山으로 모셔와 성심을 다하여 봉양하였다.<sup>21)</sup>

53세(1567년) 때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하자 그해 10월 東阜 李浚慶의 상소로 20여 년간의 험난한 유배생활에서 풀려나게 된다.

#### 2.4. 再宦路期

蘇齋는 방면됨과 동시에 弘文館校理로 제수되어 조정으로 되돌아 온다. 1567년 12월에 부친의 병 간호를 이유로 下鄉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王은 政績의 수행을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

54세(1568년) 되던 3월에 弘文館副提學兼藝文館應敎에 特授되고 6월에는 副提學, 7월엔 大司諫으로 승직되었으나 부모의 봉양을 위해 解職시켜 줄 것을 청했다. 그러나 왕은 이를 허락지 않고 공양의 편의를 위해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주의 목사로 그를 임명하였다. 10월에 人君의 治國을 논한 상소와 「夙興夜寐箴註解」를 올렸다. 11월에 사직하려던 차에 부친상을 듣고 황급히 달려갔다.

55세(1569년) 되던 정월에 부친을 遼川 先塋下에 장사지내고 슬픔이 지나쳐 병을 얻자 왕은 內醫를 보내 치료하도록 배려했다. 병세가 호전되어 가자 성은에 사례하고는 箴規語 六條를 올려 人君이 경계해야 할 조목을 제시하였는데 간추려 보면,

- ① 訓解를 講討하는 데만 힘쓰고 義理를 구함에 힘쓰지 않는 것.
- ② 政事를 살피기에만 힘쓰고 治道를 바로 세움에는 힘쓰지 않는 것.
- ③ 權柄을 잡기에만 힘쓰고 民心에 합할 것을 힘쓰지 않는 것.
- ④ 前例에 따르기만 힘쓰고 古義를 斷行하기에 힘쓰지 않는 것.
- ⑤ 아첨하는 자를 좋아하고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19) 蘇齋集 2, p.169.

20) 蘇齋集, 年譜, p.13 참조.

21) 蘇齋集, 年譜, p.14 참조.

⑥ 才藝를 착하다고 여기면서 器局과 학식이 있는 자를 重用하기에 힘쓰지 않는 것.<sup>22)</sup> 삼년상을 마친 57세(1571년) 때 大司諫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모친의 병을 이유로 사직하기를 원했다. 이에 왕이 “모친을 모시고 올라와서 나의 부족함을 보필한다면 卿의 忠孝가 兩全할 것”<sup>23)</sup>이라 함에 감격하여 母夫人을 서울로 모셔왔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모친의 봉양을 위해 면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8세(1572년) 때 館伴使가 되어 明의 詔使들을 영접했는데 그들은 蘇齋의 和詩에 감탄하였다.

59세(1573년) 때 학행이 있는 선비들을 조정에 천거하였고 晦齋先生의 年譜와 文集序文을 썼다.

61세(1575년) 때 沈義謙과 金孝元이 서로 軋轢이 있어서 장차 혼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上奏하여 兩人을 내쫓았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經筵에서 君德과 治國의 근본을 강론하였다.

64세(1578년) 때 병으로 사직을 아홉 차례나 청했으나 학식과 덕행이 있음을 들어 윤허치 않았다. 11월에 左議政으로 승진하였고 靜菴先生의 神道碑銘을 지었다.

65세(1579년) 되던 봄에 陰匡先生行狀, 灘叟先生墓誌銘 그리고 己卯薦科榜目序를 지었다.

67세(1581년) 때에 遞職을 빌었으나 백성을 구제할 儒林의 宗師라 하여 허락되지 않았다. 그해 9월 모친상을 당하자 왕은 극진한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그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得病하자 왕은 御醫를 보내 돌보게 하고 權度에 따르도록 권유하였다.

69세(1583년) 때 귀향을 빌어서 家廟에 神主를 祔廟하였다. 고향에 내려가 大學의 前後를 바로잡은 「改正大學」을 撰輯하였다.

71세(1585년) 되던 해에 영의정에 승진되었으며 왕명을 받아 圃隱先生文集 序文을 撰하였다.

73세(1587년) 때 19차례 사직의 글을 올려 겨우 왕의 윤허를 받았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다시 유임되었다.

75세(1589년) 때 다시 致仕를 청했으나 왕은 국가 安危와 관련되는 일이라 하며 윤허치 않았다. 그해 겨울에 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자 그와 그류했던 사람들은 모두 변명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그는 誤薦을 시인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76세 되던 1590년 3월에 判中樞府事의 직에서 파면당하고 만다. 신조 18년 4월 7일 76세를 一期로 寓소에서 易簣함에 아들 大海가 고향으로 返柩하여 7월 10일에 遠川 先塋下 丑坐에 안장하였다. 墓表는 자신이 지은 銘을 썼는데 그 一句에 이르되 “小事에 호리어 或 죄가 되

22) 蘇齋集, 行狀, p. 115.

23) 蘇齋集, 行狀, p. 115. “奉母上來 輔予不逮則卿之忠孝兩全”



었으나 大意가 분명하니 참으로 부끄럼 없도다”<sup>24)</sup>라 하였다.

### 3. 遺稿를 통해 본 蘇齋의 作品世界

蘇齋의 作品은 그의 文集인 蘇齋先生集 1卷에서 10卷 총 3冊 및 「蘇齋先生內集」 1冊과 宗家秘藏遺稿 未公開資料 7冊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그의 文集부터 보면, 1卷에서 6卷까지는 첫 머리에 賦 3首가 실려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그의 詩作品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項에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概要만 一瞥하던 다음과 같다.

1卷에는 첫 머리에 「續續杞菊賦」, 「孝悌賦」, 「三子符賦」 3편의 長篇賦가 수록되어 있고, 그 뒤에 「安奇驛」 등 202題 238首의 初期作品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五言律詩가 120首로 가장 많아 반 이상을 차지하고, 七言絶句가 42首, 七言律詩가 37首 五言古詩가 22首, 五言排律이 10首, 五言絶句가 6首, 七言古詩가 1首로서 총 238首가 실려 전한다.

2卷에는 모두 漢詩作品이 수록되어 있는데, 明宗 2年 그의 나이 33세(1547) 때의 작품인 「寄柳君十韻」을 비롯하여 158題에 213首가 수록되어 있는데, 五言律詩가 83首로 거의 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七言絶句와 七言律詩가 각각 33首이고 그 다음이 五言古詩가 24首, 五言絶句가 20首, 雜言이 9首, 五言排律이 6首, 七言排律이 3首, 七言古詩가 2首로서 모두 213首가 수록되어 있다.

3卷에는 明宗 4年(1549) 그의 나이 35세 8월에 지은 「曉坐」를 비롯하여 모두 205題에 259首가 수록되어 있는데, 五言律詩가 151首로 전체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五言排律이 25首, 七言律詩가 24首, 七言絶句가 23首, 五言絶句가 21首, 五言古詩가 10首, 七言排律이 5首로서 모두 259首가 실려 있다.

4卷에는 明宗 10年(1555) 그의 나이 46세되던 4월에 지은 「贈別舍弟」를 비롯하여 222題에 247首가 수록되어 있는데, 五言律詩가 전체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143首이다. 그 다음이 七言絶句가 49首, 七言律詩가 17首, 五言絶句가 16首, 五言古詩가 15首, 五言排律이 6首, 雜言이 1首로서 모두 247首가 실려 있다.

5卷에는 明宗 20年(1565) 그의 나이 51세되던 8월에 썼다고 하는 「十六夜感嘆成詩」를 비롯하여 310題에 379首로서 많은 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五言律詩가 195首로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七言律詩가 98首, 七言絶句가 54首, 五言絶句가 21首, 五言古詩가 6首, 七言古詩가 3首, 五言排律, 七言排律이 각각 1首씩 수록되어 있다.

6卷에는 그의 晩年の 詩가 주로 실려있는데, 寒暄堂과 估畢齋 두 선생의 시를 읽고 느낀 바 있어 지었다고 하는 「誼堂齋兩先生詩有感」을 비롯하여 137題에 173首의 詩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五言律詩가 74首로 가장 많고, 七言律詩가 48首, 七言絶句가

24) 蘇齋集, 行狀, p. 129. “小事糊塗或終累 大意分明信無愧”

30首, 五言絶句가 9首, 五言排律이 8首, 五言古詩와 七言排律이 각각 1首씩, 雜言이 2首가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그래서 1卷부터 6卷까지는 賦 3首를 제외하면 漢詩단 1234題에 1509首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五言律詩가 766首로서 전체의 50.86%를 차지하고 있어서 과반수가 넘으며, 七言律詩가 257首로서 17.03%를 차지하고 있고, 七言絶句가 231首로서 1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五言絶句가 93首로서 전체의 6.16%, 五言古詩가 78首로서 전체의 5.12%, 五言排律이 56首로서 3.71%, 雜言이 12首로서 0.8%, 七言排律이 10首로서 전체의 0.66%, 七言古詩가 6首로서 전체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조사에서 보면 五言律詩가 766首로 50.76%, 七言律詩가 257首로 17.03%인 점으로 보아 蘇齋는 律詩를 즐겨 썼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文集에 수록되어 있는 詩가 1509首인데 五言律詩와 七言律詩를 합하면 1023首가 되니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앞의 설명을 圖表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卷	卷別 作品數		卷 別 詩 形 式								
			五言絶句	五言律詩	五言排律	五言古詩	七言絶句	七言律詩	七言排律	七言古詩	雜言
1	202題	238首	6	120	10	22	42	37	·	1	·
2	158題	213首	20	83	6	24	33	33	3	2	9
3	205題	259首	21	151	25	10	23	24	5	·	·
4	222題	247首	16	143	6	15	49	17	·	·	1
5	310題	379首	21	195	1	6	54	98	1	3	·
6	137題	173首	9	74	8	1	30	48	1	·	2
計	1234題	1509首	93	766	56	78	231	257	10	6	12

7卷에는 箴 1首, 贊 11首, 祝 1首, 敎 1首, 序 5首, 跋 1首, 記 1首, 祭文 6首, 科製 3首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7卷의 「時習箴」을 보면, 箴은 훈계하는 뜻을 적은 글이다. 道의 넓고 넓음을 어디에서 착수할 것인가? 聖人の 文中에서 공부하는 절차와 조목의 그 大要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다. 옛날에는 舜과 禹가 처음 서로 주고 받을 때 말하기를, 오직 精하고 오직 한결같아야 한다 하였다. 대개 精하면 아는 것이 잡되지 아니하고, 한결같으면 행하는 것이 잡되지 아니하니 가히 循循하게 잘 사람을 지도함이라 할 것이다. 우리 孔夫子가 실로 그 道를 전하면서 말하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라[時習] 함은 무슨 까닭인가?

대개 배우다는 것은 精하고 한결같이 하려함이다. 그러나 반드시 때때로 마음에 익히면 마음과 이치가 서로 涵養되어 마르고 까다로운 병통이 없어 아는 것이 더욱 精하여 질 것이요, 반드시 때때로 몸에 익히면[時習] 몸과 일이 서로 편안하여 위태하고 불안한 걱정이 없어서 행하는 바가 더욱 한결같을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起居動作의 가운데에 바쁘고 급한 뜻이 없고, 日用에

서도 거듭 익힌 뒤에야 한가지를 자득하여 조금도 끊어짐이 없이 저절로 그치지 못하게 함은 반드시 여기에서 얻어질 것이다.<sup>25)</sup>라고 했으니,

다만 때때로 익힌다는 時習이란 두 글자를 취하여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공경함을 중심으로 삼았다. 그는 당시의 經書가 쇠잔하고 가르침이 허술해져서 儒者의 학문이 제대로 전하지 못함을 한탄하며, 무릇 학문을 함에 있어서 唯精唯一한 데서부터 착수하고자 하여 그의 학문함에 경계를 삼고자 하고 있다.

대체 배운다는 것은 精하고 한결같이 하려는 것이니,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마음과 몸이 틀리지 아니하여, 깨우치는 법이 정성껏 공경함에 있다고 말하는 그는 학문을 함에 있어서 時習이란 두 글자를 받들어 부지런히 힘 쓰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적고 있다.

그리고 序로서 「圃隱集序」<sup>26)</sup>와 「晦齋先生集序」<sup>27)</sup> 등을 비롯하여 5수가 실려 있다.

「圃隱集序」는 임금께서 고려의 충신인 정승 鄭文忠公의 충성을 높이 여기시어 盧守愼에게 명하여 그의 文集에 并序하라 하시어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니 다라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高麗末 그 수많은 나라의 년고 속에서도 聲色을 달리하지 않고 큰일을 조리있게 대처할 수 있었던 王佐의 재주를 칭찬하며, 쇠잔하고 비색함이 극에 달하여 亡國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를 말아서 어찌 두 가지 마음을 먹겠느냐고 하며 큰 절개를 지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학문 또한 뛰어나서 儒林의 宗主라 하였으며, 그의 시 302편 속에서 圃隱의 문학세계를 음미한 蘇齋先生은 그의 조그만 論著라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음을 심히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헌의 부족함을 한탄하지만 圃隱이 행한 일과 세운 행적, 그리고 두어 편의 시 속에서도 그의 학문을 족히 알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을 적고<sup>28)</sup> 있다.

또한 「晦齋先生集序」는 그가 조선조 중엽의 대성리학자인 晦齋 李彥迪의 文集을 교정하면서 적은 글로서, 조선조 진기 성리학을 主理의 학설로 체계화한 심오한 학문의 세계와 사람을 대함에 어질고 지혜로운 덕을 베풀고, 충·효가 극진하던 晦齋先生의 생애를 돌이켜 보고, 壁書事件에 연루되어 流配地에서 생명이 쇠잔되어 감을 심히 애석해 하고 있다. 晦齋先生의 손자 浚이 판에 박은 책 4질을 싸가지고 와서 감사 盧禎과 부운 李齊閔이 협의하여 梓나무에 새겨 오래가게 하기 위해 守愼에게 그 序를 부탁하라 하므로 천리 길을 달려와 청하니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그 소감을 써서 보내었으니 「三韓의 心學은 오직 선생이 그것을 가지시었음을 보이노라」<sup>29)</sup>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祭文으로는 「祭退溪文」을 비롯하여 6수를 남기고 있다. 그 가운데 「祭退溪文」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오호라 선생께서 돌아가게 되셨으니 지극히 큰 道學과 정성스

25) 蘇齋先生文集 卷之七 時習箴

26) 蘇齋先生文集 卷之七.

27) 蘇齋先生文集 卷之七.

28) 蘇齋先生文集 卷之七 圃隱集序.

29) 蘇齋先生文集 卷之七 晦齋先生集序.

런 말씀이며 굳고 끈은 학문과 고고하신 행동들을 이제 다시 못들겠네. 애통하고 애통하다. 태산같은 德의 바탕을 이루었으며 후학들의 학문을 인도하시고 좋은 자리 물리치고 학문에만 매진하는 훌륭한 그 인품을 끝내 어디가서 들어볼 수 있으리오. 애통하고 애통하다.

궁궐 서쪽 결채에서 학문을 강론하며 동쪽 호수 곁에 모여 고심함이 얼마던가? 밤을 세워 낮을 도와 晝를 토론할 뿐이었는데, 憂國志士는 일단 정성이 一敗塗地로다. 하늘이 내게 주신 무거운 임무는 지체할 수 없으나 성급히 못 이뤄도 포기치 않으리라. 다시 덕의 범주를 우러러 보고 또한 따를 만한 것을 생각해 보며 허물 고치도록 계획을 어찌 세울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부고를 전해 듣고 말았구나! 애통하고 애통하다. 눈물을 그치고 바라보니 오래된 집만 덩그러니 남았구나. 泰山北과 가셨으니 이제 그 뉘를 의지할 것인가? 슬피 통곡하오니 靈이시여 계시거든 부디 흠향하옵소서<sup>30)</sup>라는 내용이다. 蘇齋가 退溪의 죽음에 대한 애절한 심상을 간곡하게 그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跋은 「困知記跋」을 비롯하여 모두 4수가 文集에 收錄되어 전한다. 「困知記跋」은 嘉靖庚午年(1560) 陰十月四일에 後學 盧守愼이 全南 沃州(珍島)의 蘇齋에서 쓴 것으로 그 대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守愼이 만년에 困知記를 얻어 그 말의 정미하고 정미한 것을 대부분 전 사람이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하여 크게 程朱의 학문에 공 있음을 보았다. 돌아보건대 손 가는 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앞뒤가 섞여 보여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스럽다.

예전에 朱子가 門人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程氏가 남긴 글은 두루 편력하는 것이 좋으나, 다만 두려운 것은 仁을 말한 곳에서 혹 義를 말하고 性을 말한 곳에서 혹 命을 말하여 類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라 하였다. 이에 끝내 「近思錄」을 편성하고 뒤에 다시 續·別의 두 기록이 있어 지금까지 배우는 자가 이에 힘입는다. 감히 기록된 말을 주위 모아서 14부문으로 분류하고 후록으로 할까 하였더니 오직 그 사이의 두어 조목은 나누어 끊어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아아! 이것이 朱夫子가 어렵게 여긴 바의 뜻이겠다. 이것이 특히 守愼이 스스로 참고하고 연구하여 이해하기 편케 하려 한 것 뿐이로다<sup>31)</sup>라고 하고 있다.

이 외에도 「伊川先生畫像贊」을 비롯한 11首의 贊이 있고, 「二子請其字甚勤字閱誠曰仲明徐友諒曰景仁仍祝」의 祝文 1수가 있으며, 「教議政府右贊成李滉書」 教書 1수가 있고, 「溪灘書院記」 記文 1수가 있으며, 車賦를 비롯한 科製 3수가 있다.

8卷에는 「直提學乞解職便養疏」를 비롯하여 54首의 疏劄이 전하고 있다. 「直提學乞解職便養疏」는 蘇齋가 54세(1568)되던 해 陰 4月 10일에 쓴 것으로 直提學으로서 관직을 해면하고 편히 봉양하기를 비는 上疏文이다. 선조 1년(1567)에 蘇齋가 20여 년간의 귀양살

30) 蘇齋先生文集 卷之七 祭退溪文.

31) 蘇齋先生文集 卷之七 困知記跋.

이에서 풀려나와 즉시 弘文館 校理를 제수하여 教旨를 받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해 12월에 아버지의 병환으로 휴가를 받고 시골로 내려갔다가 다음 해 2월에 재촉해 불러서 돌아왔고, 3월에 特拜直提學이 되고, 4월에 두 번이나 疏를 올려 관직을 해면하고 돌아가 봉양할 것을 간곡히 빌었는데<sup>32)</sup>, 그 문장이 뛰어나고 간절하면서도 간곡한 심상이 잘 그려져 있어서 蘇齋의 겸양과 진솔한 일면을 보여 주고 있는 글이다.

그리고 「副提學乞解職歸養疏」는 그해 陰7月 24일에 쓴 것으로 蘇齋가 副提學으로 관직을 해면하고 돌아가 봉양할 것을 비는 上疏文이다. 이는 蘇齋가 두 번이나 上疏해도 청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드디어 휴가를 빌어서 아버지께 歸省하고 6월에 조정으로 돌아왔더니 특별히 副提學에 승진되었고, 7월에 大司諫으로 옮겨 제수하였다가 恩命을 사례하지도 아니하여 도로 副提學을 임명하였으므로 다시 上疏하여 관직을 해면하고 돌아가 봉양할 것을 비는 내용의 글이다.<sup>33)</sup>

그리고 「乞終養箋」은 그해 음 9월 5일에 쓴 것인데, 봉양 마치고기를 비는 疏이다. 이는 기난 七月의 疏로도 왕에게 청함을 얻지 못하자, 드디어 휴가를 빌어서 歸省하고 9월에 또 箋을 올려 갈아줄 것을 청하는 간곡한 내용의 글이다.<sup>34)</sup>

그리고 「請先立志疏」는 먼저 立志할 것을 청하는 疏이다. 이는 그해 음력 11월 3일에 쓴 것으로, 9월의 箋이 들어가지 아니해서 부르시는 명령이 있으므로 또 사표를 올렸더니, 임금의 특별히 漕州牧使를 제수하여 봉양하기에 편하게 하였으므로 10월에 上京하여 謝恩하였더니, 조금 있다가 本道の 監司를 제수하며 11월에 이 疏를 올려서 立志가 근본됨을 극진히 논하면서 「夙興夜寐箴」의 해석을 올리고 인하여 사정을 진술한 내용의 글<sup>35)</sup>이다.

「丁夏在鄉疏」는 宣祖 3年(1569) 陰 3月 16일에 쓴 것으로, 앞의 疏를 올리고도 미처 사직을 允許 받지 못했을 때 議政公의 喪에 奔喪했다. 장례를 마치자 병이 위독하게 되매 감사가 조정에 아뢰어 임금이 內醫와 약을 보내어 救療했다. 蘇齋가 疏를 올리면서 다시 전자에 진술한 立志說을 내세우고 要務六條를 덧붙인 내용의 글<sup>36)</sup>이다.

「大司憲肅拜後疏」는 같은 해 음력 3월 초하루에 大司憲을 肅拜한 뒤에 올린 疏이다. 같은 해 2월 19일 大司諫에서 특별히 大司憲을 제수하였으므로 22일부터 무릇 네 번을 사양하였으나 모두 휴가만을 주었으므로 이에 이르러서는 나와서 謝禮했던 내용의 글<sup>37)</sup>이다.

「副提學乞郡養母疏」는 같은 해 음력 6월 20일에 副提學으로서 郡守되기를 빌어 어머니를 봉양하려는 疏이다. 6월 10일부터 모두 세 번이나 사언을 올렸으나 갈아주는 것을

32) 蘇齋先生文集 卷之八.  
 33) 蘇齋先生文集 卷之八.  
 34) 蘇齋先生文集 卷之八.  
 35) 蘇齋先生文集 卷之八.  
 36) 蘇齋先生文集 卷之八.  
 37) 蘇齋先生文集 卷之八.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이날에 出仕해서 이 疏<sup>38)</sup>를 올린 것이다.

이 외에도 「蘇齋先生文集」 卷之八에는 많은 疏劄이 수록되어 있으니, 간단한 형식으로 된 上疏文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해 7월 3일에 올린 「弘文館劄子」<sup>39)</sup>, 같은 해 8월 18일에 올린 「弘文館劄子」<sup>40)</sup>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들 글 속에는 한결같이 國家와 民生을 위해 直言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蘇齋의 곧은 성격과 不義와 타협할 줄 모르던 眞面目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9卷에는 行狀 1首, 墓表 2首, 墓誌 1首, 碑銘 9首 등이 실려 전하고 있다. 行狀에는 「有明朝鮮國故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知春秋館事李公行狀」이 있고, 墓表는 「有明朝鮮國贈通政大夫吏曹參議行通訓大夫豐儲倉守盧公墓表」를 비롯하여 2首, 墓誌로는 「有明朝鮮國弘文館校理李灘叟先生墓誌銘」 1首가 있으며, 碑銘에는 「有明朝鮮國通政大夫守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柳公墓碣銘」을 비롯하여 9首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의 뛰어난 文章力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0卷에는 「有明朝鮮國故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鄭公神道碑銘」을 비롯하여 10首의 碑碣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現存 文集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宗家에서 秘藏하고 있는 筆寫本 遺稿가 있으니,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晩年에 官界에 있으면서 쓴 「政廳日記」 筆寫本 두 권이 있으니, 한 권은 가로가 23.5cm, 세로 22.5cm 로 총 289面이며, 또 한 권은 가로 23cm, 세로 23.5cm 로 총 464面이다. 이는 官界에 있을 때의 身邊에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로 엮은 것이다. 「呈辭手錄」이란 筆寫本은 가로 20.5cm, 세로 27.3cm 로 총 118面인데 冊名에서 암시하듯 呈辭에 관한 기록이 주류를 이루고, 書狀, 批答 등도 있다. 「寄退溪先生」이란 작품이 첫머리에 나오면서 表題가 없는 筆寫本이 있는데, 가로 24.5cm, 세로 24.5cm 총 25面으로 問答 등이 수록되어 있는 遺稿가 전하고 있다. 또 「文集本草」라는 筆寫本이 있는데, 가로 14cm, 세로 23cm 의 총 92面으로 文集에 수록돼 있는 詩들이 실려 있다. 그리고 「蘇齋集」이란 表題를 붙여두고는 2卷의 筆寫本 詩文遺稿를 남기고 있으니, 한 권은 가로 15cm, 세로 23cm 로서 총 65面이고, 또 한 권은 같은 크기의 책으로 총 106面으로 두 권에 漢詩가 약 600首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쓴 漢詩 몇 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수록된 약 600首의 漢詩 대부분이 既存文集에 수록되어 있는데, 68題 78首만은 수록되지 않은 未發表作品들이다. 이들 68題 78首는 文集을 편찬하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터인데 왜 文集을 편찬할 때 除外시켰는지에 대해 자세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들 筆寫本 遺稿中 68題 78首의 漢詩를 形式別로 분류해 보면 五言絶

38) 蘇齋先生文集 卷之八.

39) 蘇齋先生文集 卷之八.

40) 蘇齋先生文集 卷之八.

句가 11首, 七言絶句가 52首, 七言律詩가 15首로 분류된다. 그러나 七言絶句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蘇齋 漢詩 1587首中 283首가 七言絶句였으니 여기서도 七言絶句가 많은 것은 이상할 것까지는 없다. 이들 68題 78首에 대해 主題別로 분류해 보면, 懷抱述義에 대한 詩가 「寓懷」를 비롯하여 32首로서 가장 많고, 追慕讚頌의 詩가 「挽吳夫人」을 비롯하여 13首로 그 다음으로 많다. 그리고는 感物叙景詩가 「和李君韻」을 비롯하여 7首, 思親孝道の 詩가 「偶題」를 비롯하여 6首, 離別哀傷의 詩가 「次韻僧答」을 비롯하여 5首로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며, 나머지는 學問修德의 詩가 「晝眠」을 비롯하여 3首, 綱常五倫의 詩가 「夜坐念弟宿夢村二絶」을 비롯하여 3首, 飲酒醉樂의 詩가 「偶吟」을 비롯하여 3首, 寄託諷諭의 詩가 「次東園韻贈供應休」를 비롯하여 2首, 江湖閑情, 戀主忠君, 白髮嗟嘆, 福數頌祝, 四季節候가 각각 1首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 78首의 작품을 檢討해 본 결과 修學期의 詩가 15首로, 流配期에 쓴 것으로 보이는 것이 44首, 再宦路期에 쓴 것이 8首, 落鄉期에 쓴 것이 4首, 罷職願을 내기 전에 쓴 것이 1首 등으로 추측되는데, 文集 편찬시에 이들 작품을 제외시킨 것은 다음의 몇 가지로 추측된다.

첫째는 지나치게 私事로운 素材를 내용으로 한 작품은 수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보면, 그의 「晝眠」에서,

一廡何傷我幸予 無時不在聖門居  
離群飽食豈不畏 石心腹木終自如<sup>41)</sup>

이 작품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낮잠을 잔 일에 대한 후회의 心像이 담겨 있다. 學問修德의 열의가 보이는 작품이지만 자신의 의지에 대한 懷恨의 정이 있어 사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文集 수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贈四耐」를 보면,

寒勤梅專飲 風微柳欲頰  
龍華他日會 莫認我爲眞<sup>42)</sup>

스님에게 준 五言絶句이다. 流配地에서 쓴 것으로 懷抱述義의 뜻이 담겨 있으나 僧에게 준 詩인지라 僧과의 交遊는 당시 儒學者로서는 명예롭기 못하다고 생각하여 門人들이 스승에 대한 애정으로 文集刊行時에 除外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蘇齋에 대해 과거시험에 不合格했다는 등 恥部가 드러날 것같은 작품은 文集刊行時에 除外시킨 듯하다. 「偶懷」에서 보면,

聖朝求治急賢良 弄墨操毫較一場  
小野已堪悲自棄 大川眞許不相妨  
風掀短袂精神露 雲撻長途意象忙

41) 蘇齋集(宗家秘藏遺稿) 晝眠.

42) 蘇齋集(宗家秘藏遺稿) 贈四耐.

豈必林泉長往已 百年幽抱一時償<sup>43)</sup>

이 詩는 蘇齋가 25세 때에 쓴 七言律詩이다. 금강산 기행 도중에 全北 金城을 출발하여 암자에 선 후 瑞雲驛에서 숙박하면서 과거시험에 낙방한 후의 自愧心을 달래기 위해 여행길에 올라 자신의 회포를 그리고 있는 시라고 蘇齋自身이 詩題 아래에다 설명을 붙여놓고 있다. 과거 시험에 쓰러린 고배를 마신 것이 다반사이긴해도 天下의 碩學이요 權臣인 蘇齋에게는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文集刊行時에 除外시킨 듯하다.

또한 「點化文山詩自戲」를 보면

白骨叢中過二春 南移入海又風塵  
姓名不變形容改 那有天涯相識人<sup>44)</sup>

이 詩에서 보면, 蘇齋의 초라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 七言絶句의 漢詩이다. 流配로 하여금 겪은 고초와 회포를 슬회하였으나 초라한 작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文集刊行時에 이를 除外시킨 듯하다. 죄를 짓고 파직되어 2년이 지나고 또 珍島로 귀양가니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모양새는 형편이 없어 나를 알아볼 사람 그 누구 있겠으리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自愧하는 心像이 잘 드러나 있어 文集刊行時에 이를 除外시킨 듯하다.

이외에도 平仄이 的確하지 않은 作品도 있고, 戀情詩 성격을 띠고 있는 作品도 있으며, 載道的인 입장에서 門人들이 편찬하던 蘇齋先生의 人品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作品 등을 文集刊行時에 除外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詩의 價値 問題, 특히 倫理的 혹은 社會的, 思想的인 시각에서의 가치문제는 시대가 변모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宗家秘藏遺稿는 蘇齋先生을 위함은 勿論, 蘇齋를 연구하고자 하는 後人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資料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文集刊行時에 除外된 詩作品 68題 78首를 學界에 公開하는 의미에서 掲載 順대로 轉載하면 다음과 같다.

○ 寓懷(戊午晏行金化金城三十里憇僧庵田行三十里宿瑞雲驛是日陰)

聖朝求治急賢良 弄墨操毫較一場  
小野已堪悲自棄 大川眞許不相妨  
風掀短袂精神露 雲擁長途意象忙  
豈必林泉長往已 百年幽抱一時償

○ 挽鄭生員忠楫

係出東萊茂姓後 籍通太學上庠間  
尋常老去身安分 三四年來運苦艱

43) 上揭書, 偶懷.

44) 上揭書, 點化文山詩自戲.



零落幾回悲棟蓊 光陰猶目惜麻菅  
九泉有恨最難民 先生于今未耐班

○ 乾川寺坦敏軸中次韻塞責

十載奔忙患已知 獨行常愧影相隨  
還珠自覺唯存憤 積習何從得刮篋  
喪祭舊編憂更釋 性情新語盪方披  
九原可作吾誰與 偶坐松堂蔭一枝

○ 七夕得友信時友已去二十里不遇

天上宵織女迴 人間昨日謫仙過  
裁成雲錦功如許 乞得嬋妍巧幾何  
生死依前爲永隔 音容從此不相和  
悲愁放曠慚前輩 須把完名戒屋磨

○ 次題敬謹軸

我不是儒不是禪 平生願棄人間緣  
褒斜谷口看圍竹 太華峰頭愛丈蓮  
可笑鬼神爭與戲 任地蘿蘷解相纏  
憑師勿話庵中事 幾度聞來雪滿顛

○ 沙谷樓回文

窮途任意寓尊疊 病客扶春幾眼開  
東坼地形偏窈窕 北來山勢遠崔嵬  
風生細逕寒搖竹 月轉深簷靜放梅  
空碧近樓高興發 中林一鳥好詩催

○ 挽吳夫人(府倅吳誠之繼慈氏也曾從先君助治此府今復再臨二篇俱及之)

夫人有後義當然 慈孝相回即是天  
五馬智能諳舊逕 三牲榮得奉新筵  
遺風邑頌宜家德 肯構人推教子賢  
此理昭昭徵福善 誰從女史備成編

○ 合溪贈詩促次忘拙塞責

與子俱爲東國人 只談仁義着衣巾  
病紆朱綬傷心極 歸對青山結契頻  
雲色已橫秦嶺暮 梅花應落故園春  
低頭自笑還無問 離合從來任上天

○ 偶題(效章)

叨竊天恩餘二禮 迂愚不悔罪彌盈  
好賢易色靡他技 嫉惡如讐此素誠  
終始難明神鬼理 是非粗涉死生情  
若教毫髮由身致 便有無窮不孝名

- 七夜夢見宋諸老夫子數十餘員會而列坐若謫居然俄聞伊川先生當不免云諸公皆慟憤亦從而悲烏非謫也非不免也鄙夢及此私恠其故仍以詩記

宿德先生盡宋儒 儼然成列謫中居  
滿堂不樂情相愛 一老無憂氣自如  
當日猶知記偶坐 覺時何敢驗前書  
平生堪幸仍堪恠 此意悠悠死有餘

- 悔弟別贈回文(十二月)

閑來坐笑一言忘 世世流名幾臭芳  
頑命耐生方禍孽 病心緣在常踈狂  
山掀氣逼寒風黑 海擁陰來熱霧黃  
還鴈獨飛翻北極 斑衣舞罷侍中堂

- 別弟即得妹書悲思自劇時十八日

與弟分携五日強 無端舊犬傍吾牀  
一倫屬氣奚輕重 六合浮生定有亡  
婦珥盡傾虞子育 牡麻猶在哭姑喪  
又承兄赴知何夕 雙服功衫益自傷

- 有僧辭歸起齋所因而有懷

議尊生日竟爭當 里閑公言二瘦行  
上舍儀容同榜裏 壯元聲價一期強  
誰知接武丹墀近 便作相思碧海長  
有老無兒無不似 君家先取積餘祥

- 贈權童子兄弟(童子之父廣文此郡落考還鄉於其行也來調故贈)

天上麒麟是二徐 難爲兄弟雅儀俱  
乘舟尚可陪君側 執燭仍堪坐我隅  
德業宜從小大學 文章須就屈韓樸  
試持三爵慙勸祝 爲做東方一等儒

- 大靜縣監襄規母氏挽詞

胎教家肥早有聲 稀年存沒亦悲榮  
龍驤君做官三品 虎榜兒占第一名  
勿悔謹終行以禮 無窮追遠盡其誠  
沃川民德應歸厚 百世須知始作程

- 鉢淵戲言(行小人串二三里得桂樹臺臺邊有光桂一株故名從石經行二十餘里暮止鉢淵瀑布上其~)

小人無忌憚 直謂性之眞  
吾見長流下 投淵不投身

- 喜述(庚夜晚雨)

好雨時節來 有人喜不寐  
食肉爲何如 渠渠廈屋裏

○ 北亭醉占

西林日色死 北渭清溪流  
獨有孤臣在 半酣不盡愁

○ 笑笑二首

明時哭不可 歌詠德無鄰  
莫恠吾笑笑 自笑不笑人

巧笑素非性 高笑驚四鄰  
賴有鬼不責 自號暗室人

○ 哀詞二首

人爲今日在 鬼神今日亡  
今日且能幾 鬼令人意傷

有生必有死 只疑地下事  
君子無怨尤 氣散難相萃

○ 偶書

而細夜將分 笑微猶有痕  
中山如兩鏡 能照不能言

昵昵蠶吐絲 驚風屏外吹  
三更却相怨 他日有相思

○ 戲書乞橘鄭尚(時無梅會鄭所故附之)

海上有嘉樹 萬林枝可柴  
誰將數百顆 投與陸郎懷

○ 贈四耐

寒勒梅專飲 風微柳欲頻  
龍華他日會 莫認我爲真

○ 出城(四月發京指楓嶽行楊州四十里至綠楊野午飯而行楊州抱川五十里~)

世與吾常十九違 遠遊未賦夢先飛  
浩然今日關東路 藥裏詩囊一布衣

○ 偶言(是日晴)

空山靜夜整衣巾 壯志寥寥一病身  
忽欲最高峯上哭 人間萬事問蒼旻

○ 權喜站(踰小丘入兜率庵行五六里登權喜站望海)

俯視方知海國高 茫茫四極抱無濤  
遊人競道心權喜 誰是吾儕第一豪

○ 曉言(是日晴)

世事于今種種愁 人間何地可遨遊  
不嫌山寺無供給 只爲禪房恣意留

○ 晝眠(壬午)

一寢何傷我幸予 無時不在聖門居  
離群飽食豈不畏 石心腸木終自如

○ 和李君韻

世途自有險中險 吾道豈無層上層  
儘言此地多佳景 句引遊人盡級登

○ 遣悶(是日微雨午收)

雲陰輕薄雨霏微 風伯爲尤天不知  
民是天民天自恤 只今都委與人爲

○ 不怡(戊子愈語在旁是日晴)

利話功談滿世間 幾時橫溢入窮山  
此身此日向何處 耳可得聞心自閑

○ 次韻答僧(六月丁酉衲志寬次趙竹居松下韻示予～ )

平生不受大夫封 惟有秦年五箇松  
自知心事能相契 何必區區向北風

○ 三絕句(辛丑是日晴)

欲遠遊時必有方 誰教日暮倚闌望  
兒心何如親心續 百刻九十九刻忘  
林下憂君分未直 邇來天譴可堪之  
百工泛泛若無事 盡付我王宵旰思  
悠悠無可以爲功 天地中間一蠹虫  
徒費卅年七尺粟 不知何孝又何忠

○ 讀大學有感示弟

斫却淇園八節竿 粧成虛室撻三間  
向來指點從行處 人鬼關前夢覺關

○ 又

萬語千言血脈通 看來一部在胸中  
悠悠寄思唐虞上 皞皞熙熙-字空

○ 宿水多洞(六月)

耿耿悠悠到五更 百憂如火萎良情  
深山風雨無人問 任聽床邊鼾睡聲

- 合溪贈詩促次忘拙塞責  
春風坐上得斯人 秉燭清談覺有神  
明日與君應永訣 合溪邊夢見吾真
- 二子乘舟(今學子賦之仍書所感)  
河上高臺本有求 舟中二子自無憂  
當時若解東西走 誰信君王遣賦謀
- 追和安判官先生韻(名賢十餘公追和感傷於孝友之行尤眷眷焉蓋其詩題在近宅之亭云)  
萬古青青不老山 盡收風物去無還  
先生晦養當年志 諸士區區說話閑
- 夜坐偶閱鶴山先生夜景詩次韻示韓崇德  
水國雲深陰少晴 燈花照眼句新成  
共君暫話人間事 一榻相容鼾睡聲
- 又和唐人韻贈韓  
向來方寸熱兼寒 道理終須仔細看  
且飽十分珍島飯 風雲相護不相干
- 點化文山詩自戲  
白骨叢中過二春 南移入海又風塵  
姓名不變形容改 那有天涯相識人
- 挽吳吏  
公侯無種立無方 陰隲終歸第幾男  
祖送千人松柏路 紛紛不記老夫談
- 挽島儒金仁國  
人間三十四回秋 舉子無成在沃州  
此夕萱堂雙淚盡 眼看嫠婦抱孫憂
- 戲朴贊鶴時朴託同予宿常愛一物  
詭蹤多徑爲無痕 昨夜城西雲雨昏  
但見當爐銷美酒 能知向客報珠恩
- 夜坐念弟宿夢村二絕  
垂死南涯一病昆 背燈堅坐竟無言  
長風漸緊鷄三唱 魂夢何因泊夢村  
相思寸割老精神 萬能紛然變着身  
賴是明朝人不看 看來應訝楚囚真
- 十九夜夢中作(首句及醉下二字鐵而補之第三句中二三字疑亦非真斯夢斯作~ )  
日陪憂老樂陶陶 觀稼樓中醉半消

遠巷鷄鳴獨無睡 臥聽階下竹蕭蕭

○ 元日絕句三首(予今日得年州四故有末篇以戲，戊申正月亂黨二十一首)

坐來頻嚏爲五親 起視天晴與有神  
從此商山無大歎 自將甘旨任昏晨

○ 次韻韓士烟

十載詩書口舌騰 斯人重任力難勝  
尋常自笑餘生久 不笑餘生未折肱

○ 醉題戲贈

色不輕盈膚不凝 妍姿農態尚難憎  
儘教國艷無人識 眉目相親拾未能

○ 曉書

佳人同夢興厭厭 獨寤前簷月半含  
鷄又催晨砧又動 此時幽意許誰參

○ 寄朴韓(二生以第製來請考科焉時爲釋尊齋居鄉校故并致其意)

槐花忙似昔年窮 鵬翮終須萬里風  
最是衣冠陳俎豆 洋洋左右誘人衷

○ 曹貞文挽詞四首

人間六十四回春 流水浮雲世世新  
北首北方閑事業 傳家二壻亦吾親

烟火光陰向杜稀 眼前兒女滿庭闈  
一朝謝却人間事 長臥青山無是非

千林搖落海風寒 丹旆翩翩向北山  
六十四年人世故 泉臺長夜揔爲閑

○ 朴忠孫挽(留鄉別監)

秋風吹老白楊林 二尺高墳百世龕  
遷客臥痾孤執紼 只將悲詠忝農嵐  
搖落空山碧海高 丹旌颯颯曉風颺  
人間壽福無遺恨 君自如歸我自勞  
沃州喬木故家存 七十光陰福履繁  
一夕厭拋人世業 滿山黃葉掩泉門  
一壻四男并五孫 人知後自有興門  
會看匡正山頭石 揔說吾兒是犬豚

○ 秀夫無悔斤斧營度新知數人共助構一間蔽風日喜而有作用工部辭意(茅亭)

強移棲息一枝安 眞爲親朋許小寬  
白酒黃牛仍夕死 誰從江檻落風湍

○ 大靜縣監裴規母氏挽詞六首(十一月)

四品祭仍三品葬 一村榮却百村歛  
人間壽福知無比 宰上松楸定幾尋  
·  
荷歟有子一當千 以禮爲誠貴復賢  
敢請鄉人看馬鬣 白楊應得老天年

○ 次松川韻贈性眞

霜毛種種袂藍藍 朝齋葵莖暮飲潭  
老去何思話自笑 僧來不語試相探

○ 次東園韻贈洪應休

京國歸來兩鬢霜 幾人遺臭幾人芳  
偶將菊葉明秋夜 絕勝葵花向太陽

○ 贈僧

癡生催召赴閻羅 畢竟青山是我家  
惟有愛君心未死 與知階上小葵花

○ 贈僧

老者病者與死者 去年今年又來年  
三過門中一彈指 相逢此地豈徒然

○ 偶吟

晝看雲日夜燈青 旅館無人只臥瓶  
夏清冬溫俱不管 麴生何意慰飄零

○ 又

故山松竹夢中青 相望鶴原耻罄瓶  
自覺偷生如許大 祖先遺澤有餘零

○ 又

聖恩如海不能名 一拜堂前亦已榮  
心火近來水火極 不如蠻貊死無營

○ 送眞公遊長白

幾歲心遊今始身 身心畢意較誰親  
白頭山外閑行遍 只是歸來說得眞

○ 又(贈珠上人)

閱卷將終得政詩 行何容易返何遲  
古寺徘徊白雲在 引聰相對又移時

○ 偶吟

由來席上有餘珍 都解將詩媚主人

不向思巖醉 定應歸去討車茵

○ 聞杜鵑

夢人何觸不辛酸 獨孤相哀斷往還  
今曉一聲驚別意 毛應終歲哭空山

○ 偶吟

一日二日春夢多 三杯四杯情興加  
勸君莫飲貴家酒 且飲吾醜吾當歌

4. 蘇齋詩의 變貌와 展開樣相

4.1. 蘇齋詩 概觀

盧蘇齋는 館閣三傑의 한 사람으로 조선초기 시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20여 년간의 流配生活에서 고독과 싸우며 참담한 삶을 살면서 人生的 苦惱를 詩想에 담았으니 흔히 말하는 詩的인 고민을 통한 達觀의 경지를 시에 투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金昌協은 蘇齋詩를 두고 宣祖 初期에 가장 뛰어난 詩人이라<sup>45)</sup>고 극찬하였다. 李珥는 盧蘇齋의 시에 대해 귀양살이를 하는 중에 학문이 더욱 精하고 그가 또한 詩를 기었는데, 忠君 愛親의 지극한 情에서 나온 것이 많다<sup>46)</sup>고 평하였으며, 洪萬宗은 盧蘇齋의 시에 대해 悽惋하고 沈鬱, 悲壯하다<sup>47)</sup>고 하였다. 그리고 許穆이 撰한 「蘇齋先生神道碑銘」에서 先生의 詩는 바로 楚나라 屈原이 우울한 심정을 읊은 것과 같다<sup>48)</sup>고 하였다.

이와같은 蘇齋詩에 대한 평가는 주로 流配詩에 초점을 맞춰서 20여 년간 귀양살이의 암담한 생활상에서 나온 詩를 두고 경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壺谷 南容翼은 그의 詩를 두고 闊宏하다<sup>49)</sup>고 하면서 鄭士龍, 黃廷彥과 더불어 館閣三傑이라 일컬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蘇齋先生神道碑銘」을 撰한 許穆은 그 碑文에서 張維의 말을 인용하여 氣格이 雄拔하다<sup>50)</sup>고 적었다.

이와 같은 평은 蘇齋가 20여 년간의 귀양살이에서 수많은 전적을 읽고 학자로서 또는 시인으로서의 깊은 경지에까지 이른 것을 두고 경가한 말인 것 같다.

여하튼 蘇齋로서는 괴롭고 험난한 귀양살이가 그에게는 대학가로서뿐만 아니라 조선 조 전기 大詩人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의 詩는 流配地에서 기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침울하고 때로는 悲壯하던 것도 雄拔 闊宏하고 삶을 위해 외치는 높은 소리와 그 호름이 힘차고 굳세었다.

45) 金昌協, 農巖集 34卷 11張 雜誌.

46) 李珥, 石潭日記 明宗 22年(1567)條.

47) 洪萬宗, 小華詩評 下卷.

48) 許穆, 蘇齋先生神道碑銘.

49) 盧蘇齋守慎之 淵宏(南容翼, 壺谷詩話)

50) 谿谷有言 蘇之氣格 雄拔(許穆撰, 蘇齋先生神道碑銘)



그러면 蘇齋詩의 樣相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그의 詩形式에 대해 一瞥히 보자. 그의 詩는 文集 1卷에서 6卷까지 주로 수록되어 있고, 그 외에 宗家秘藏遺稿筆寫本이 있는데, 여기에도 詩가 600여 수가 전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작품이 이미 刊行된 文集에 수록되었지만 68題 78首만은 未收錄 작품이다. 그래서 文集 1卷에서 6卷까지의 1234題 1509首와 未收錄遺稿筆寫本의 68題 78首를 합하면 모두 1302題 1587首가 된다.

이 가운데서 五言律詩가 전체의 48.2%인 766首로 가장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는 蘇齋가 五言律詩를 즐겨 썼던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 다음으로 七言絶句와 七言律詩인데 前者는 283首로서 전체의 17.83%, 後者는 272首로서 전체의 17.14%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蘇齋는 律詩를 많이 쓰되 五言律詩를 더 즐겨 썼고, 七言律詩와 七言絶句도 그 다음으로 즐겨 쓴 것으로 보인다. 이를 圖表로써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卷	卷別作品數		卷別詩形式									計
			5絶	5律	5排	5古	7絶	7律	7排	7古	雜言	
1	202題	238首	6	120	10	22	42	37	·	1	·	238
2	158題	213首	20	83	6	24	33	33	3	2	9	213
3	205題	259首	21	151	25	10	23	24	5	·	·	259
4	222題	247首	16	143	6	15	49	17	·	·	1	247
5	310題	379首	21	195	1	6	54	98	1	3	·	379
6	137題	173首	9	74	8	1	30	48	1	·	2	173
秘藏遺稿	68題	78首	11	·	·	·	52	15	·	·	·	78
計	1302題	1587首	104	766	56	78	283	272	10	6	12	1587
%	100%		6.55%	48.27%	3.53%	4.91%	17.83%	17.14%	0.63%	0.38%	0.76%	100%

그리고 蘇齋詩 1302題 1587首를 主題別로 분류해 보면 그의 詩가 많은 것만큼 主題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귀양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懷抱述義에 대한 詩가 가장 많다. 특히 宗家秘藏遺稿에 있는 詩만도 78首 가운데서 32首가 이에 해당되니 전체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고, 文集 1卷부터 6卷에 걸쳐 있는 1509首의 경우도 懷抱述義에 해당되는 詩가 많다. 따라서 蘇齋詩 총 1587首를 두고 보면 이에 해당되는 詩가 전체의 32.14%로서 510首가 된다. 이렇듯 蘇齋詩에는 懷抱와 述義와 또 이와 관련되는 沈鬱과 悲壯이 근원적으로 저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이 自然에 대한 느낌과 경치를 읊은 感物叙景의 詩가 12.04%로서 191首가 있다. 그리고 귀양기에서의 離別과 哀傷, 父母兄弟 親知 官界에서의 交友 間의 離別 등 離別哀傷의 詩가 많다. 그것은 20여 년간의 流配生活 가운데 流配地의 이동 등 파란 많은 생애의 일단면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99首로서 전체의 6.24%에 해당된다. 또한 蘇齋는 追慕讚頌을 主題로 한 詩도 95首로서 5.99%나 되고, 樂天的인 성격을 반영한 飲酒醉樂의 詩도 86首로서 5.42%나 된다.

뿐만 아니라 珍島에 귀양갔을 때의 암담한 현실, 게다가 풀려나기 어렵게 되어가는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다가 지쳐 인생의 덧없음을 통감하고 읊은 人生無常의 詩가 73首나 되어 4.6%가 되고, 江湖에 묻혀 세월의 덤으로 살아가는 江湖閑情의 詩도 74首로서 4.66%가 된다.

그러나 蘇齋의 初期作인 修學期의 詩는 주로 學問修德에 관한 詩가 많이 보이니 54首로서 전체의 3.4%나 되며, 敎誨警戒에 관한 詩가 41首로서 2.58%, 寄託諷諭에 관한 詩가 43首로서 2.71%나 되며, 또한 아버지나 兄弟 등 綱常五倫을 주제로 한 詩도 36首로서 2.27%나 되고, 비록 몸은 流配地에 있으나 임금을 그리워하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강조한 戀主忠君의 詩가 31首로서 1.95%이며, 죄인이 되어 流配를 왔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痛恨과 官界에 있어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아픔을 읊은 思親孝道를 주제로 한 詩도 35首로서 2.21%나 된다.

이외에도 늙어감을 탄식하는 白髮嗟嘆, 人生行樂, 憂國慨世, 感激君恩, 安貧樂道, 守分知止, 尋訪招待, 戀慕相思, 四季節候, 丈夫豪氣, 聖世逸民, 福數頌祝, 思鄉歸心, 丹心忠節 등을 主題로 한 詩도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圖表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主題別 分類 (1302題 1587首)

主題別	卷 別						秘藏遺稿	計	%
	1 卷	2 卷	3 卷	4 卷	5 卷	6 卷			
感物別	57	25	38	9	39	16	7	191	12.04
離別	6	11	20	17	6	34	5	99	6.24
飲酒	12	11	31	19	8	3	2	86	5.42
追慕	2	13	36	12	3	16	13	95	5.99
人生	10	2	.	11	30	20	.	73	4.60
江湖	21	8	3	9	22	10	1	74	4.66
學問	11	.	3	9	23	5	3	54	3.40
敎誨	5	8	.	19	3	6	.	41	2.58
寄託	.	15	6	2	14	4	2	43	2.71
綱常	8	11	.	.	14	.	3	36	2.27
戀主	8	4	5	.	11	2	1	31	1.95
忠君	12	6	1	10	.	.	6	35	2.21
思親	6	.	.	6	6	7	1	26	1.64
白髮	10	1	.	.	7	5	.	23	1.45
人生	6	3	2	2	9	.	.	22	1.39
憂國	3	4	.	2	4	9	.	22	1.39
感激	1	1	.	7	7	3	.	19	1.20
安貧	.	14	.	.	.	2	.	16	1.01
守分	2	4	2	.	5	1	.	14	0.88
尋訪	1	1	2	1	3	4	.	12	0.76
招待	3	4	3	.	1	.	1	12	0.76
四季	2	1	.	3	2	.	.	8	0.50
丈夫	.	.	.	1	4	2	.	7	0.44
聖世	.	.	.	.	3	1	1	5	0.32
逸民	4	3	4	1	6	3	.	21	1.32
頌祝	.	7	.	.	5	.	.	12	0.76
福數	48	56	103	107	144	20	32	510	32.14
歸心									
丹心									
忠節									
懷									
計	238	213	259	247	379	173	78	1587	100%

## 4.2. 蘇齋詩의 變貌와 展開樣相

蘇齋詩의 變貌過程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의 生涯에 따른 시대 구분이 필요하다. 이 때 前項의 生涯와 文學背景에서 논술한 대로 第一期 修學期, 第二期 宦路期, 第三期 流配期, 第四期 再宦路期の 四期도 분류한 바 있다.

修學期는 蘇齋가 出生한 후부터 그가 初試, 會試, 殿試에 모두 壯元으로 급제하여 初任으로 成均館典籍에 拜命되어 비로소 宦路生活이 시작되는 29세 이전까지이고, 宦路期는 29세에 官界에 나간 후부터 31세(1545)되던 9월에 파직 당하기까지이고, 流配期는 31세되던 9월에 파직 당한 뒤 조부상으로 인해 1년 6개월 동안 流配가 지연되다가 1547년 33세되던 3월에 順天으로 定配되어 다시 珍島로 流配되었으며, 다시 槐山으로 移配되고, 그의 나이 53세(1567) 때에 明宗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하자 같은 해 10월에 東學 李浚慶의 상소로 20여 년간의 流配生活에서 풀려나기 까지이다.

再宦路期는 그후 다시 官界에 나가 右議政, 左議政, 領議政 등을 거쳐 76세(1590)되던 3월에 領中樞府使의 직에서 물러났던 때까지인데, 그해 7월에 棄世하여 官職에서 물러나자 곧 세상을 떠났기에 실재로는 삶을 마칠 때까지이다.

蘇齋詩의 경우는 비교적 創作年代가 明記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의 詩의인 變貌와 展開樣相을 살펴보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다만 宦路期에 지은 작품이라 생각되는 것은 한 편도 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이다. 그리고 流配期의 詩는 그의 詩가 대부분 이 時期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流配期를 다시 流配Ⅰ期와 流配Ⅱ期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流配Ⅰ期는 31세(1545)에 파직된 때부터 忠州와 尙州에 머물다가 順天으로 귀양가기 직전인 33세 3월 이전까지이고, 流配Ⅱ期는 33세 3월부터 9월까지의 順天流配時期와 33세 9월부터 시작되는 珍島와 槐山에서의 流配時期가 이에 해당한다. 그것은 流配Ⅰ期에서 지은 詩가 流配Ⅱ期에서 지은 詩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그 變貌樣相을 달리 해야 되겠기 때문이다.

## 4.2.1. 修學期の 詩

여기서 修學期란 蘇齋가 宦路에 나가기 이전까지 곧 그가 29세되던 해에 科擧에 壯元하여 成均館典籍에 拜命되기 이전까지이다. 다시 말하면 蘇齋가 官界로 나가기 이전의 작품이 나왔던 시기인데, 現存하는 작품은 71수가 있다. 대부분이 己亥年(1539) 그의 나이 25세에 金剛山을 기행하던 당시의 작품이다. 이 詩는 「己亥遊山錄」과 연관되어 있으며 날짜가 詩題 아래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작품 내용도 자연의 景觀을 노래하거나 높은 산봉우리에 오른 것, 고개를 넘으며 산 속에서 경치를 읊은 것이나 암자를 찾은 내용 등이 主調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이 叙景紀行詩들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樣相을 몇

가기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名의 詩語化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蛟山 許筠이 말한 바와 같이 풀무질해서 만들어낸 묘담이 있다<sup>51)</sup>는 뜻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詩「孤石亭」에서 그 例를 들어 보자.

一宿豐田驛 已攀孤石亭  
 崖傾探月窟 冢盡踏天庭  
 曲港龍遺迹 盤渦鶴墜翎  
 無端發清嘯 應動嶽仙靈<sup>52)</sup>

이 詩는 孤石亭에 올라 그 곳의 빼어난 경치에 학이 나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五言律詩의 叙景詩이다. 여기서 孤石亭의 조화로운 경치를 읊은 데서 地名의 詩語化를 엿볼 수 있다. 위의 詩에서 보던 題目의 孤石亭이 詩 內容에서 다시 詩語化되어 있고, 豐田驛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地名이 詩語化되어 있으면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도록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豐과 孤, 田과 石, 驛과 亭 등이 뜻에 있어서도 묘한 對를 이루고 있어서 地名의 詩語化가 조금도 어색하거나 딱딱함이 없이 부드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詩的인 技巧를 엿보게 한다. 그리고 「通口驛縣」의 경우를 하나 더 들어 보면,

長程鞍馬去悠悠 正屬清和雨乍收  
 神女棧邊餘古釜 觀音巖下有深湫  
 風含翠樹亘通口 日照青龍臥渡頭  
 遂向丹霞洞裏去 孤懷徑欲覓仙儔<sup>53)</sup>

위 詩에서도 역시 通口와 渡頭는 地名으로, 口와 頭의 뜻이 對를 이루고 있고 묘한 조화를 이루어 兩句의 詩的인 技巧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通口驛縣의 신비로운 자연적 분위기 속에서 仙女의 무리를 찾고 싶은 心像을 읊는 가운데에 고유명사인 地名을 그 속에 잘 응해시켜 詩的인 技巧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외에도 蘇齋先生集 卷一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시기의 각담으로 地名의 詩語化를 교묘하게 수용한 實例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安奇驛」<sup>54)</sup>에서의 安奇, 「次板上韻」<sup>55)</sup>에서의 朝鮮, 「鄉人乞詩」<sup>56)</sup>에서의 尚州縣化寧, 黃山, 沙谷, 金城縣 등이 모두 地名인데, 이를 詩語化하여 對句 내기 重義法 등의 詩的인 技巧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坐石」<sup>57)</sup>이란 詩에서 普德은 窟名이고, 香爐는 산봉우리 이름인데, 이를 詩語化하였으며, 「三臺感

51) 許筠, 惺叟詩話.

52) 蘇齋先生文集 卷一.

53) 蘇齋先生文集 卷一.

54) 蘇齋先生文集 卷一.

55) 蘇齋先生文集 卷一.

56) 蘇齋先生文集 卷一.

57) 蘇齋先生文集 卷一.

興」<sup>58)</sup>에서 仁養은 養仁臺, 心安은 安心臺, 心開는 開心臺를 詩語化한 것이고, 「表訓寺讀書」<sup>59)</sup>에서는 金剛臺를 고묘하게 詩語化했으며, 「楓嶽三十韻」<sup>60)</sup>에서는 白頭山, 東海, 鐵嶺, 毗盧峯, 拜帖, 石鷹峯, 石馬峯, 日出峯, 月出峯, 天燈峯, 香爐峯, 衆香城 등을 詩 속에 용해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普濟院」<sup>61)</sup>에서는 三角, 普濟院, 樂善, 乾川 등의 고유명사가 고묘하게 수용되어 對句法, 重義法 등의 詩的인 技巧에 성공한 점 등은 蘇齋詩의 特色이라 할 수 있다.

둘째, 詩句의 破格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詩의 관습적이며 內在的인 문법을 무시한 破格을 가한 것을 말함인데, 예를 들어 보면, 「次板遣問」에서,

嗚呼噫嘻我知之 萬古悠悠我所思  
簡策有言前輩遠 淵源無授後生疑  
弱齡赤幟曾驚俗 十載紅塵謾走歧  
欲向明時奏流水 此生何處遇鍾期<sup>62)</sup>

이 詩는 生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던 중에 흐르는 물이 가는 것을 보고 그 流水에 자신의 갈길을 묻는 작자의 心像이 갈 나타나 있는 詩이다. 「嗚呼噫嘻我知之」에서 前四字가 들쭉 짝을 지은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詩句로서는 破格的인 面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鄉人乞詩」<sup>63)</sup>를 보면, 「尚州縣化寧」의 句는 두 地名이 한 句를 이루고 있다. 같은 시에 「情以一鄉重」도 「以」를 씌우므로써 시의 관습적인 문법이 파괴되어 있다.

「四庵臺吟」<sup>64)</sup>의 「北辰與南斗」의 句는 北辰과 南斗란 두 개의 고유명사를 접속사 「與」로 연결시켜 한 句를 형성하고 있고, 「楓嶽三十韻」의 「白也南分迤」<sup>65)</sup>에서는 평서문의 종결사 「也」를 강조의 뜻으로 사용하여 白頭山의 의미를 가진 「白」자를 강조해 주는 破格을 보이고 있다. 「宿大松蘿庵」<sup>66)</sup>에서의 「惟人也最秀」역시 특이하게 「也」자를 삽입시켜 의미를 강조하는 破格을 보이고 있고, 「喜雨」<sup>67)</sup>에서의 「宜稼天幸耳」의 「耳」는 한정 의 강한 의미를 지닌 종결사로서 쓰였고, 같은 詩에서 「先公而及私」에서는 접속사 「而」자를 사용하여 散文化시키고 있다. 「得家信」<sup>68)</sup>의 「羸馬也能旋」의 也 역시 그렇다.

이와같은 詩句의 破格은 작자의 散文精神에서 포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관습적

58) 蘇齋先生文集 卷一.  
59) 蘇齋先生文集 卷一.  
60) 蘇齋先生文集 卷一.  
61) 蘇齋先生文集 卷一.  
62) 蘇齋先生文集 卷一.  
63) 蘇齋先生文集 卷一.  
64) 蘇齋先生文集 卷一.  
65) 蘇齋先生文集 卷一.  
66) 蘇齋先生文集 卷一.  
67) 蘇齋先生文集 卷一.  
68) 蘇齋先生文集 卷一.

인 詩句에서 변화를 보여주는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작자의 독특한 詩的인 技巧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세째, 修辭的인 技巧과 참신성을 보이고 있다.

蘇齋詩에 있어서 修辭的인 技巧은 比喩法, 重義法, 점층법, 반복법, 연쇄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比喩法부터 보면, 「孤石亭」<sup>69)</sup>의 ‘曲巷龍遺迹 盤渦鶴墜翎’에서는 隱喩法을 써서 보다 선명한 視覺的 image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鴈門午飯」<sup>70)</sup>의 ‘從巖爭露鬢’에서는 巖을 鬢에 시각적으로 비유하고 있고, 새의 이름은 울음소리로 인해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聽覺的 image의 비유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利嚴窟」<sup>71)</sup>의 ‘風搖木蓮白 霞醉海棠紅’에서는 시각적인 image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寫實的인 면서 참신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그리고 重義法을 많이 쓰고 있으니 이를 보면, 「坐石」<sup>72)</sup>의 ‘雲埋普德千尋窟 日照香爐萬丈梯’에서 普德과 香爐는 각각 普德窟과 香爐峯의 뜻이기도 하지만 普德(太陽)이 구름에 덮힌다는 것과 窟은 아주 어두워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 ‘日照香爐’는 향로봉 위에 햇빛이 내려비친다는 것과 향에서 나는 연기가 층층이 비추어진다는 重義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三臺感興」<sup>73)</sup>의 ‘仁養心安相待成 此心開處又平亭’에서의 仁養, 心安, 心開는 각각 養仁臺, 安心臺, 開心臺의 三臺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仁을 기르기와 마음의 平安을 서로 기다려 이루니, 이 마음 열리는 곳에 또한 평평한 정자 있베라는 표현으로 작자의 哲學的인 의미까지 표현하고 있다.

「四庵臺吟」<sup>74)</sup>의 ‘眞德天何妙 圓通證亦奇’에서도 역시 眞德은 天眞臺와 天德庵을, 妙는 妙德庵을, 圓通은 圓通庵을 뜻하기도 하지만, 詩句 속에서 참된 德을 지닌 하늘은 어찌 그렇게도 오묘하며, 圓과 통하는 증험 또한 기이하기도 해라는 뜻의 二重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須彌庵」<sup>75)</sup>의 ‘五月六花飛’에서의 五月에서 六花로의 점층법의 수용도 볼 수 있고, 「拜帖」<sup>76)</sup>의 ‘此膝久不屈 此心何事驚’에서의 此膝과 此心の 반복법을 교묘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新浴」<sup>77)</sup>의 ‘庵下溪深深不流’에서의 溪深의 深을 받아 深不流라고 한 것처럼 한 句 속에서 연쇄법의 技巧을 엿볼 수 있고, 「喜雨」<sup>78)</sup>의 ‘復得望宜椽 宜椽天幸耳’에

69) 蘇齋先生文集 卷一.  
70) 蘇齋先生文集 卷一.  
71) 蘇齋先生文集 卷一.  
72) 蘇齋先生文集 卷一.  
73) 蘇齋先生文集 卷一.  
74) 蘇齋先生文集 卷一.  
75) 蘇齋先生文集 卷一.  
76) 蘇齋先生文集 卷一.  
77) 蘇齋先生文集 卷一.  
78) 蘇齋先生文集 卷一.

서 宜稼를 그 다음 句節로 인쇄시키고 있는 점 등의 修辭的인 技巧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베제, 塵, 濯, 仙 image의 詩語化를 엿볼 수 있다.

蘇齋詩 가운데 修學期的 詩에서 塵, 濯, 仙 image의 詩語化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이를 실제의 작품에서 찾아보던 다음과 같다.

- ㉠ 居塵更好永離塵(卷一, 次板韻贈祥長老)
- ㉡ 莫令塵事加(卷一, 榆岾寺)
- ㉢ 纓濯振衣塵得留(卷一, 新谷)
- ㉣ 塵埃十年跡(卷一, 次板上韻)
- ㉤ 弱齡赤職曾驚俗 十載扛塵護走歧(卷一, 次板遺悶)

위의 작품에서 塵의 의미를 ㉠와 ㉤에서 찾아보던 10년 넘게 세상의 먼지 속에서 헤맸다는 것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10년이란 의미는 작자가 17세부터 후에 장인이 된 李延慶에게서 본격적으로 修學했다는 사실로 보아 작자가 학문에 뜻을 두고 世俗的인 성취 곧 과거시험을 위해 공부하게 된 8年餘의 시기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시간이다.

「四庵臺吟」<sup>79)</sup>의 ‘北辰與南斗 攀得是男兒’와 「次韻贈信戒」<sup>80)</sup>의 ‘有志依仁里 無才戰藝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큰 이상을 품고 있지만 理想(仁里)과 現實(藝場) 속에서의 괴리와 여기에 따르는 자신의 無才로 인한 갈등 속에서 훌쩍 떠난 금강산 기행에서 비로소 「馬上謔言」<sup>81)</sup>의 ‘幸有他年招隱採 莫疑人世盡浮名’에서 나타나듯이 이 모든 것이 헛된 명예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 자신은 「次韻贈智峯」<sup>82)</sup>의 ‘蝸角爭常鬧 臺中事欲休’처럼 어리석은 세상사에서 벗어나 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세속의 일과 먼지 속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宿大藏巖」<sup>83)</sup>의 ‘始欲身離俗 終期骨換凡’인데 그 방법이 「廡門午飯」의 ‘採藥還供飯 臨流屢濯纓 茲茲愜心賞 已足冠平生’과, 「新谷」<sup>84)</sup>의 ‘少磨激石垢自去 纓濯振衣塵得留 足恐大遺專小愛 還客外急漸中修 殷銘沂詠終糟粕 獨對陳編歎未休’와 「復登斷髮嶺」<sup>85)</sup>의 ‘惜將新濯足 再踏陌中埃’에서 볼 수 있듯이 濯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는 世俗的인 데서 벗어난 금강산 유람을 통해 仙界를 맛보게 된다.

앞에 나온 「孤石亭」<sup>86)</sup>의 ‘應勁嶽仙靈’과 「通口驛縣」<sup>87)</sup>의 ‘神女棧邊餘古釜’ 및 ‘孤懷

79) 蘇齋先生文集 卷一.  
 80) 蘇齋先生文集 卷一.  
 81) 蘇齋先生文集 卷一.  
 82) 蘇齋先生文集 卷一.  
 83) 蘇齋先生文集 卷一.  
 84) 蘇齋先生文集 卷一.  
 85) 蘇齋先生文集 卷一.  
 86) 蘇齋先生文集 卷一.  
 87) 蘇齋先生文集 卷一.

徑飲覓仙寧<sup>88)</sup>와 「修善庵」<sup>89)</sup>의 ‘五賢峯北喚羣仙’과 「楓嶽三十韻」<sup>90)</sup>의 ‘世苟無仙道’와 「贈峻師」<sup>91)</sup>의 ‘只舍林間作地仙’ 등에 나타나고 있는 仙의 image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가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단발령을 넘으면서 다시 世俗의 먼지를 밟게 될까 걱정과 안타까움이 다르게 된다. 「復登斷髮嶺」<sup>91)</sup>의 ‘惜將新濯足 再踏陌中埃’가 그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25세 때에 금강산 기행에서 얻은 71首는 작자가 10여년 동안 世俗의인 명예를 얻기 위해 글물했던 점을 반성하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신선한 충격을 얻은 것의 반영이라 하겠다.

#### 4.2.2. 流配期の 詩

蘇齋의 詩中 26세에서 30세까지 5년간의 작품은 文集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29세에 등과하여 成均館 典籍, 弘文館 修撰, 侍講院 司書, 兵曹佐郎, 玉堂을 거쳐 31세에 司諫院 正言, 吏曹佐郎 등을 역임하다가 31세(1545) 9월에 파직되기 이전까지는 文集 속에 작품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처음 官界에 있었던 짧은 宦路期는 생략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蘇齋詩는 첫 宦路期에서 거의 작품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再宦路期 끝 流配를 마치고 돌아와 重用되었던 시기에도 역시 작품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그는 20여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기 때문에 流配地에서 쓴 작품이 문집 속에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流配期の 詩를 다시 兩分하여 고찰하게 되는데, 31세(1545)부터 順天으로 귀양가기 전까지 충주와 상주에 머물던 시기의 작품 91수는 珍島와 槐山의 流配地에서 쓴 시와는 그 성격이 다소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流配期の 詩를 順天으로 귀양가게 되는 것을 분기점으로 하여 前期를 流配Ⅰ期, 後期를 流配Ⅱ期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4.2.2.1. 流配Ⅰ期の 詩

충주와 상주에 머물 때 쓴 작품 91首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작품의 내용적인 특징은, 罷職된 후 총에 받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와 반성, 사면받기를 희망하는 작자의 心像, 현실을 天命으로 받아들이는 順命意識 등이 작품 속에 表現되어 있다.

감정의 절제없는 직접 표현보다는 동물·식물 등 주변 image로 일차 걸러낸 후 간접 표현 방식으로 과리하고 수척하며 빙글고 궁색한 자신의 현실적인 image를 표현했던 작품들이다.

88) 蘇齋先生文集 卷一.

89) 蘇齋先生文集 卷一.

90) 蘇齋先生文集 卷一.

91) 蘇齋先生文集 卷一.



그러나 멀기 않아 사면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정신적으로 안정된 작품들이 창작된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이 시기의 주요 image로서 ‘梅’의 image와 자신과의 同一<sup>92</sup>는 40代 작품에 많이 나타나는 ‘菊’의 image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蘇齋詩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名의 詩語化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蘇齋詩도 修學期의 詩처럼 地名의 詩語化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宿珠峴」<sup>92</sup>의 ‘珠峴臨寒日’에서의 珠峴이 詩語化되어 있고, 「黑石吟」<sup>93</sup>의 ‘暮雨黑石村朝涉黑石晴’에서의 黑石의 地名이 詩語化되어 있으며 같은 詩에 化寧吾世堊에서의 化寧이란 地名이 교묘하게 詩語化되어 있다.

「藏巖」<sup>94</sup>의 ‘晨過水青亭 歇馬藏巖早’에서의 藏巖, 「黑石」<sup>95</sup>의 ‘黑石不可度 石黑深更狹’에서의 黑石이란 地名의 詩語化가 보이고 있다. 이 시기도 修學期와 마찬가지로 地名의 詩語化現象이 많이 보이는데, 주로 작자의 고향과 고향 주변, 작자가 지나간 곳의 地名 등을 교묘하게 詩語化하는 수법은 前代의 修學期의 詩에서 보이는 그대로이므로 번모라기보다는 地名의 詩語化現象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둘째, 詩句의 破格을 들 수 있다.

詩句의 破格은 修學期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詩의 散文化現象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也, 而, 於, 爲 등의 虛辭의 사용이 일반 散文의 경우와 같이 쓰이고 있고, 강조의 의미나 부사 등의 사용도 많아서 詩句의 破格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의 實例를 들어 보자.

學而不<sup>○</sup>成學(卷一, 黑石吟)<sup>96</sup>

強<sup>○</sup>爲善而已 其若命何 曷<sup>○</sup>勿以行巨<sup>○</sup>矣 仍教志汝摧(卷一, 憶弟)

獨<sup>○</sup>僻洽也訥(卷一, 擘合舊知也乞詩甚荷仍寄數語)

嗟予心已灰(卷一, 擘合舊知也乞詩甚荷仍寄數語)

全<sup>○</sup>也多朴實(卷一, 贈僧道全)

明<sup>○</sup>也元離俗(卷一, 贈信明上人)

不慈而亦孝(卷一, 臘月廿八日夜書懷)

此豈章惇爲(卷一, 只石)

敢<sup>○</sup>於糟粕覓眞厚(卷一, 奉寄金和叔公金時權句催科)

이와 같이 詩를 서술하는 어휘를 散文에서 흔히 쓰이는 也, 而, 於, 爲, 已 등의 虛

92) 蘇齋先生文集 卷一.

93) 蘇齋先生文集 卷一.

94) 蘇齋先生文集 卷一.

95) 蘇齋先生文集 卷一.

96) 以下부터 卷一 · 卷六까지의 表現은 모두 蘇齋先生文集의 卷數를 뜻하고, 卷 뒤의 것은 詩題를 의미한다. 그리고 ○표시를 한 글자가 곧 虛辭이다.

辭를 많이 사용하여, 그 뜻을 강조한다는가, 부사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등 詩語에서 잘 쓰지 않은 語句의 破格的인 實例가 많고, 또한 一句가 日時만을 기록한 破格的인 詩句도 많이 있으니 이를 보던,

丁未春正月 山中一草庵  
 形容長別離 魂夢幾東南  
 碧眼空堂得 清懷永夜探  
 無因再乘興 回首九年慚<sup>97)</sup>

위의 詩는 蘇齋가 33세 되던 해에 상주에서 春正月에 지은 시인데, 첫 句는 日時만을 기록한 破格的인 面을 보이고 있다.

셋째, 修辭的인 技巧와 참신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蘇齋詩는 修學期보다 더한층 높은 技巧와 多樣한 修辭를 즐겨 쓰면서 보다 뛰어난 詩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즐겨 썼던 修辭的 技巧는 주로 重義法, 반복법, 점층법, 연쇄법, 은유법, 직유법 등인데, 이를 수용하여 뛰어난 詩才를 발휘하고 있었다.

먼저 重義法부터 보던, 地名을 詩語化하면서 對句法을 수용하여 교묘하게도 重義의 表現을 구사하고 있다. 그 實例를 보던 다음과 같다.

暮而黑石村 朝涉黑石疇(卷一, 黑石吟)  
 黑石不可度 石黑深更狹(卷一, 黑石)

반복법의 경우는 對句로 사용하면서 반복에서 얻어지는 음악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實例를 들어 보던 다음과 같다.

下山復下山(卷一, 黑石吟)  
 此日前年哭侍臣 今年此日泣山人(卷一, 中宗大王練日在水落庵)  
 去月來病翁 今月歸病翁(卷一, 出觀音寺示弟)  
 好人亦後從 好人嗟予季(卷一, 出觀音寺示弟)

그리고 점층법과 연쇄법의 예도 많이 볼 수 있으니, 그 實例를 들어보던 다음과 같다.

二更好已駟 三更馬空齷(卷一, 蕙店)

연쇄법, 점강법의 實例를 보던,

嶺月向圓圓又缺(卷一, 元叔有約不至仍寄短律)

이외에도 직유법, 은유법, 상징법 등의 多樣한 修辭法을 수용하고 있다.

넷째, 파리함, 수척함, 궁색함 등의 image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97) 蘇齋先生文集 卷一, 歲己亥遊楓岳僧祖談從禱別時有贈今遠訪相示爲之三數遂次其韻.

이 시기는 流配地에서의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곧 사면이 될 것을 기대하던 때였다. 그러나 이미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작자는 그가 쓴 詩語 속에서도 작자의 궁색함, 수척함, 파리함 등의 나약한 image의 詩語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두드러진 詩語는 파리함, 수척함, 궁색함 등이라 하겠는데, 이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 작품의 흐름과 관련시켜 살펴보면, 먼저 관직에 나아가 총애를 받다가 갑자기 무너지게 된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奉寄康君三十韻」<sup>98)</sup>의 ‘不幸巍科取 非優顯仕登’, 「遠川」<sup>99)</sup>의 ‘寵極三年庇 功虧一息欽’, 「卒哭日」<sup>100)</sup>의 ‘臨班威九品 閉戶獨孤臣’, 「至日掃墳遠川示弟四百字」<sup>101)</sup>의 ‘賤子恭承恩’, 「中宗大王練日在水落庵」<sup>102)</sup>의 ‘此日前年哭侍臣 今年此日泣山人’ 등의 句에서 잘 나타나 있고, 자신의 파면된 이유를 「憶弟」<sup>103)</sup>의 ‘守口惟時開’에서 보면 동생에게 입조심하라는 경계의 말로써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며, 또한, 「遣興五首」<sup>104)</sup>의 ‘多言且不慎 實有招禍道’, 「贈信明上人」<sup>105)</sup>의 ‘百世保無譴’에서도 말조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작자의 궁한 처지를 자신의 人生에 있어서 잘못 들어선 길로 보고 있는데, 그 實例를 들어 보면,

顛躓誤儒術 官非休乃黜(卷一, 贈僧道全)  
 歧途便迹跡 聲名半生誤(卷一, 積水菴贈靈雲二律)  
 追思十年非 歎息踰知非(卷一, 發沙谷五首)  
 歸來落葉深 忘却桃源道(卷一, 藏巖)

라고 하여 자신의 살아온 길에 대해 후회의 心像을 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詩語의 image가 자신과 결부되어 직접 표현된 것도 많이 있다. 實例를 들어보면,

閉戶獨孤臣(卷一, 卒哭日)  
 醉裏孤吟更熱腸(卷一, 別無梅醉後作)  
 還有苦吟多病客 一生懷抱偶然同(卷一, 詠梅十二絕)  
 倦睡皆癡僕 愁吟獨病翁(卷一, 宿率面人家阻雨一日)  
 離索年來無好債 窮山獨夜病形骸(卷一, 和寄還珠韻)  
 離別太匆匆 多病春三月(卷一, 贈別)

에서처럼 외로움, 근심, 괴로움, 병듦, 궁핍함 등으로 직접 나타나고 있으며, 간접 표현의 경우도 있다. 蘇齋는 이와같은 零落 속에서도 고난, 역경, 추위를 이겨내며 꽃피우는 梅花와 자기 자신을 同一視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詠

98) 蘇齋先生文集 卷一.  
 99) 蘇齋先生文集 卷一.  
 100) 蘇齋先生文集 卷一.  
 101) 蘇齋先生文集 卷一.  
 102) 蘇齋先生文集 卷一.  
 103) 蘇齋先生文集 卷一.  
 104) 蘇齋先生文集 卷一.  
 105) 蘇齋先生文集 卷一.

梅十二絶」<sup>106)</sup>의 ‘一生懷抱偶然同’이라고 한 데서 그와 같은 대화와 작자 자신과를 同一視하려는 강한 욕구를 읽을 수 있다.

이외에도 蘇齋詩에 있어서 梅花와 관련 있는 작품으로는 「蘇齋先生文集」 卷一에서 단도 「詠梅十二絶」을 비롯하여, 「立春詠懷」, 「紅梅」, 「晚雨」, 「立春」, 「庭前老梅三月始葩亦其土性風氣然也」, 「贈別」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罪에 대해 후회하고 사면받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으니, 그 詩句를 들면,

自分堂誅罪 長辭駿走禋(卷一, 卒哭日)  
 唯須速入地 萬一望玄宸(卷一, 卒哭日)  
 默歎孤臣存 涕淚寢席前(卷一, 臘月廿八日夜遭懷)

라고 실토하고 있다. 이와같은 강렬한 희망은 「夢與弟遊戲」<sup>107)</sup>라는 詩에서도 은연중 나타나고 있다. 곧 사면받고 싶어하는 내면의식이 꿈을 통해 밝은 image로 채색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잘못된 길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체념적인 想念을 그린 詩도 있으니, 그 詩句를 보면,

命矣難尤怨 求諸益戰兢(卷一, 奉寄康君三十韻)  
 一夕哭王庭 道死無悔怱(卷一, 遣興五首)

라고 하였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잊볼 수 있어 좋다. 그리고 병든 image와 함께 자기 죽음에 대해 표현한 작품이 있다. 이는 뒷날 流配地에서도 몇 차례 自挽의 작품을 창작하게 되는 것과 연관시켜 볼 때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강했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時間의 詩語化現象을 들 수 있다.

蘇齋는 時間에 대한 인식이 철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작품을 쓰는 혹은 여행을 하는 지 그는 日時記錄을 중시했다. 卷四의 「乙卯避寇錄」 47首의 경우는 詩題 아래에 日時와 날씨, 간단한 일기가 기록된 일기식의 표기가 있어 특이하다. 卷一의 「遊山錄」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작품이다. 그리고 그의 文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의 대부분의 詩題 아래에 작은 글씨로 창작시기를 明記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와같은 철저한 시간 의식은 그대로 작품 속에 투영되었는데, 現在의 日時를 시 속에 표현한 경우도 있고, 詩 詞句<sup>108)</sup> 혹은 마기막 句에 日時를 기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서 곳곳에 시간을 표기하고 있다. 이는 작자가 현재의 시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는 詠史詩 성격의 작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06) 蘇齋先生文集 卷一.

107) 蘇齋先生文集 卷一.

108) 仁宗大王挽詞二首(卷一), 家君生辰在觀音寺(卷一), 慧洽舊知也乞詩甚苛仍寄數語(卷一), 立春詠懷(卷一), 又贈無悔(卷一), 爲之三歎遂次其韻(卷一).

## 4.2.2.2. 流配Ⅱ期の 詩

流配Ⅱ期란 蘇齋가 順天으로 流配되기 시작한 33세(1547)되던 3월부터 珍島流配生活를 거쳐 檀山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뜻한다.

이 기간에 쓴 각품이 蘇齋詩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작자는 33세 때에 順天으로 流配되었다가 良才驛壁書事件으로 더욱 악화되어 孤島인 珍島로 다시 流配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고, 더구나 39세 때에 동료들의 赦免消息은 들었지만 자신은 어거저 제외되어 더욱 큰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갔다. 그래서 珍島에서의 귀양살이 19년은 蘇齋의 人生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황금시기를 빼앗아 갔고, 외딴섬에서 고독한 삶을 보내게 했다. 반면에 그의 詩文學創作에는 절박한 삶의 위안길에서 자신의 회포와 生涯를 읊은 수많은 작품을 남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외롭고 험난한 귀양살이로 인해 不孝하게 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면서 父母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겹쳐져 있는 작품을 쓰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詩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소로 인한 귀양살이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赦免되기를 갈망하는 작자의 心像을 나타내기도 한다.

때로는 조정의 간신배들의 발호를 諷刺하면서 현실 속에서의 외로움, 슬픔 등 절망감에 빠져 憔悴해지거나 암담해지는 자신의 心像을 詩酒로 달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그는 이와같은 암담한 절망감을 극복하기 위해 修德과 讀書을 즐기면서 위안의 방편으로서 人生의 無常을 깨닫고 仙의 世界를 추구해 보기도 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陶淵明, 屈原, 蘇東坡 등과 관련된 詩語들이 작품 속에 많이 투영되고 있는데, 이는 뜻 뜻한 의지와 충결 등을 기렸으나 참언에 의해 쫓겨났거나 뜻을 펴지 못한 점에서 이들과 자신을 同一視하거나 그들의 정신을 흡모한 것으로서 특히 屈原과 楚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초기 詩에는 世俗의 塵埃를 씻어낸다는 의미인 ‘濯’과 관련된 詩語가 많은데 비해서, 이 시기의 詩는 많은 변모를 가져왔으니, 그는 참언에 의해 쫓겨난 신하인 屈原과 자신을 同一視하는 내용의 詩語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初期詩에서 자주 나타났던 梅花에 대한 사랑이 이 시기에는 菊花로 옮겨가 菊花에 대한 偏愛, 國화와 同一視하는 변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먼저 流配生活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있으므로써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 슬픔 등을 표현한 詩가 많았는데, 이를 例證할 만한 詩句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吾非借一死 恐重不孝累(卷一, 醉時率意放筆排<sup>109</sup>)  
 風病愁隨線 鶴飛淚濕裾<sup>109)</sup>(卷二, 至日有感二首)

109) 이 詩에서 風은 父親을, 鶴은 母親을 상징함.

還應兩親面 夢裡不禁驚(卷二, 復題短律)  
 聖朝將孝理 遊子有歸期(卷二, 家君寄詩二首命和進)  
 世人莫不穀 每道父母將(卷二, 新月)  
 所慟雙親老 相離在世時(卷三, 自挽)  
 涵泓聖主澤 開慰老親心(卷三, 一夕疊受北堂書二道飲酒口占三首)

등인데, 어버이에 대한 지극한孝心을 읊은 句들은 이 외에도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다음에는 前述한 바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거나 자신이 변함없는 忠誠心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한 詩句들이 많으니,

聖恩如海罪當誅… 珍重平生主忠信(卷二, 道和韓士炯)  
 承君必責善 曾之有何圖(卷二, 沃州二千言)  
 殘生已三荷 不亦聖恩欺(卷二, 釋奠後餞豚)  
 兒戲常思綵 臣忠尚望環(卷二, 中秋有月詠懷三十韻)  
 微臣望雲漢 聖慮政經營(卷三, 悶旱)  
 御杯只長祝 萬萬聖春秋(卷三, 次韻安純彥醉吟)

등이 있다. 이외에도 「謝人惠鹽」<sup>110)</sup>, 「口號」<sup>111)</sup>, 「人日」<sup>112)</sup> 등 많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변함없는 忠節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면되기를 갈망하거나 간신배들의 발호를 풍자한 작품도 매우 많으니, 實證할 만한 詩句들을 찾아보면,

十年類賴鬼門傍 遠子孤臣不失望(卷三, 次友人韻)  
 但得過歸九泉下 明年此日任西東(卷三, 中元有感)  
 聖朝將孝理 遊子有歸期(卷二, 家君寄詩二首命和進)  
 塵中着蠶虱 一去便無歸(卷二, 七夕感興三首)  
 孤臣况自賀 耕鑿樂雙親(卷三, 閏赦)

등인데, 자신이 참언에 의해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니 사면되기를 갈망하면서 조정의 간신배들에게 一針을 가하고 있다.

다음은 암울한 現實 속에서 의로움, 슬픔 등을 표현하거나 걸망감에 빠져 憔悴해지거나 안담해져서 술로 자신을 달래면서 시름을 잊고자 하는 내용의 작품이 많다. 이에 관 계되는 詩句만 예를 들어 보면,

不愛人皆醉 如何勸飲酬(卷二, 咏柳君大橋奉贈)  
 醉臥長沙遠 人生見汝雙(卷二, 夜醉示無悔秀夫)  
 我醉客忽去 落月應夫醒(卷二, 醉後亂書)  
 醉來輒忘言 頽然兩白首(卷二, 隣翁餉酒醉中作)  
 醇醪有妙理 一酌散羈魂(卷三, 醉草)

110) 蘇齋先生文集 卷二.  
 111) 蘇齋先生文集 卷三.  
 112) 蘇齋先生文集 卷三.

狂歌臨碧海 醉舞拓晴空(卷三, 越五日甲午予次設酌)  
 斗酒臨斜日 沈吟落晚風(卷三, 醉吟)  
 清談有酒傾 流年寸心折(卷三, 贈別崔廣文)  
 殘生汗浹背 萬事淚沾頰(卷三, 次秀夫韻二首)

등인데, 귀양살이에서의 고독한 심혼을 술도 달래며 시름을 잊고자 하는 작자의 心像을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로 修德과 독서를 하거나, 정신적 위안의 방편으로서 人生의 부귀공명이란 모두가 헛된 것임을 깨닫고 仙의 세계를 구해 보기도 한다.

이 시기에 仙의 세계에 대한 추구는 20대에 금강산 유람시의 仙의 세계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대의 仙의 의미는 부질 없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科擧를 위한 학문에 골몰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지닌 데에 반해서, 이 시기의 仙은 流配地에 갇혀서 한 발자욱도 벗어날 수 없는 物理的인 현실 구속의 流配生活下에서 정신적인 탈출구로서의 仙의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에 「喚仙亭」을 비롯하여 仙을 구하는 詩가 여러 편 나오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 仙의 世界 追求도 그에게 충분한 위안이 될 수 없었으며 항상 병이 겹쳐 현실에 대한 順命意識과 人生의 허무함, 죽음의 世界가 포현되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詩句만 들어 보면,

一別生前子 孤囚死際臣(卷一, 口號)  
 昇平好樓閣 宇宙幾神仙(卷一, 十六夜喚仙停二首次韻)  
 悠悠百世內 幾箇死浮名(卷三, 次韻陳約而)

등과 같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을 陶淵明, 蘇東坡, 杜甫 등과 비겨보기도 하고, 屈原과 同一視하기도 하며 謫仙의 의미로 李白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했다.

이것은 陶淵明과는 다소 다르지만 작자가 忠節을 지녔으나 참언에 의해 쫓겨났다는 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屈原과 楚辭의 영향이 詩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면 그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昨순까지의 추상적인 연구에 의해 蘇齋를 杜甫의 영향하에 두려하거나 唐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再考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계되는 各품의 詩句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謳吟怨慕楚騷疏(卷二, 贈別俊夫)  
 泛得淵明却偶然(卷二, 青菜重陽不堪摘以庭前甘菊移時晚爲韻代菊相解)  
 百年却憶東坡老 高詔奇遊一死生(卷二, 夢泛海誦東坡詩有感覺和其韻)  
 孤魂久離散 誰肯擬招騷(卷二, 寄柳君十韻)  
 塵世紛紛成古今 齊名李杜亦奇男(卷二, 自挽)  
 不用悲騷復楚魂(卷三, 朴贊鶴輸設庚會)  
 書晉處士陶潛卒(卷三, 手寫陶詩數篇仍書其後)

그리고, 流配Ⅰ期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梅에 대한 편애와 사랑이 이 시기에 와서는 菊花로 옮겨가 菊花에 대한 애착, 편애, 同一視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前述한 陶淵明의 삶을 흠모하고 이를 따르려는 작자의 의식과 菊花에 자신을 비유하여 본 때문으로 볼 수 있다. 菊花에 對한 애착, 편애, 同一視 등에 대해 읊은 詩句를 찾아 보던 다음과 같다.

堂上有殘菊 堂下有疎柳(卷二, 隣翁餉酒醉中作)  
 離別寒蟬咽 歸來露菊枯(卷二, 戲贈秀夫別)  
 明朝看叢菊 離折委壙陰(卷三, 曉坐)  
 菊爲供飡愛 鷄唯被縛嫌(卷三, 次韻詠芥亭)  
 我惟菊於癖 其餘靡所愛(卷三, 四季詩戲示人)  
 泉灌三盆菊 塵埋一杖藜(卷三, 移居)  
 楓林爲我赤 菊葉對君黃(卷三, 是夕過李昭酌醉歌時踞自京初歸)

이외에도 菊花에 관한 사랑, 애착, 작자 자신과의 同一視에 대한 心像을 읊은 詩는 매우 많다.

이처럼 詩의 소재가 流配Ⅰ期에서의 梅花에 대한 사랑이 流配Ⅱ期부터는 菊花로 옮겨지게 된 것은, 작자가 流配地에서의 어려운 삶을 꾸려가면서도 자신을 서릿발에도 굽히지 않고 꽃을 피우는 菊花에 비유하여 菊花의 지조와 절의를 흠모함으로써 自身을 그것과 同一視하려는 心像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는 20여 년간의 외롭고도 험난한 귀양살이를 이겨내어, 菊花가 서릿기운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듯, 그는 만년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지내며 화려한 삶을 영위하여 아름다운 結實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 流配Ⅱ期에 나타난 蘇齋詩의 경향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名의 詩語化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地名의 詩語化 현상은 修學期나 流配Ⅰ期 그리고 流配Ⅱ期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流配Ⅱ期는 蘇齋로서는 가장 걸박했던 시기였다. 죽음보다 더한 고독한 삶의 연속이었다. 그것도 20여 년이란 긴 세월을 고독과 싸워야만 했다. 이런 극한적이고 걸박한 상황 때문에 작품에 대한 기교를 생각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적인 기교를 부린 작품이 修學期나 流配Ⅰ期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그의 작품은 감정의 여과없이 直叙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地名을 詩語化한 경우의 詩句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絕鎮三韓外 荒城百濟墟(卷二, 昇平百韻)  
 百濟列烽連日本(卷二, 聞宣化樓韻謾成)  
 檣帆通日本 島嶼接耽羅(卷二, 過海追和唐別駕韻)  
 霜潮滌島郡 風樹傷山祠(卷三, 別弟後泥醉十餘日遠起書懷昏荒不卒章)  
 時有星山舅 來爲鎮海裨(卷三, 別弟後泥醉十餘日遠起書懷昏荒不卒章)



皇山李秀夫 監騎南利馬 華帶沃州妹(卷二, 戲贈秀夫別)  
 青橘漢羅來 白頭珍島囚(卷二, 青橘)  
 俛仰昇平鎮 浮沈漢水濤(卷二, 端午有感追和昇平之韻)  
 秋飲順天酒 春携珍島杯(卷二, 釋奠後校生分餼醉吟二首)

이처럼 地名의 詩語化는 修學期부터 流配 I, II 期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詩句의 變貌라기보다는 持續的인 특색의 하나이다.

둘째, 詩句의 破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詩句의 破格은 詩語의 散文化 경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蘇齋詩의 경우 修學期부터 보여왔던 현상이지만 流配 I 期를 거쳐 流配 II 期에 와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그 몇 가지의 實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天也何常命 民乎不吊渠(卷二, 昇平百韻)  
 命可移之無此理 死爲歸也有其談(卷二, 疊前韻以反之)  
 離父遠遷而爲孰… 俯仰了了於心目(卷二, 祖妣諱日伏念家君未釋衰不祭守慎克慎各在南北亦不敢丐爲賦一篇序其情而已)  
 風耶花耶警予情… 終歲看花理則那(卷二, 風花歎)  
 吾亦欲云云(卷二, 釋奠後校生分餼醉吟二首)  
 而不由外假 · 或來與我也(卷二, 感興)  
 於汝實爲寃(卷二, 蛙)  
 哀哉心則放 必也學而優(卷三, 無悔贈友二百言)  
 豈非其罪而加縲 何有於言不免刑(卷三, 二十夜懷友泣書)  
 於海難爲水 如今信有之(卷三, 香木浦示韓)

이와같이 詩語에서는 잘 쓰지 않는 虛辭나 助詞를 마치 散文을 짓듯이 서슴지 않고 즐겨 쓴 것은 詩句의 破格이라 하겠는데 蘇齋詩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修學期나 流配 I 期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流配 II 期 中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변모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여 년간의 귀양살이에서 죄인이란 구속된 삶에 얽매어 살아온 그가 詩에서만이라도 자유분방한 詩語 구사를 함으로써 억압되어 있던 감성을 다소라도 카타르시스할 수 있었던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蘇齋가 流配되기 이전에도 詩語의 散文化 경향이 있었던 점으로 보면 형식에 얽매임보다 자유분방한 문장 구가력과 꾸밈없이 살아가려는 생활태도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셋째, 修辭法上的 技巧的인 面이 流配 I 期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修辭法上的 技巧面이 修學期나 流配 I 期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修辭的인 技巧를 염두에 두기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귀양지에서 죄인의 몸인 자라 자신의 心像을 표현하면 그만큼 詩的인 技巧에 구애받기가 싫었던 것 같다.

자신이 감옥 아닌 감옥에서의 죄인이 되어 구속감 속에서 갈아가고 있는데 詩마저 修辭的인 形式에 얽매일 필요는 더욱 없었던 역설적인 논리에서 詩語의 散文化 경향이 더욱 짙게 나타난 것 같다. 간혹 重義法과 直喩法이나 연쇄법 등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고독한 귀양살이에서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고독을 이겨내기 위하여 때로는 대화체의 詩를 쓴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實例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師乎汝不聞 不可掩者誠  
 行住坐臥內 耿耿三四更  
 試問汝及子 白頭何所成  
 無起復無感 茲意敢相爭  
 操斤爾學郢 游刀吾慚丁  
 一杯相屬和 實乃人之情  
 閑忙各半夜 語盡吾顏駢(卷二, 次韻岡玉夜飲)

위의 詩는 대화체의 詩이다. 이러한 대화체의 詩的 技巧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蘇齋詩 가운데에는 특이하게 獨白體도 있으니, 實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吾父年丙辰 羸瘁自青春  
 憂居不薑桂 遠望燠脚仁  
 吾母年丁巳 勞心疾未已  
 不得顧私親 萬事懷孔悝  
 外祖母誰依 三歲添者稀  
 有弟學未就 有妹粗得歸(卷一, 醉時率意放筆排悶)

위 詩는 취중에도 키다리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生死를 하늘에 맡긴다는 체념적인 心像을 獨白體로 투영한 五言排律의 일부분이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혼자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붓가는 대로 쓴 詩이다. 이러한 독백체의 詩가 流配Ⅱ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처한 귀양살이의 기구한 운명에서 기인한 인생의 허무와 고독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心像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修學期처럼 詩의 形式이나 詩的인 技巧에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있는 그대로의 心像을 잘 보여주고 있는 寫實的인 描寫를 즐겨 쓰고 있다. 따라서 詩的인 情感이 더욱 심화되어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긴 것 같다. 이 시기의 修辭法上 특이한 것은 比喩法을 연달아 多用한 것이니, 그 實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或猷急若鶩 或搏憂若鶻  
 或若啄母臬 或若唯饒齶  
 或射影若蛾 或螫氣若蠍  
 或若折腹蝮 或若鬪戟姪

或若猓狹噬 或若擗駮齧  
 或若虺瓜攫 或若狨牙狻  
 或淺若受芒 或深若椽椽  
 或細若利黠 或鉅若威鉞(卷三, 頭亥詩八十五韻備述恣狀以自遺)

위의 詩는 直喩法을 多用한 五言排律의 詩中 그 일부를 實例로 보인 것이다. 이 작품은 流配詩中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좌절과 갈등을 頭疼으로 집약시켜 形象化한 詩이다. 벼슬에 나아가 충성을 다한 자신과 자신의 괴팍한 성격을 고해바치는 二豎子와의 대립적인 구조를 지닌 이 詩는 자신의 억울한 流配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이 詩 속에는 극단적인 표현, 소름끼치는 표현조차 서슴지 않고 마구 쓰였는데, 이것은 작자 자신의 심각한 좌절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낸 것 같다. 여하튼 이 시기의 修辭的인 技巧는 修學期나 流配Ⅰ期에 비하면 거의 사라져버린 듯한 변모를 보이고 있다. 죄인의 몸으로 자연에 묻혀 살아가면서 극복하기 힘든 고독감, 좌절과 암담한 시간만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데서 이와같은 詩的인 변모樣相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時間의 詩語化가 나타나고 있다.

蘇齋는 時間에 대한 인식이 철저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는 日字의 정확한 기록을 詩 속에 남기기를 좋아했다. 이러한 현상은 修學期나 流配Ⅰ期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流配Ⅱ期에서는 더욱 두드러진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詩의 첫머리 혹은 끝머리 전부를 時間의 기록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특히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할거나 장인의 忌日 등을 잊지 않고 시로 남기고 있으며, 오랜 流配期間을 하루하루 손꼽아 가면서 몇 년째 流配生活임을 기록해 두고 있다. 이는 赦免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간절했든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詩句의 한머리 전부가 시간의 기록만으로 이루어진 實例를 들어보자.

孟月中旬庚戌秋(卷三, 漁川遊浦)  
 子年卯朔夜三更(卷三, 二月一日夜夢 ···)  
 壬子至月朔(卷三, 移居)  
 癸丑春三月(卷三, 憶弟有感)  
 癸丑四月二十九日(卷三, 廿九日而足悲喜書情)  
 十月十一日(卷三, 南桃途中)  
 甲寅三月晦三更(卷三, 記夢)  
 時當四月尾(卷三, 香木浦示辯)  
 十月仲旬頭(卷三, 夢侍家君顏色華豐既寤泣記)

이외에도 많은 例를 들 수 있다. 이처럼 詩句에 日字가 들어가는 경우와는 달리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題目 아래에다가 日字와 날씨, 창작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간단한 기

특을 겸부한 詩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修學期나 流配Ⅰ期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流配Ⅱ期에서는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流配Ⅱ期の 詩가 그 前期의 詩들에 비해 더욱 日記體詩의 형태로 변모된 樣相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다섯째, 孤·病·淚·羈·魂·浮·殘·醉·悲 등 특징적인 image의 詩語化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왜구를 피해 珍島를 떠나, 木浦, 務安, 咸平, 靈岩, 羅州, 光州, 淳昌 등을 돌아다니던 紀行性格의 詩인 「乙卯避寇錄」 관계 詩 47首(41세, 1555년) 이후의 작품에서는 점차 늙어감에 대한 자각과 한탄, 늙음에 대한 비탄 등에 관한 詩語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가운데 특징적인 詩語는 孤·病·淚·羈·魂·浮·殘·臣·悲·醉·散 등인데, 아마도 自身の 처지를 표현한 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적인 image의 詩語化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詩語들이 나오는 詩題目만 列擧해 보면, 「題智甯軸中寔蓋楓岳舊也」, 「次惠遠韻」, 「題校楹」<sup>113)</sup>, 「十六夜感嘆成詩」, 「寄贈許永川」, 「和朴韻贈李」, 「挽蘇澳二首」<sup>114)</sup>, 「贈康復誠」, 「挽草堂」, 「奉賀林塘贈杖宴」, 「乙亥同甲契會圖」<sup>115)</sup> 등이 있다. 그리고 간혹 자신의 이름이나 字 등을 詩 속에 삼입시킨 점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여섯째, 屈原을 흠모 자위하고 있다.

蘇齋는 자신의 처지가 屈原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屈原을 흠모하였다. 참언에 의해 귀양온 자신의 처지를 屈原에 비유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식적인 心像에서 그의 詩도 屈原의 詩를 닮아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實例를 들어보면,

天縱徽公大 深探孔氏微  
 四書分解盡 一字咸添非  
 文守昌黎軌 騷窺屈宋扉  
 且須勤讀玩 終自得要歸(卷四, 送蘇生)

학문은 韓愈, 詩는 屈原과 宋玉을 법해야 한다는 내용의 五言律詩인데, 이로 보면 蘇齋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屈原과 宋玉을 흠모 자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屈原에 대한 흠모의 정을 그린 내용이 여러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屈原의 처지와 비슷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던거 자신도 屈原을 닮아가고 있음을 기인하고 있는 詩句 등을 보면, 蘇齋詩는 屈原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 4·2·3. 再宦路期の 詩

再宦路期란 그의 나이 54세부터 귀양기에서 풀려나와 官職에 再登用된 후부터 官職을 그만 둘 때까지이다. 그러나 그는 官職에서 물러났으나 기력이 쇠진하여 쓴 작품도 거

113) 以上 3首는 蘇齋先生文集 卷四에 收錄되어 있음.

114) 以上 4首는 蘇齋先生文集 卷五에 收錄되어 있음.

115) 以上 4首는 蘇齋先生文集 卷六에 收錄되어 있음.

의 없었고, 또한 오래지 않아 棄世하였으니, 여기서 再宦路期는 권의상 54세부터 棄世하기까지 전부를 의미한다.

물론 69세 때 官職을 그만 두고 落鄉했지만 「蘇齋先生文集」 六卷 속의 작품은 창작 시기가 매우 불분명하고 뒤섞여 있어서 낙향 이후의 작품을 골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六卷 十一張 이후의 작품 속에는 70세 이후 곧 落鄉 뒤에 쓴 작품이 몇 편 보이긴 한다.

이 시기의 작품은 實用性이 강한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두드러진 특징이며 작품 분량은 生存期間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再宦路期の 詩에 있어서 詩的인 변모는 修學期나 流配期の 詩처럼 技巧的인 면모를 발견할 수도 없고, 地名의 詩語化나 流配期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詩句의 破格이나 특징적인 image의 詩語化, 예컨대, 孤·病·淚·魂·浮·殘·悲, 자신의 궁색함, 파리함, 수척함 등의 표현이 詩語 속에서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데에 있다. 이는 작자 자신의 처지와 환경의 변모가 詩的인 變貌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實用的인 詩를 즐겨 쓰다 보니 時間의 詩語化도 다소 줄어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詩의 특징은 죽음을 애도하는 挽詞가 많고, 잔치에 참석하거나 契모임 등과 같이 實用的인 면과 관련된 작품이 매우 많아서 修學期나 流配期の 詩에 비해 큰 變貌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된다.

「館伴錄」 14首(58세 作)와 「齊陵奉審錄」 14首(64세 作), 「孝陵修改錄」 54首(64?~66세 作), 「侍藥廳」<sup>116)</sup> 관계 19首(66세 作) 등은 官職에서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작품이거나, 地方長官 부임을 전송하거나, 使臣으로 가는 등로를 전송하는 등과 관련된 작품이거나, 下賜物에 대한 감사, 임금의 命을 받고 지은 작품 등으로 實用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詩的인 變貌를 가져왔다. 또한 僧과 交流한 내용의 작품도 가끔 보인다.

그러면 이 시기에 나타난 詩的인 특색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挽詞와 죽음을 哀悼한 詩가 主流를 이룬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각 작품을 例擧해 보면, 「韓舍人挽詞二章」, 「閔議政挽詞」, 「驪州大愁里訪李參判懷其亡伯」, 「聞一齋捐館」, 「一齋先生挽詞十韻」<sup>117)</sup> 등이 있고, 「挽退溪」, 「挽南冥」, 「挽金大諫」, 「挽李政丞」, 「挽政丞母夫人挽」, 「挽草堂」, 「挽柳應瑞」, 「李令挽」, 「柳監司挽」, 「金彥健挽」, 「崔奉事挽」, 「挽林塘」, 「生員趙元誠挽」, 「挽洪三宰詞」<sup>118)</sup> 등이 있는데, 특히 退溪와 南冥 등의 挽詞도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둘째, 宴會나 契 등의 모임을 素材로 한 詩가 많다. 그 가운데서 몇 편만 例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耄經加五老 稀滿去三兒

夜久鐘鳴盡 人情有不悲(卷六, 大夫人壽宴)

116) 以上은 蘇齋先生文集 卷六에 수록되어 있음.

117) 이상 5首는 蘇齋先生文集 卷五에 수록되어 있음.

118) 이상 14首는 蘇齋先生文集 卷六에 수록되어 있음.

이는 福數頌祝의 詩로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밤늦도록 풍악을 울리며 즐겁게 해드리니 人情이 더욱 좋다는 내용으로, 壽宴에 붙여 지은 詩이다.

壽到稀年且達官 九人而已亦才難  
金章鳩杖聯翩來 八溪敏宇華筵開  
小至霜風振馳駱 今者不樂餘幾日  
我如老牛鞭不動 未罷歡娛更蕭瑟(卷六, 耆老宴作)

이 詩는 宴會를 素材로 하여 白髮을 嗟嘆한 내용의 詩이다. 七十세의 達官은 9명일 뿐 별로 없는데, 華筵이 열렸으니 이런 날 즐기지 않으면 어찌 하리오. 이제 남은 시간 많지 않네라 하면서 늙음을 탄식하며 읊은 詩이다.

快士須盛白玉堂 清遊暫屬翠微岡  
舊炎經雨高雲滄 晚樹含風近嶽涼  
三老先生情亦古 一迷歸客感偏長  
相看才免飛蚊誚 肯醉佳人錦瑟傍(卷三, 三清洞玉堂同僚一會)

위 詩도 역시 宴會를 素材로 하여 지은 詩이다. 멋진 선비 玉堂에 가득하니 즐겁게 놀며 술을 권하네, 오랜 더위에 비 내리니 높은 구름이 맑아지고, 오래된 나무는 바람을 품고, 가까운 산 서늘하네. 三老先生 情이 오래 되었으니, 돌아갈 길 혼미해진 나그네의 감회를 어른에게 치우치네. 재주 먼하는 것을 보며 모기를 설치는 것 꾸짖으니, 아름다운 사람 비와 연주하는 걸이라 술맛 더욱 즐길만 하네라고 하면서 飲酒醉樂의 풍류적인 心像이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再宦路期의 詩는 宴會나 契모임 등에 관한 實用的인 詩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셋째, 官職에 관련된 詩가 많이 보인다.

在職時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작품이 많다. 여기서 대표적인 작품의 題目만 例示해 보면,

「侍藥廳」, 「紀事十二韻」, 「冬至祝言」, 「女醫言內候似少解」, 「直宿祝言」, 「上殿哭之慟」, 「上命削勳」<sup>119)</sup> 등이 있고, 「孝陵端午祭」, 「奉審孝陵呈權南曹」, 「赴孝陵途中二絕」, 「受香向靖陵有感」<sup>120)</sup> 등 많은 작품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官職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작품으로서 地方長官의 부임을 전송하거나 使臣으로 가는 동료를 전송하는 작품과 下賜物에 대해 감사하거나 임금의 命을 받고 지은 應製詩도 많으니, 實例를 들어보면,

「贈希正」, 「靑川贈牧使李公」<sup>121)</sup>이 있고, 「送朴希正燕二首」, 「送人赴京」, 「送趙書狀赴燕」, 「送朴叔正赴載寧」, 「送柳書狀根」, 「贈金僉知赴京」, 「贈別宋監司赴嶺南」, 「射以觀

119) 이상 7首는 蘇齋先生文集 卷五에 수록되어 있음.

120) 이상 4首는 蘇齋先生文集 卷六에 수록되어 있음.

121) 이상 2首는 蘇齋先生文集 卷五에 수록되어 있음.

德應製」, 「恭和御製詩二首」<sup>122)</sup> 등 많은 작품을 들 수 있다.

빛재, 佛敎的인 성격이 詩 속에 나타나고 있다.

再宦路期 이후부터의 蘇齋詩는 佛敎的인 성격이 나타나 詩的인 變貌를 보여 주고 있다. 그는 僧侶와의 交流가 빈번하였고, 따라서 그의 詩 속에도 佛敎와 관련된 작품을 많이 남기고 있다. 實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老年牛蟻故相喧 不用區區苦閉門  
我欲南時渠欲北 人心元自有明昏(卷六, 贈僧絕句)

이 詩는 僧에게 준 七言絕句의 詩로 寄托諷喻의 내용을 담고 있다. 老年에 세상 시끄러워졌다고 하여 급하게 문을 닫을 필요는 없네. 내가 남쪽에 있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은 북쪽에 있고자 하니 사람의 마음에는 원래 스스로 밝음과 어둠이 있는 것이 비라고 하였다. 僧侶와의 交流의 一面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또한 다음 詩에서 보면,

神勒前朝寺 高僧普濟居  
桐雲暮帆落 水月夜窓虛  
名利身猶縛 山林迹若踈  
孤懷感泡沫 萬事付燒書(卷五, 神勒寺覺長老軸中次韻)

이는 神勒寺를 배경으로 하여 덧없는 인생을 이야기한 五言絕句의 漢詩로 人生無常을 主題로 하고 있다. 또한 다음 詩에서 보면,

爾是圓沙彌 師爲俊上人  
由來依倚分 直取性情眞  
桐雨二陵夜 笑談孤寺晨  
秋風動鄉國 良觀更無因(卷六, 贈圓沙彌)

이는 離別哀傷을 主題로 한 五言律詩이다. 너는 圓沙彌요, 네 스승은 훌륭한 스님이니 이렇게 나뉘어 곧 性情의 진리를 얻었구나! 안개비 두 陵에 내리는 밤 즐거운 이야기 절의 개벽부터 나누었는데, 가을에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으니 다시 만날 날 있을지 모르겠네라던거 離別에 대한 슬픔을 읊고 있다.

이상의 몇 가기의 實例에서 보아도 蘇齋가 佛敎와의 交流에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佛敎와의 交流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 많이 있으니, 그들 각품의 題目을 列擧해 보면 다음과 같다.

「奉思寺次韻住持信默」, 「贈知眞」<sup>123)</sup>, 「贈僧」, 「次贈上人」, 「贈僧三首」, 「贈珠上人」, 「贈僧題日出庵」, 「過正回寺有感」, 「贈僧惠喜」, 「贈僧祖炎用舊韻」<sup>124)</sup> 등이 있는데, 이들의 詩題만 보아도 蘇齋와 佛家와의 교류는 상당히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122) 이상 9首는 蘇齋先生文集 卷六에 수록되어 있음.

123) 이상 2首는 蘇齋先生文集 卷五에 수록되어 있음.

124) 이상 10首는 蘇齋先生文集 卷六에 수록되어 있음.

다섯째, 三唐詩人과 交流가 많았다.

蘇齋가 三唐詩人인 李達, 崔慶昌, 白光勳과의 交流가 많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詩들이 많이 보인다. 實例를 들어보던 다음과 같다.

瘡痍三秋忍 風塵一月開  
 賢人酒冷冽 正字意胚胎  
 破戒緣生興 卽言爲死灰  
 摧頽老癯漢 非子復誰哀(卷四, 崔正字慶昌携酒相看)

蘇齋가 崔慶昌과 술잔을 잡고 서로 권하면서 身邊의 탄식을 노래한 五言律詩이다. 그가 崔慶昌과의 交流가 많았음을 이 詩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正字誦靜詩次韻贈之」<sup>125)</sup>에서도 正字가 崔慶昌이니, 蘇齋와 崔慶昌과의 상호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贈安慶昌」<sup>126)</sup>에서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仰面貪看鳥 回頭錯應人  
 昔賢難免俗 衰意肯來新  
 戀闕復戀土 送君兼送春  
 淚傾言亦盡 還是妄耶眞(卷六, 贈安慶昌)

이 詩는 離別의 슬픔을 읊은 五言律詩이다. 고개를 들어보는 것은 새를 탐하는 것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남에게 잘못 대하는 것이네. 옛 聖人도 俗을 면하기 어려웠고, 쇠잔해지는 것은 새로운 것을 예고하네. 임금 그리워하고 또한 선비 그리워하며 그대를 보내는데 봄도 함께 가버리네. 눈물 흘리고 말 없으니 도리어 이것은 진실을 그릇치게 하는구나! 라고 하여 작자의 간곡한 이별의 슬픔이 드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蘇齋와 白光勳과의 交流를 알 수 있는 詩도 매우 많다. 그 가운데서도 「戲贈白光勳」을 例示해 보자.

莫弄無功筆 須傾有限盃  
 男兒百年內 幾箇守靈臺(卷六, 戲贈白光勳)

이 詩는 寄託諷喻를 담은 五言絶句의 작품으로, 蘇齋와 白光勳과의 交流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詩이다. 문장 재주 없다고 조롱하지 말라. 술잔 들어 마시는 것도 有限하다. 男兒로서 百年內에 마음을 지킨 사람 몇이나 되나! 라고 읊고 있다. 이외도 蘇齋와 白光勳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詩로는 「白生光勳至夜飲」, 「大醉戲贈白生」, 「來日將別白生生請一語乃醉書與之」, 「別白文二生」<sup>127)</sup> 등이 있다.

그리고 蘇齋와 李達과의 交流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는 64세 이후에 창작되었다고 생

125) 蘇齋先生文集 卷四.

126) 蘇齋先生文集 卷六.

127) 이상의 4首는 蘇齋先生文集 卷4에 수록되어 있음.



각되는 「興原舟中贈李達」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보면,

遠岫轉佳氣 長灣收日華  
親朋眼中一 芳草席邊多  
文會詩無敵 清談酒不賒  
如何憂患仕 終日在風波(卷六, 興原舟中贈李達)

라고 읊고 있다. 이 詩는 追慕讚頌을 노래한 五言律詩이다. 먼 데 산에서 佳氣가 내려와 물가에 비치는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인 李達은 詩로거는 으뜸이지만 庶人이어서 벼슬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읊고 있다. 그러니, 당대의 대문장인 菴谷 李達이었지만 庶出이라는 기구한 운명 때문에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蘇齋가 안타깝게 생각하여 읊은 詩이다. 더구나 이 詩는 작가가 64세 이후에 지은 詩이니 右議政을 지내고 左議政을 맡고 있을 때의 作으로 짐작되는데, 중요한 관직에 있으면서도 庶人과의 交流나 또는 그가 官界에 나갈 수 없었던 것을 애석히 여겼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당대의 문장가 李達의 기구한 운명을 애석히 여긴 作者의 心像을 엿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蘇齋의 晩年詩風은 三唐詩人과의 交流 등으로 보아 唐詩風 쪽으로 기울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5. 結 論

이상 本論에서 考究한 것을 결론적으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蘇齋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은 국문학, 한문학, 한국사 등 國學에 관한 서적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生涯와 文學的인 배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의 文集과 附錄 1冊, 宗家秘藏遺稿 7冊 등을 참고하여 그의 生涯를 간추려 보았고, 아울러 그의 문학적인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그의 生涯를 修學期, 宦路期, 流配期, 再宦路期로 四分하였는데, 流配期는 다시 流配Ⅰ期와 Ⅱ期로 兩分하여 文學的인 배경을 論述하였다.

둘째, 蘇齋의 文學世界를 고찰하기 위해 그의 文集 10卷과 附錄 1冊, 宗家秘藏遺稿 7冊에 대한 概說的인 논의로서 그의 文學世界를 고찰하였다.

셋째, 蘇齋詩 1302題 1587首에 대한 形式別 및 主題別 分類를 試圖하여 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圖表로서 제시하였다.

넷째, 蘇齋詩의 變貌와 展開樣相을 考究하기 위해 4期로 나눈 生涯에 따라 논의하되, 宦路期의 詩로 보여지는 것은 발견되지 않아서 除外하고, 流配期를 Ⅰ期와 Ⅱ期로 兩分하여 各時期마다 특징을 찾아냄으로써 蘇齋詩의 變貌와 展開樣相을 實例를 들어가면서 고찰하였다.

다섯째, 蘇齋詩의 變貌를 다시 간추려보면, 修學期 詩의 특징은 地名의 詩語化, 詩句의 破格, 比喻, 重義, 積疊, 반복, 연쇄 등의 修辭的 技巧과 참신성, 塵, 濯, 仙 image

의 詩語化樣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流配Ⅰ期詩에서는 地名의 詩語化, 詩句의 破格, 重義, 반복, 接應, 연쇄, 상징, 직유 등의 修辭的 技巧과 감신성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修學期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과 리함, 수척함, 궁색함 등의 image가 詩語化되고, 時間의 詩語化가 나타나는 점들이 修學期와는 다소 다르다.

流配Ⅱ期詩에서는 地名의 詩語化, 詩句의 破格 등은 前代와 유사하지만 修辭的인 技 巧에서 떨어진 점은 前代와는 다소 다르다. 그리고 時間의 詩語化는 修學期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流配Ⅰ期과 Ⅱ期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시기 는 귀양살이의 연속이었으므로, 孤, 病, 淚, 浮, 悲, 殘, 醉 등의 특징적인 image의 詩 語化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시기의 詩는 屈原을 흉모 자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再宦路期의 詩는 挽詞와 죽음을 哀悼하는 詩와, 契 宴會 등의 모임을 素材로 한 詩, 官職修行과 관련된 詩 등의 實用的인 내용의 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 II. 政 治

### 1. 序 論

朝鮮王朝 중기에 文豪요 政治家요 巨儒로 君臨하던 蘇齋 盧守慎을 綜合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 本稿를 계획하는 所以다. 이 主題는 「蘇齋 노수신 연구」를 三部로 나누어 一部를 金光淳 교수가 소재의 文學을 연구하고 一部를 崔承顥 교수가 소재의 儒敎 思想을 다루고 내가 소재의 生涯와 政治를 다루기로 한 三部作 蘇齋研究의 一部가 된다.

이와 같이 소재 分擔연구의 一環으로서 소재를 연구함에 소재의 生涯와 政治를 중심으로 소재의 人間像을 包括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소재의 家系를 검토하고 蘇齋學의 位相을 고구하기 위하여 그의 學統과 道統淵源을 追究해 보고자 하며 소재의 學이 當世 程朱學 일변도의 성리학과는 다른 陽明學과 禪學을 연구한 참신한 儒學者요 『夙興夜寐 箴解』란 名著를 저술한 進步的 儒學者란 點에 着目하여 소재의 儒學을 살펴 보고자 한다.

文學宰相이던 소재는 當代에 蔚勃하던 唐詩운동에 旗手였던 點을 주목하고 東國杜詩 學派의 最高峰으로 不滅의 足跡을 남긴 소재의 文學을 照明코자 한다.

소재가 살다간 시기는 조선왕조의 제반 모순이 노경되기 시작하는 시기요 번영과 난 속의 절정에서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던 시기에 士禍와 黨爭의 渦中에서 浮沈하던 소재를 乙巳士禍와 東西黨 分黨의 黨爭 전개과정에 있어서 소재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 보고자한다. 유학자로서 忠孝에 一以貫之한 소재의 생애에 있어서 특히 뛰어난 孝子 像을 浮刻시켜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多角的인 접근이 노수신의 實像을 다각하는데 효과적인 연구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의 經綸과 思想을 深度있게 窺察함으로써 소재 연구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儒學 사상과 그의 독특한 학설을 깊이 다루지 못한 것은 未盡한 연구의 一面이라, 그 점에서 유감으로 생각하나, 본고에서는 개관적 포괄적인 소재상을 경립해 불려고 시도하고자 한다.

### 2. 家 系

선생의 이름은 守慎이요 字는 寡悔, 號는 蘇齋·伊齋·暗室·茹芝老人이다. 姓은 盧氏요 貫鄉은 光州다. 그의 가계를 보면 7대조 嵩은 자는 中甫, 호는 桑村이다. 처음 이름은 崇이었다. 공양왕 14년 文科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고려조에 벼슬하고 조선력명에 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벼슬이 三司左使 知議政府事 議政府參贊을 거쳐 태종조에 檢校右議政에 이르렀다. 향년 78歲, 諡는 敬平이다. 夫人은 尚州郡夫人 金氏이니 贊化

功臣 重大匡 洛城君 金先政의 딸이다.

嵩의 아들 尚仁은 中訓大夫 知揚根郡事다. 尚仁이 化寧縣 사람 禮曹判書 高諫의 딸에 장가들어 이 인연으로 尚州化寧에 거주하게 되었다. 尚仁의 손자 德基는 자는 恭之니 判中樞府事 坡平府院君 尹璠의 딸에 장가들었으니 世祖妃 貞憲王后 尹妃의 弟夫요 世祖와는 동거간이었다. 槐山郡守 中直大夫 禮賓寺副正이 되고 工曹叅議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熙善는 陝川郡守이니 소재의 高祖다. 會禮 敬長은 敦寧府叅奉이었다. 祖翬는 銀溪察訪 豐儲倉守 杆城郡守 僉正에 이르렀다. 祖母는 完山李氏夫人이었다. 夫人의 고조는 益安大君 李芳毅요 증조는 益平府院君 李石根이요 祖는 白波都正 李常이요 아버지는 玉溪都正 李賢童이었다. 夫人은 당대에 빛난 宗室王族이었다. 王孫인 祖母 李氏夫人은 소재 家門에 커다란 영광이었다.

소재의 아버지는 鴻이다. 鄉試에 합격후 風塵세상을 싫어하고 出世에 뜻을 버리고 세상에 숨어 살았다. 公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항상 고생했다. 宣祖조에 늦게 자식 덕에 活人署別提의 벼슬을 살았다. 소재의 어머 星山 李氏夫人은 李長庚의 후예로 大司憲 李自華의 딸이다. 당대의 巨儒 一齋 李恒과는 중반간이었다. 星山李氏는 고려말에 등장한 三韓甲族으로 李兆年 형제들과 李承慶, 李崇仁, 李仁復, 李仁任, 李稷을 배출한, 혜성처럼 등장한 名門이었다. 이와 같은 簪纓世家에서 閨範과 婦德을 익힌 현부인으로 아들의 훈도에 위대한 감화를 주었다. 夫人은 효성이 지극하여 시부모 공경이며 집안살림에 훌륭한 婦德이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으니 맏이가 守愼이요 둘째가 克愼이다. 克愼은 蔭仕로 金浦縣令이 되고 敦寧府僉正이 되었다.<sup>1)</sup>

소재는 이와 같은 가문의 배경 속에서 1515년(중종 10) 乙亥 윤 4월 16일 未時에 漢城 南部 樂善坊에 있던 私第에서 탄생했다.<sup>2)</sup> 그는 眉目秀麗하고 俊秀했다. 성장함에 天才 絶人하여 범상한 아이들과는 다른 데가 있었다. 6살 때에 어떤 사람이 붓을 선물함에 선생은 시를 지어 답하니

此筆出於君 爲君能成文  
未知何以報 他日登青雲

이 붓이 그대로부터 나왔거니  
그대 때문에 글은 잘 이루리  
어떻게 보답할지 알지 못하나  
뒷날 크게 출세할 걸세

라고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3살 때 친구 2, 3인으로 더불어 東湖에 나가 놀 때

1) 許穆 撰, 「盧守愼神道碑銘并序」.  
李埰 撰, 「蘇齋先生行狀」.  
『光州盧氏 族譜』.  
2) 康復 誠輯, 「蘇齋先生年譜」.

湖堂學士들이 기생을 보내어 불렀다. 이에 선생은 붓을 잡고 글을 주어 사양했다.

誰遣紅裙訪我呼 我曹非是取歡娛  
扁舟短棹歸來晚 勝水佳山世外圖

누가 예쁜 기생을 보내어 나를 부르나  
우리는 즐겁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포각배에 짧은 사대길로  
돌아가기 늦은 것은  
아름다운 산수가 선경이라서라네

여기 소재의 숙성한 어른스럽고 俊秀한 面을 보게 된다. 1531년(중종 26) 17살되던 해에 灑貳 李延慶의 딸 廣州 李氏夫人과 혼인했다. 이 결혼은 선생의 일생에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소재는 當世의 名儒인 장인 탄수의 문하에서 학문을 受學하게 되었고 蕪陶를 받아 不世出의 天才는 학문을 大成하게 되었다.

1534년(중종 29)에 司馬試를 보아 단번에 生員·進士의 兩試에 합격했다. 이 때 소재의 학문은 놀라운 만치 진보했다. 生員 진사가 된 소재는 중앙 국립大學인 成均館에 입학했다. 이 때 그는 밤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대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소재는 1540년(중종 35) 4월에 金剛山을 유람했다. 대학에 있으면서 蓬萊山에 탐승한 것은 국토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고 조국애와 浩然之氣를 넓힐 수 있었다. 이듬해 太學에서 공부할 때 知成均館事 慕齋 全安國선생이 학생들에게 時習箴이란 제목으로 作文케 하여 대학생들을 시험했다. 大學生들이 지은 글을 받아 보고 그를 만난 人材가 없음을 탄식했다. 끝에 소재의 글을 보고는 앞의 말을 크게 후회하고 그의 글을 보고는 「이 어찌 詞章하는 선비들이 능히 미칠까 보냐!」고 찬탄하기를 마지 않았고 이 사람이 장차 當世에 큰 선비가 될 것이라 했다. 이 時習箴은 宣祖 초년에 經筵官 草堂 許曄이 註解를 해서 국왕께 올린 것으로 유명했다.

1541년(중종 26)에 巨儒 晦齋 李彥迪 先生이 서울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書面으로 執贄의 禮를 올려 가르침을 받고자 청했다. 소재가 存心之要를 물으매 晦齋가 손을 보이면서 「여기에 물건이 있으니 꼭 쥐면 깨어지고 쥐지 않으면 없어지느니라」고 말함에 잇기도 말고 너무 서둘지도 말라」는 뜻임을 알아 듣고 더욱 공부에 힘썼다.

#### 〈文科及第〉

학문이 完熟之境에 접어든 소재는 成均館(大學)에서 공부를 마치고 1543년(중종 38) 29살 나이로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소재는 初試·會試·殿試에 三場 壯元하여 그의 名聲 一世를 聳動했다. 이에 天才 소재의 학문의 깊이와 재능이 閃光처럼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 때 그가 지은 有車賦와 君子不相遇策과 請置五經博士表는 當代의 名文으로 세상에

널리 膾炙되었다. 이를 보아도 그가 얼마나 卓絶한 天才였던가를 알 만하다. 이 때 합격자 33명을 선발했으나 甲科 3人을 殿試로 選定함에 壯元에 進士 盧守愼, 榜眼에 車軾 探花에 尹春季이었다. 그리고 乙科에 7人, 丙科에 23人이었다. 소제는 영광스런 壯元급 제하여 御賜花를 꽃고 遊街 3日 하는 光榮을 누렸으니 이 보다 더한 영예와 孝道가 더 없었다.<sup>3)</sup>

### 3. 仕 宦

소제는 文科 급제 2달 뒤인 中宗 38년 11월 壯元으로 인하여 일약 從 6품 弘文館副修撰에 임명되었다. 이로부터 소제의 벼슬길의 출발이 시작되었다. 이듬해엔 世子侍講院 右司書(正六品)에 전임되었다. 소제는 世子(仁宗)에 侍講함에 書傳과 資治通鑑綱目を 강의했다. 그리고 史記와 近思錄을 侍講했다. 소제는 名講이었다. 205日間 世子の 侍講을 맡음에 장차 君王으로서 갖추어 교양을 지성껏 강의하여 깊은 감명을 주었다.

1544년(중종 23) 8월에 兵曹佐郎에 除授되고 9월에는 弘文館修撰이 되어선 湖堂에 선발되어 讀書堂에서 賜暇讀書했다. 湖堂에 뽑히는 영광은 학자 최고의 영예의 하나였다. 장래 국가의 棟樑之材를 선발하여 학문이 영글게 특전을 내려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독서에 하여 학문을 연찬케 한 것이다. 이 때 호당의 선발은 兩館大提學 成世昌에 의하여 선발되었다. 이 때 뽑힌 사람은 羅世纘, 李滉, 鄭惟吉, 李洪男, 柳希春, 閔箕, 金澍, 閔起文, 朴承任, 金麟厚, 李湛, 尹希聖, 李元祿, 盧守愼, 尹春年, 尹潔이었다.<sup>4)</sup>

이들 人材 중에 훗날 文衡이 鄭惟吉, 李滉, 盧守愼 3人이며 政丞에 鄭惟吉(左相), 閔箕(右相), 盧守愼(領相) 3人이며 陞熙가 李滉, 金麟厚 2人이요 大司憲에 羅世纘, 大司諫에 朴承任, 吏曹判書에 尹春年이 되었으니 綺羅星과 같은 人材에 可謂 棟樑之材의 盛觀이었다. 이 때 같이 玉堂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함께 湖堂에서 工夫하던 退溪 李滉과 眉岩 柳希春, 河西 金麟厚와는 平生을 金蘭之契의 우정을 나누고 학문을 서로 師友했다.

1544년 중종이 붕어하시고 仁宗이 즉위했다. 玉堂에 있던 소제의 전도에 서광이 비칠 것으로 기대했다. 인종은 東宮시절 소제에게 학문을 배운 인연이 있어 좋아하는 사이였고 인종은 소제의 人品과 학식과 재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제는 이듬해 司諫院 正言으로 옮겼다. 이 때 소제는 權臣 李芑를 論駁했다. 미구에 소제는 吏曹佐郎으로 전직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仁宗이 崩御하시고 明宗이 즉위함에 정세는 급변하여 소제의 운명도 急轉直下했다.

특세하여 정권을 장악한 尹元衡, 李芑 일파에 의하여 直提學 李若海, 舍人 丁熿과 함께 吏曹佐郎 노수선은 物議가 있어 清職에 들 수 없으니 逆職하라는 兩司의 啓를 받아 罷職되고 1547년(명종 2) 2월에 順天으로 流配되었다. 다시 9월에 珍島에 移配되었다.<sup>5)</sup>

3) 『國朝科榜錄』·『中宗大王實錄』第 101, 中宗 38年 癸卯 九月 壬子.

4) 『典故大方』卷 2, 文衡錄.

5) 『明宗大王實錄』卷 2, 即位年 乙巳 九月.

이후 19년간의 긴 유배생활 끝에 명종이 승하하시고 宣祖가 즉위하자 1567년(선조원년) 10월에 大臣 李浚慶 등의 노력에 의하여 放免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 불리어 즉일로 弘文館校理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엔 고향에 내려가 親病을 간호하고 奉養하던 소재를 불러 올려 특별히 弘文館直提學兼藝文館應敎에 임명했다. 이 때 王命을 받아 右贊成으로 李滉을 부르는 敎書를 지은 것은 유명하다. 두달후 소재는 귀향하여 아버이를 봉양키 위하여 사직을 간청했다. 거듭 간청하는 上疏를 받고 선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소재에 명하여 내려가서 아버이를 모시고 올라오라고 명했다. 이만치 선조는 소재의 재능과 賢을 아꼈고 놓아주지 않았다.

선조는 潛邸시에 韓胤明에 글을 배웠다. 당시 師傅 한윤명은 經義를 강론할 때마다 항상 노수신의 말을 하였다. 그래서 선조가 노수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으니 한윤명이 대답하기를 當世의 大儒이온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섬으로 귀양갔읍니다고 했다. 이리하여 선조는 소재를 마음 속으로 존경한지 오래였다.<sup>6)</sup> 韓胤明은 退溪의 門人으로 字는 士炯, 號는 炯庵으로 當代의 大儒로 칭송받았다.

선조는 후일 소재의 乞養上疏에 답하길 『夙興夜寐箴解』를 전일 師傅 한윤명에 배울 때 윤명이 이것을 파인에 가르치며 말하기를 이것은 暗室 노수신의 註解입니다고 말하여 파인이 공경히 배우고 비로소 卿의 學問이 뛰어남을 알았노라고 했다.

이런 인연으로 君臣간의 際遇가 자별하여 선조가 즉위하자 마자 校理로 소환한 후 破格的인 優遇를 받아 그의 승진은 가위 비약이라 할 만했다. 이후 7년만에 정승으로까지 오르게 되었다. 노수신 만큼 국왕의 각별한 사랑과 우대를 받은 신하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선조 2년 6월 奉親 上京하란 어명 휴가를 받아 고향에 갔던 소재가 돌아오에 일약 弘文館副提學에 임명하고 7월엔 司諫院 大司諫에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사직을 상소했으나 허락치 않고 휴가를 주어 내려갔다 오게 했다. 9월에 또 다시 글을 올려 사직을 간청했다. 이 때 소재의 글은 매우 간곡했다. 그래서 선조는 영의정 李浚慶에 물었다. 이준경은 말하길 殿下의 經樞講論은 정말 소중한 것이오나 노수신의 老親을 奉養코자 하는 사정과 정성은 親病이 참으로 위중하니 사정을 봐주지 않을 수 없겠다고 함에 선조는 가까운 고을에 보내어 보살피 드리도록 하는 배려에서 淸州牧使를 제수했다. 10월에 上京하여 국왕께 謝恩함에 선조는 忠淸道觀察에 임명했다. 이 때 소재는 선조에 유명한 『夙興夜寐箴解』를 올렸다.

선조는 批答에서 「箴解는 모두 格言이라 敢히 마음에 새겨 力行할 것이니라. 내가 前日 한윤명께서 이 箴을 배웠는데 註解를 주면서 말하길 이것은 暗室 노수신이 解한 것이라 하기에 이로부터 卿의 學問을 알았더니 이제 多幸이 다시 보게 되니 마땅히 이것으로써 내가 힘쓰리라」하고 校書館에 命하여 刊行케 했다.

6) 『燃藜室記述』 第18卷, 宣祖朝記事本末 宣祖朝相臣 盧守慎.

11월에 소재는 부친喪을 당하여 고향에 돌아갔다. 선조 4년 正月에 57세때 畏友 退溪 李滉先生이 별세함에 통곡했다. 그는 祭文과 挽詞를 지어 슬퍼했다. 이 때 소재는 大司諫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소재는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2월에 다시 국왕께 불러어 올라가서 謝恩하고 물러나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선조는 司憲府 大司憲을 제수했다. 이에 소재는 여러번 사직서를 올렸으나 국왕은 들어주지 않았다. 소재는 모친의 병으로 인하여 고향에 내려갔다. 선조는 소재를 여간 아끼기 않았다. 「그대가 나의 곁에 하루도 없어서 안되오.」라고 하고는 지금 내려가면 어미를 뵈우고 모셔 올라와 忠과 孝를 함께 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선조는 王命으로 各道에 명령을 내려 較軍으로 모셔오도록 명했다. 4월엔 어미를 모시고 漢城에 올라왔다.

5월엔 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고 6월에 戶曹參判으로 옮겼다가 다시 副提學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여러 번 사직을 원했으나 8월엔 藝文館提學을 겸하게 되었다. 선조 5년 承旨가 되고 6년에 同知中樞府事 二月에 吏曹參判兼同知成均館事에 임명되었다. 곧 大司憲에 옮기고 다시 吏曹參判에 임명되었다.

7월엔 正卿인 吏曹判書에 승차했다. 그리고 明나라 使臣의 遠接使로 발탁되었다. 소재는 이를 굳이 사양함에 선조는 館伴으로 교체해 주었다. 다시 이를 사양함에 허락치 않고 영광스런 관직의 별인 弘文館大提學兼藝文館大提學을 除授했다. 學者의 관직으로 최고의 영예였다. 그러나 소재는 이를 다섯번이나 굳이 사양했다. 이에 선조는 文衡을 典함은 그대가 아니면 그 누가 되겠는가 하고 하며 말겼다.

11월에 明나라 使臣이 도착하여 8일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 때 소재는 館伴으로 접대할 때 詩를 唱和함에 明使臣은 소재의 天才的인 詩才에 탄복했다. 그들이 주고 받은 詩文을 모은 皇華集의 序文을 선조의 어명을 받고 소재가 지었다.

1573년(선조 7) 2월에 吏曹判書를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선조는 이를 허락치 않았다. 얼마 후에 領相 洪瀾이 병으로 사임함에 右相 朴淳에 卜相케 함에 朴淳은 李鐸, 노수신을 천거했다. 왕은 소재에 落點하여, 正一品인 大臣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에 大拜되었다. 右相 朴淳은 左相이 되었다.

소재는 상소하여 이를 굳이 사직하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선조는 소재에게 大任을 맡겼다. 소재는 겸직하고 있던 兩館大提學을 바꿔주기를 청했다. 그래서 이를 면하게 되었다. 이 해에 巨儒 南冥 曹植의 별세 소식을 듣고 소재는 통곡하면서 挽詞를 지었다. 영남의 左右道에서 빛나던 退溪와 南冥의 두 巨星은 同庚의 儒宗이었으나 한 해를 사이에 두고 퇴계가 먼저 他界하고 한 해 뒤에 남명이 별세한 것이다. 4월 18일에 經筵에 侍講했다. 6월에는 왕명을 받아 3정승과 六曹의 正卿과 의논하여 學行이 뛰어난 숨은 人材를 추천했다. 이 때 추천된 人士는 退溪 門人의 趙穆, 花潭 門人의 李之菡, 一齋 門人의 金千鎰, 南冥 門人의 崔永慶이 遺逸로 추천되어 6品職에 제수되었다. 7월에 또 사임을 간청했으나 허락치 않고 8월에 經筵에 入侍했다. 12월에는 遺逸 賢良으로 柳夢鶴, 奇大鼎,



洪可臣, 柳夢井 등을 권거하여 일약 6品職에 특채케 했다. 소개는 身病으로 사임을 간청하니 內醫를 파견하여 치료케 했다. 그리고 계속 經筵에 入侍케 했다. 이듬해도 선조는 소개의 사임 상소를 허락치 않고 經筵에 入侍케 했다.

宣祖 11년 소재 63세에 名儒 眉巖 柳希春과 巨儒 從舅氏 一齋 李恒 先生의 서거를 통곡하고 挽詞를 지었다. 眉巖은 선생과 湖堂 同學으로 교분이 매우 두터웠으며 乙巳士禍 때 같이 연루되어 선생은 진도에 미암은 제주도에 귀양갔다. 선조초에 重用되어 大司成, 大司諫, 吏曹參判을 지낸 一代의 名儒였다. 그가 죽자 소재는 挽詞 12韻을 지어 슬퍼했다. 知己之友인 斯丈의 巨星을 잃은 슬픔을 시로 읊었다.

선조 12년에 소재는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사임을 간청했으나 선조는 윤허치 않고 判中樞府事에 제수했다. 선조는 소재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직 귀향 상소에 답하여 내리는 手敎에서 말하기를

卿은 山川의 間氣요 星斗의 文章이다. 學問은 伊洛의 脈을 傳하였고 道는 儒林의 宗이 되었다. 10年을 黃閣에 있어 은연히 喬岳의 功과 九鼎의 勢가 있었다. 나의 어질지 못함으로써 오늘날 顛沛를 면하게 된 것은 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옛날 瘴氣 낀 海島에 있게 된 것은 하늘이 혹시 마음에 정동을 주어 부족한 것을 더 공부하게 하여 크게 쓰이게 한 것이 아니었던가 내 외람되게 王位를 계승하게 되어 경승으로 세웠으니 이는 하늘이 卿을 나에게 준 것이었다. 바야흐로 老成大臣을 우러러 보는 마음 간절하던 즈음에 홀연히 은퇴를 구하는 소장을 보니 나의 박력으로 인하여 어진 경승이 나를 버리고자 하니 마음 속으로 부끄러워 용납할 바가 없소. 경이 나를 족히 같이 일할 수 없다하여 그러는 것인가, 혹 허물이 있거던 명백히 가르쳐 주오. 마음으로 조용히 가르침을 받으리니 경은 앞에서 말하지 않고 물러가서 뒷말이 있어서는 안되오.<sup>7)</sup>

이에 소재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 일을 보아 수년간 經筵에 入侍했다. 11월에는 左議政에 승차했다. 선조 13년에 와거도 소재는 건강이 나빠 사임을 주청했으나 內醫를 보내어 치료케 했다. 선조 14년에 선생은 쓸만한 賢材로 閔純을 천거했다. 민순은 花潭의 門人으로서 孝行으로 권거되었다. 민순은 벼슬이 禮賓寺正에 이르렀으나 사퇴하고 향리에서 학문의 연구와 후생의 교육에 여생을 마친 名賢이었다.

선조 15년 소재 67歲에 9월 모친상을 당하였다. 소재의 슬픔은 깊다. 선조는 承旨를 보내어 弔意를 포하되 강례에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다.

선조 16년 12월 신즈는 소재에 쌀과 콩 20섬을 하사했다. 이에 거상 증 上疏하여 謝恩했다. 선조 17년 8월 上疏하고 歸鄉을 간청하여 내려갈 때 內醫로 하여금 藥을 가지고 護行케 했다. 居喪中 卜相의 命을 받아 鄭惟吉, 柳瑛, 朴大立을 권거하여 경유길에 우의정이落魄케 했다. 이 해에 大祥을 마치고 3정에 올라가니 左議政에 大拜되었다. 계속 여러번 사직을 간청했으나 허락치 않고 선조 19년 71歲에 九杖을 下賜했다. 그리고 계속 사직을 청했으나 領議政에 大拜되었다. 국왕은 소재에 卜相을 命함에 尙貴榮,

7) 위의 거.

李山海를 천거하여 李山海가 우의정이 되게 했다. 이 해 7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두루 12번이나 사임을 청했으나 允許치 않고 閑職인 領中樞府事에 전임되었다. 그러나 신병으로 갈 수 없었다. 선조 22년 正月에 上劄하여 奉朝賀를 청하고 致仕를 청했으나 모두 허락치 않았다. 이 때 柳堧이 정승이 되어 右相 李山海와 함께 소재를 首相으로 재임시키기를 청했으나 신병으로 선조가 말렸다. 계속 致仕의 간청은 윤택치 않았다.

선조 22년 乙丑 10월 3일 밤 五更에 黃海道觀察使로부터 鄭汝立의 謀逆이 국왕께 비밀히 보고됐다. 이에 놀란 선조는 大臣들을 불러 들였으나 소재는 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10월 11日 詣闕하라는 下命을 받고 가마에 타고 敦化門에 나아갔다. 王은 명하기를 좌우에 부축하여 들어올 것이오, 그렇기 못하면 가마에 태워서 들어오라 했다. 소재는 몹시 쇠약하여 입걸치 못하고 나와야 되었다. 선조는 꼭 만나볼려 했는데 지체 불편하여 만나지 못함을 탄식하고 史官을 보내어 위로의 말을 전하고 豹皮褥 一坐를 하사했다.

1589년(선조 23) 庚寅 3월에 소재 76세시에 鄭汝立의 己丑獄事로 인하여 경여립을 천거한 죄로 인하여 臺諫의 탄핵을 받아 出城待命하라는 국왕의 嚴旨를 받고 即日로 가마에 타고 城밖에 나가 東郊로 갔다. 臺諫에서는 削奪官職 黜陟을 주장했으나 선조는 「이것은 사람을 알아 보지 못한 것이니 내 차마 삭탈출척까지는 못하겠노라.」하고 領中樞府事직을 파직시켰다.

이 해 3월 12일에 同甲이던 夫人 廣陵李氏가 향년 76세로 타계했다. 소재는 단장의 통곡을 했다. 不幸은 雪上加霜이었다. 소재는 一生을 偕老한 金슬이 좋기로 남부려운 사이였으나 夫人과의 사이에 슬하에 한 자녀가 없었다. 19년 간이나 귀양살이 할 때 시 부모를 모시고 고생도 많았던 李夫人이 죽자 너무도 슬펐다. 그 후 2주일 뒤에 소재는 同庚夫人을 따라 4월 7日 漢城 寓舍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에 穆陵盛際의 政界와 文壇과 斯文에 찬란히 빛나던 巨星은 지고 말았다.

7月 10日 아들 大海에 의하여 고향 尚州 化寧縣 遠川里에 李氏夫人과 함께 묻히고 말았다. 政界의 元老 宰相의 장례는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쓸쓸하고 눈물겨웠다. 당시 소재는 罷職된 죄인이라 조정의 禮葬도 賻儀도 받지 못했다.

소재와 李夫人의 몸에서는 자식이 없어 아우 克愼의 아들 大海로 養子를 하여 後嗣를 삼았다. 大海는 뒤에 榮川郡守를 지냈다. 소재는 沃州(珍島)에 있을 때 同居한 後配가 있어 이 몸에서 3男 1女를 낳으니 아들은 戒來, 戒難, 戒後요, 딸은 牧使 許徵에게 출가했다. 後配夫人의 姓氏는 丹陽禹氏夫人이다.<sup>8)</sup>

1695년(숙종 21) 소재 사후 95년 뒤에야 諡號를 받게 되었다. 시호는 文簡이었다. 「道德博聞曰文 正直無私曰簡」이었다. 그리고 조정에서 賜祭했다. 선생은 光海王 8년에 忠州 八峰書院에, 동 14년에 槐山 花巖書院에 顯宗 5년에 尚州 鳳山書院에 配享되고 숙

8) 李埈 撰, 「蘇齋先生行狀」.

중 2년에 珍島 鳳岩祠에 모시게 되었다.

先生의 年譜는 門人 康復誠이 1616년(광해왕 9)에 만들고, 行狀은 1634년(인조 12)에 蒼石 李垸이 撰하고, 神道碑銘은 1674년(현종 15)에 眉叟 許穆이 撰했다. 文集은 1601년(건조 35)에 從子 盧大河가 天安郡守로 있을 때 인쇄하여 木版은 俗離山寺에 소장했으나 화재로 소실되었다. 重刊은 1615년(光海 8)에 門人 康復誠이 星州牧使로 있을 때 印出했다. 3刊은 1664년(현종 5)에 曾孫 盧峻命과 妹婿 沈大孚가 재편집하여 峻命의 아우 盧景命이 奉化郡守로 있을 때 刻板印刊했다.<sup>9)</sup>

#### 4. 學統과 蘇齋學

##### ㄱ. 儒學의 道統淵源과 儒學

소재는 관란한 東國 性理學의 道統淵源의 正統을 계승한 빛난 연원을 가지고 있다. 소재는 當世의 名儒인 그의 丈人 灘叟 李延慶의 門人이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退溪의 門人이란 世傳은 잘못이다.<sup>10)</sup> 그는 결코 李滉의 弟子가 아니었다. 이황과는 師弟 관계가 아니라 둘은 相師友하던 사이로 湖堂同學이었다. 退溪가 年長이었으나 둘은 서로 道學으로 交遊하여 추앙·존경하는 사이였다.

소재의 道統淵源의 沿革을 고찰해 보겠다. 受學師傅 李延慶은 字는 長吉 號는 灘叟, 본관은 廣州이다. 判中樞府事 李世佐의 손자요 奉事 李守元의 아들이다. 蔭補로 參奉이 되고 刑曹佐郎이 되었다. 1519년(중종 14) 賢良科에 급제하여 司憲府持平 弘文館校理를 역임했다. 己卯士禍에 화를 입어 과직되었다. 當世 性理學界의 巨儒로 道德의 名望이 높았다. 諡는 貞孝다.

탄수의 學統은 當世의 鴻儒碩學이던 寒暄堂 金宏弼과 그의 문인이던 靜庵 趙光祖의 兩門에 나아가 受學했다.<sup>11)</sup> 寒暄堂의 道統은 東國性理學의 正統이었다.

이제까지의 道統淵源에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東國 성리학의 道統淵源을 살펴 보겠다. 등국에 성리학을 도입한 최초의 祖師는 1286년 元에 사신으로 갔던 安裕(珣)였다. 그는 文教의 復興에 心血을 기울여 瞻學錢이란 獎學財團을 설치하고 國學을 重建하였으며 孔子와 72賢의 畫像과 祭器·樂器와 六經과 諸子書와 史書를 구입하고 朱子全書를 轉寫해 와서 潛心연구하여 이를 儒學의 正統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그의 공적은 성리학이 海東에 受容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으며 성리학의 濫觴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文廟에 配享되고 海東 道學의 祖宗이 되었다.

安裕의 학문을 전수한 문인으로 禹倬, 權傳, 白頤正, 李瑱, 李兆年, 宋蕝, 李晟, 尹宣佐, 尹安庇, 徐甄, 許冠 등이다. 그 중 그의 學統을 계승한 首弟子는 白頤正이다. 백

9) 『蘇齋先生年譜』 「追補」.

10) 李熙大, 『退溪文人錄』, 太陽社, 1983 pp.41~42, 『陶山及門語賢錄』 卷 1, 甲寅 5月, 陶山書院刊, 『典故大方』 卷 3 門人錄.

11) 『典故大方』 卷 3 門人錄.

이정은 호를 彝齋라 하는 儒者로 忠宣王을 따라 元의 燕京에 가서 10년간 正式으로 성리학을 공부하고 性理學의 서적을 가지고 귀국하여 이를 국내에 傳布하니 이에 名實相符한 東方性理學의 濫觴이 되었다. 그는 그의 學統을 首門인 益齋 李齊賢에 전수했다. 익재는 충선왕을 따라 燕京 萬卷堂에서 當代 元朝의 名儒碩士와 교유하여 당대의 학풍을 고무 섭취하여 귀국후 正學을 倡明했다. 그는 七朝歷仕에 官至首相하고 道德之首 文章之宗이었다. 그는 장인인 權溥의 學統도 전수했다. 그가 가르친 제자에 李穀, 李穡父子가 가장 걸출했다.

益齋의 학통을 계승한 巨儒는 牧隱 李穡이다. 목은은 가정에서 學을 受業하고 益齋丈에게 수학하여 익재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그는 元에 가서 生員으로 國子監에 入學하여 성리학을 정식으로 공부했다. 귀국 후 成均館大司成으로 國學을 일으키고 一代의 名儒를 學官으로 성리학을 講義케 하니 이에 一代文運이 蔚然히 일어나고 그의 문하에서 一世의 鴻儒碩學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단연 성리학계의 領袖로 군림하고 본격적인 崇儒排佛의 旗幟를 높이 들어 이에 성리학이 土着하게 되었다. 그래서 公을 동방 성리학의 실질적 祖宗으로 삼는다. 목은의 문하에서 배출한 名儒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는 圃隱 鄭夢周와 陶隱 李崇仁이요, 그리고 三峰 鄭道傳, 陽村 權近, 浩亭 河崙, 桐軒 尹紹宗, 怡隱 吉再이다. 당대 文運을 이끌던 一世의 巨儒 碩學들이었다. 성리학의 倡明과 文教의 復興과 儒學淵源은 실로 牧隱이었다. 그는 命世의 儒宗이었다. 海東理學之宗이라 칭하는 포은 정몽주는 목은의 문인이었다. 權近은 鄭三峰文集序에서

吾家文正公始以朱子四書立白刊行 勸進後學 其甥益齋文忠公 師事親炙 以倡義理之學 爲世儒宗 稼穡權隱諸公從而興起 澹菴白公關異端尤力焉 吾座主牧隱先生早承家訓 得齒辟廡以極正大精微之學 既還儒士皆宗之 若圃隱鄭公 陶隱李公 三峯鄭公 潘陽朴公 茂松尹公 皆其升堂者也 三峯與圃隱陶隱尤相親善 講論切磋 益有所得<sup>12)</sup>

이라 한 글과 三峰 鄭道傳이 陶隱集序에서

今牧隱李先生早承家庭之訓 北學中原 得師友淵源之正 窮性命道徳之說 東還延引諸生 其見而興起者 鳥川鄭公達可 京山李公子安 晉陽河公大臨 潘陽朴公尚表 密陽朴公子虛 永嘉全公敬之 樞公可遠 茂松尹公紹宗 雖以予之不肖 亦獲側於數君子之列<sup>13)</sup>

이라 한 記述과 李牧隱送子虛詩序卷後題에

牧隱先生主盟吾道 以興起斯文爲己任 有憂於此 其亦久矣 今寧遠可則曰彙聚卓越 子虛則曰縝密精切 蓋亦樂得英才深喜之辭也 古人於斯文之興衰 未嘗不推之於天 而以得入爲難 今二子之遇先生天也 先生之得二子亦天也 先生曰斯文之興 子虛既與其始 當與子虛終之 是天也 吾數人者聽命於天而已 此其所喜者甚至 而所期者亦遠矣 二子勉矣哉<sup>14)</sup>

12) 權近, 「鄭三峰文集」序, 『陽村先生文集』卷 16.

13) 鄭道傳, 京山 李公子安 陶隱集 序, 『三峰集』卷 3, 『東文選』88卷.

14) 鄭道傳, 「李牧隱送子虛詩序卷後題」, 『三峯集』卷 4.

라는 글일과 尹准가 기은

予少也遊於牧隱先生之門 坐客有若圃隱鄭先生 惕齋金先生 陶隱李先生者 視其容儀 聽其談論 知其爲一代之偉人也。(尹准撰「惕齋學吟集序」, 『東文選』卷 93)

라는 글들을 볼 때 포은은 목은의 문인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성리학의 正統이 목은에서 淵源함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海東性理學의 淵源의 祖宗을 圃隱에 두고 있으며 목은을 제외시켰다. 이것은 巖南學派의 宗師이던 估儻齋 金宗直이 그의 학통을 그의 아버지 江湖 金叔滋에 두고 江湖의 學統을 治隱 吉再에 두고 길개의 학통을 麗末의 忠節臣 포은 정몽주에 두었는데 연유하여 그와 같은 道統淵源이 이루어졌다. 嶺南士林派들은 그들의 道統淵源을 麗末의 충신 정몽주와 節臣 吉再의 계통에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려가 망함에 殉節치 못한 牧隱을 그들의 가치관에서 貶下했다. 그래서 포은의 직계 제자도 아닌 治隱을 포은의 문인으로 포은의 연원을 계승한 正統으로 만들었다. 야은은 실제로 牧隱의 제자였고 목은의 제자인 陽村의 제자였다.

목은이 李朝의 性理學者들에 의하여 道統淵源에서 제외된 데는 그의 佛敎 이해를 비난하는 이조 유학자들의 좁은 편견에도 연유한다. 牧隱은 불교를 이해했고 그의 先親의 遺志를 이어 坐兀 南山聽公의 간절한 권유로 人子로서 선친에 孝道하고 優遇 받은 臣子로서 玄陵에 대한 忠誠에서 神勒寺에서 大藏經을 印刊하고 大藏閣을 창건했던 것이다. 공은 당대의 高僧大德과 親交를 맺고 불교의 記文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는 崇儒抑佛派로 공민왕계 불교의 폐해를 신랄하게 공격했다.

殿下께서 佛을 만들어 섬기시는 精誠이 列聖中에서도 더욱 敦篤하나이다. 逆鱗을 거스르면 반드시 머리가 부서질것이옵니다. 다만 작은 일이 커지면 닦기 어려울 것이오니 이 때문에 만 번 축을 것을 무릅쓰고 한 말씀 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14)</sup>

라고 비강한 각오로 上書하는 글에서 宛曲한 표현으로 佛을 大聖人이라 하고 至聖至公이라고 한 것을 뒤에 恭讓王代에 政敵이던 左司議 吳思忠 門下舍人 趙璞 등은 공양왕계 상소하여 李穡父子의 罪狀을 論하여 極刑에 처하자고 했다. 排佛운동이 치성하던 공양왕대의 이색 공격파들은 호불의 군주 공민왕대에 이색 같은 발언은 엄두도 못낼 때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목은의 상소문을 트집잡아 痛罵하였다.

又以儒宗佞佛 印成藏經 舉國爭効 惟恐不及 以誤風俗 使子弟言於人曰 非吾父意 追祖毅之志耳 是則陷父於異端而不之恤也 · 立於百官之上 了無忤色 曲學阿世 飾詐釣名.<sup>15)</sup>

이 얼마나 지독한 험구공격이나. 또한 史家는 그의 容佛的인 學的 태도를 學問이 不純하다고 酷評했다. 고려사에

禮天資明敏 博覽群書爲詩文 操筆即書 略無凝滯 勉進後學 以興起斯文爲己任 學者皆仰慕 掌國

14) 『高麗史』卷第 115, 列傳 第 28, 李穡傳.

15) 위의 책.

文翰數十年 屢見稱中國 平生無疾言遽色 不露圭角 不治生產 雖至屢空 不以爲意 然志節不固 無大建白 學問不純 崇信佛法 爲世所談。<sup>16)</sup>

라고 評하여 斯文에 대한 공적을 찬양하면서도 崇佛的인 태도를 혹독했다. 이와 같은 그의 容佛的인 學的 태도를 인하여 醇儒에서 제외되었다. 성리학을 集大成한 文公朱子도 그의 師傅 劉屏山の 집에 交游한 禪僧과 禪을 좋아한 스승의 영향을 받아 科擧에까지 禪意로써 經을 說하여 시험관을 감동시켜 合格의 영광을 얻었던 것이다.<sup>17)</sup> 그러므로 公의 學이 不純하다 한은 당치 않은 편견이다. 포은도 楞嚴經을 읽고 佛敎에 현혹된다는 당대의 世論이 있었다.<sup>18)</sup> 당시 고려 學風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영남사립과는 포은·야은의 충절을 높이 사서 牧隱을 제외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목은은 시종 고려왕실과의 충신이었던 점은 禡王·昌王을 숙청하고 九功臣에 冊勳된 포은과는 다른 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士林派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성리학과 忠義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道統淵源의 宗師로 고려왕조에 丹忠을 바쳐 殉節한 포은 정몽주를 성리학통의 開祖로 받들고, 그의 淵源을 계승한 제자로 야은 길재를 宗師로 받들었다. 영남일대에 門徒 세력을 부식하고 중앙에 진출하여 신왕조의 유교적 통치이념을 담당한 佔畢齋 金宗直과 그 문도들에 의하여 정몽주—길재—金叔滋—金宗直의 학통을 수립했다. 이를 道學的 傳道正統으로 고정시켰다.<sup>19)</sup>

治隱의 淵源은 목은이다. 麗末에 야은이 棄官歸鄉할 때 長端에 있던 이색을 찾아가 거취를 결정했다. 이 때 목은은 야은에게 棄官歸鄉을 권고하고 詩를 지어 주었다. 야은은 李成桂, 池勇奇, 鄭夢周, 偁長壽, 成石璘, 趙浚, 朴葦, 鄭道傳, 沈德符 등의 9功臣이 우왕·창왕을 숙청하고 공양왕을 세움에 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키기 위하여 물러난 것이다. 이색도 9공신들과는 적대관계인 우왕·창왕파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도 숙청되었다. 그러니 야은은 포은과는 정치노선이 달랐다. 당시 정몽주는 이성계 혁명파였고, 야은은 목은과 같이 고려왕실파였고 정몽주와는 政敵이었다. 야은의 스승은 고향에서는 朴賁이었고 京師에 와서는 이색과 권근이었다. 治隱行狀과 年譜에는 禡王 및 恩師 朴賁과 權近의 逝去 때 心喪 3년을 살았다고 하나 포은에 관해서는 一言半句의 언급이 없다.<sup>20)</sup> 이를 볼 때 야은 자신은 포은을 恩師로 생각하지 않았고, 受學은 했으나 포은은 엄정한 의미에서 야은의 사부가 아니었다. 야은은 목은, 양촌 兩門에서 受學했으나 목은의 학통을 이은 陽村의 門人임을 자처했다. 恩師 陽村의 師傅인 牧隱의 門人이라 할 때 恩師와 同格이 되는 외람됨을 생각하여 야은 자신은 양촌의 제자를 자처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儒學道統 淵源은 영남사립파들의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보여진

16) 위의 책.

17) 『朱子語類』卷 104, 『輯廣錄』, 友枝龍太郎, 『朱子의思想形成』, pp. 44~45.

18) 鄭道傳, 「上鄭達可書」, 『三峰集』卷 3, 『東文選』卷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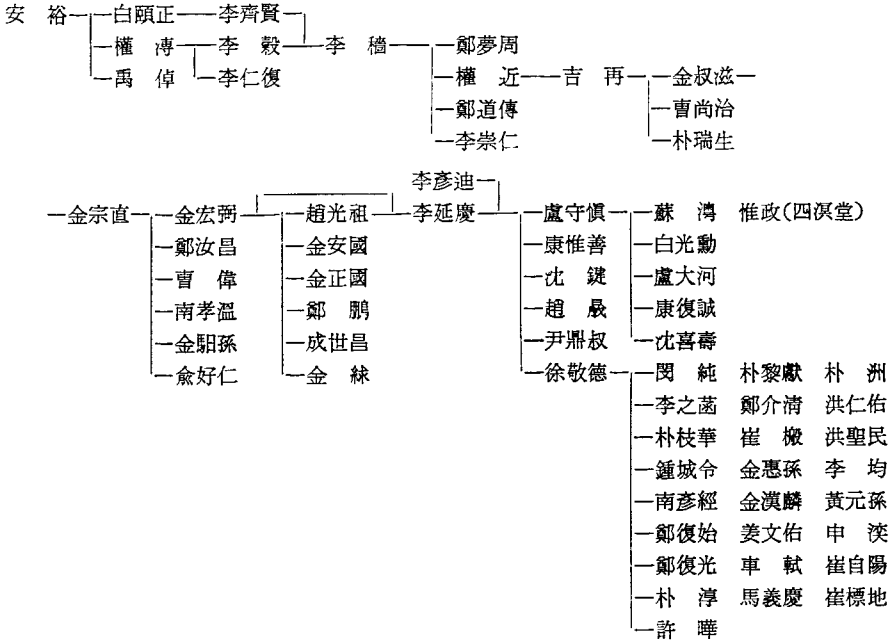
19) 文暉鉉, 「麗末性理學派의 形成」, 『退溪學研究』7輯, 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1980 所收.

20) 『治隱先生言行拾遺』卷上 年譜.

다. 진정한 淵源圖는 다음과 같다.

安裕—白頤正—李齊賢—李穡—權近—吉再—金叔滋—金宗直—金宏弼—趙光祖—李延慶—盧守愼  
徐敬德

<道統淵源圖>



소재의 학통은 東國儒賢道統淵源의 正統이었다. 이 점 소재학의 빛난 전통이었다. 소개는 탄수의 문하에서 從游하고, 탄수로부터 학문을 배우던 麒麟兒 李潤慶·李延慶<sup>21)</sup> 형제를 만나 학문과 行誼를 넓히고 닦는데 크게 비보됨이 많았다. 廣州 李門은 國初 제 1급의 명문이었다. 이윤경·이준경 형제는 탄수의 堂弟(四寸)로 소재의 妻堂叔이었다. 이 두 형제는 당대의 俊才로 후일 크게 大成했다.

이윤경의 자는 重吉, 호는 崇德齋로 官이 兵曹判書에 올랐고 시호가 正獻이었다. 이준경의 자는 原吉, 호는 東阜로 官이 領相·領中樞府事に 오르고 宣祖廟庭에 配享되고 시호는 忠正이다. 一代의 名相으로 이름 높았다.

이와 같이 廣州 李門에 장가들고 탄수의 문하에서 받은 학문과 예절과 명문의 범도는 소재의 인격형성에 크게 작용했다.

소재의 또 하나의 受學 계보는 晦齋 李彥迪을 들 수 있다. 소개는 27살 되는 해에 한양에 온 晦齋를 찾아가 執贇로 弟子의 예를 다하고 가르침을 받았다.<sup>22)</sup> 회재가 손바닥을 보이면서 「여기에 물건이 있는데 꼭 쥐면 깨지고 쥐지 않으면 없어지느니라」고 함에

21) 朴世采, 『東儒師友錄』 卷之 10, 李麗叟從遊二, 李正獻公(潤慶), 李忠正公(浚慶).

22) 「蘇齋先生年譜」에 二十年 辛丑先生 二十七歲의 分注에 是歲晦齋李先生入京先生以書爲贇而禮贊質問心經.

소재가 勿忘勿助 즉 잊어버리지도 말고 너무 조금씩 조장하려고도 말라는 뜻이다. 이것은 孟子 公孫丑章에 「잊는 이는 지심을 매지 않는 것이요 助長하는 이는 보리이삭을 뽑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소재는 이를 좌우명으로 새겨 착실히 做工했다. 그러므로 소재를 晦齋의 門人으로 넣는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소재는 大學(성균관)에서 慕齋에게 수학하기도 했다.<sup>23)</sup> 蘇齋까지는 陰崖 李紆의 行狀에 의하면 李紆에게 親炙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정통적인 학통은 탄수의 문인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탄수의 문인으로는 탄수의 세 사위가 있다.

康惟善은 자를 元叔, 호를 舟川, 본관은 信川이다. 承文院判校 康仲珍의 손자다. 어려서 神童의 칭을 듣고 10여세에 능히 글을 지었다. 탄수는 그를 매우 사랑했다. 1537년(중종 32)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成均館 儒生이 되었다. 文章으로 宋麟壽의 사랑을 받았다. 公은 洪仁祐, 許忠吉 등 성균관 大學生들을 이끌고 趙光祖, 金淨, 金湜 等 己卯諸賢의 伸冤을 상소하여 이루고 南袞, 沈貞의 妬賢罔上之罪를 논했다. 그러나 忠州에서 李洪胤의 獄事에 연루되어 杖殺되었다. 그는 一世의 名儒였다. 소재와는 각별한 동서의 友情이 있었다.

沈鍵의 字는 重啓, 어려서부터 재조 絶倫했다. 벼슬이 正字였다.

이와 같이 소재는 그의 俊秀한 동서 두 사람과 함께 3인이 장인으로부터 수학했다.

徐敬德의 자는 可久, 호는 復齋·花潭으로 一生을 徵士로서 개성 花潭에 은거하여 유학을 연구한 巨儒였다. 그는 主氣論의 거봉으로 畿湖儒學 栗谷學派의 先驅가 되었다. 花潭의 문인은 太盛했으니 杏村 閔純, 土亭 李之菡, 守庵 朴枝華, 鍾城令, 瑟間 朴民獻, 東岡 南彥經, 桂潭 鄭復始, 鄭復光, 朴黎獻, 思庵 朴淳, 草堂 許曄, 鄭介清, 崔檄, 金惠孫, 金漢麟, 姜文佑, 車軾, 馬義慶, 朴洲, 恥齋 洪仁佑, 拙翁 洪聖民, 李均, 黃元孫, 申淡, 崔自陽, 崔標地, 金鎬, 孤青 徐起, 金謹恭, 尹聘壽 등이 나왔다.<sup>24)</sup>

趙晟의 자는 伯陽, 호는 養心堂, 본은 平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의학, 律呂, 算數, 天文地理에 통달하여 醫, 算, 律의 三學敎官을 지나 義盈庫舍에 이르렀다. 공은 탄수에게서 수학하고 조광조의 門에서도 배웠다. 그 외 탄수의 제자에 尹鼎叔이 있다.<sup>25)</sup>

노수신의 문하에서는 蘇鴻, 白光勳, 盧大河, 康復誠, 惟政·沈喜壽가 배출되었다.<sup>26)</sup>

白光勳은 호가 玉峰으로 三唐詩人의 칭을 듣던 詩界의 巨擘으로 詩, 書, 畫 三絶의 칭을 들던 藝苑의 天才였다. 그는 소재가 珍島에 귀양살이할 때 와서 수학했다.

沈喜壽의 자는 伯懼, 호는 一松·水雷累人, 正字 沈鍵의 아들이다. 그러니 소재의 姪姪이었으며 아우 克愼의 사위인 姪婿였다. 文科에 급제하여 1583년(선조 16)에 賜暇讀書하고 1592년 임진란시 선조를 義州에 扈從하고 中國語에 능통하여 都承旨로 李如松

23) 「蘇齋先生年譜」十九年庚子 先生二十六歲條.

24) 『典故大方』卷 3 門人錄, 花潭徐敬德門人, 朴世采, 『東儒師友錄』卷 23, 24. 花潭門人.

25) 朴世采, 『東儒師友錄』卷 15 李滌叟門人 三, 盧蘇齋, 康舟川, 沈正字, 『典故大方』卷 3, 門人錄, 滌叟李延慶門人, 盧守愼, 康惟善, 沈鍵, 徐敬德, 趙晟, 尹鼎叔.

26) 위 『東儒師友錄』卷 15 李滌叟門人 三 盧蘇齋·守愼, 亦係乙巳被禍 門人 蘇鴻, 白光勳, 盧大河, 康復誠, 沈善壽附.



을 영접하고 接伴使 戶曹判書로 經略, 宋應昌을 맞았다. 吏曹判書, 兩館大提學, 右相, 左相, 領敦寧府事に 이르렀다. 시호는 文貞이다.

惟政 字는 離幻 號는 四溟堂 松雲大師 俗姓은 任氏 소재에 老子 莊子 列子 文子와 李杜를 배워 大成했다. 朴淳 許黻 李達 林悒 등과 교유하여 詩文으로 一世에 善鳴했다.<sup>26)</sup>

康復誠의 자는 明之, 호는 竹磣, 惟善의 아들이다. 소재의 姨姪이다. 天安郡守, 都摠府 副摠管이 되었으나 光海朝에 사직하고 은퇴했다. 仁祖反正 후 富平郡守, 星州牧使를 역임하고 李适亂時에 국왕을 扈從하여 知中樞府事に 이르렀다. 名儒였다.

소재의 門에서 政治家로서 正一品 丞相의 지위인 議政府左議相, 領敦寧府事 沈喜壽를 育成하고 高僧에 救國英雄 惟靜과 穆陵盛際 詩壇의 桂冠詩人 白光勳을 배출함으로써 소재의 儒家的 學問전수는 완전히 성공했다.

소재의 學問은 流配生活을 계기로 거기서 이루어졌다. 소재는 珍島(沃州)의 귀양살이 19년을 오로지 學問에 경진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南塘 陳栢의 『夙興夜寐箴』을 注解하였다. 이 때 소재는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는 論旨가 담긴 書札을 退溪 李滉, 河西 金麟厚, 一齋 李恒, 玉溪 盧禎, 高峰 奇大升과 왕복 교환하면서 學問을 토론했고 논쟁했다.<sup>27)</sup> 그와 같은 書札을 통한 견해의 개진과 주장과 비판과 논쟁은 소재의 學問완성에 크게 裨補했고, 退溪 高峰의 往復書信 논쟁과 함께 유명하다.

소재는 『夙興夜寐箴』의 全篇綱領이 敬에 있으며 이 敬의 방법은 專一에 있다고 했다. 誠敬과 專一이 그 德을 同一하게 한다하고, 工夫에 있어서도 同一하다 하고 專一工夫가 夙興夜寐箴의 要旨라 했다. 그래서 學者는 敬一工夫에 힘쓸 것을 주장했다. 소재는 朱子の 〈人心道心說〉에 異見을 주장하고 明나라 羅整菴의 지술인 『困知記』의

道心은 淸이요 人心은 情이나 心은 하나다. 이것을 들로 말한 것은 동정의 나뉘고 體用의 구별이다.

라는 體用說을 지지했다. 이에 從舅이던 一齋 李先生과 玉溪 盧先生의 비판과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소재는

自己는 처음에 道心을 純善이라 하고 人心을 兼善惡이라 하면 下旬는 重複되니 疑心이 없을 수 없다 했더니 整庵의 體用說을 보고서는 果然 그 이유가 그러하겠다고 깨달았다.

고 말하고 그의 『人心道心辨』에서

朱子는 대개 道心을 純善한 것이라 하여 性에서 말하였다 하고 人心은 선악을 겸하여 形象에서 말하였다라 하였으니 이것은 곧 두가지의 품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性命에서 발한 善과 形氣에서 발한 선이 같은 다음이 없는 것이요, 그 선과 악은 人心에 속하는 것이니 性命에서 발한 바도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대개 道心은 곧 天理가 다음 가운데 갖추어진 것인데 그 발함을 기르며 하르르 人心이라 하는 것이요, 中節 不中節이 있기 때문에 위태로

26) 許筠撰「有明朝鮮國慈通弘濟尊者四溟松雲大師石藏碑銘」『三溟堂集』卷 7.

27) 玄相允, 『朝鮮儒學史』 pp. 147~152. 『蘇齋先生內集』「草創錄」二, 攢塞錄 甲--·甲二, 「三子論夙興夜寐箴解往復錄」.

은 것이다. 그 발하지 않았을 때는 형적이 없으므로 은미한 것이다. 그 위태로움을 보고 은미함을 아는 데는 반드시 精一의 功을 쌓아야 한다. 精은 인심을 살피는 것이니 학자의 움직임 때의 공부요, 一은 道心을 보존하는 것이니 학자의 고요할 때의 공부다.

고 했다. 그는 羅整庵의 理氣一物說을 따르고 人心道心辨에서 道心을 未發의 大本으로서 心의 體라 하고 人心을 用이라 했다.

소재의 『人心道心辨』은 奇高峰의 四端七情論과 함께 斯文의 壓卷이었다. 李退溪는 소재의 『夙興夜寐箴解』를 보고 斯道가 우리 東方에서 亡하지 않는다면 이 註解가 반드시 후세에 전해 질 것이다 하였다. 澤堂 李植이 말하기를 蘇齋가 珍島로부터 돌아와 禪學을 하였다 한다. 소재의 禪을 보고 退溪가 크게 놀라 글을 보내어 충고하고 비판했으나, 소재의 변호 또한 준절했다고 하며, 이와 같은 소재의 學問은 朱子의 시대에 陸象山의 출현에 비했다.<sup>28)</sup> 그리고 蘇齋의 학문을 평하여 趙靜菴을 祖述하여 退溪보다 聲名이 높았다고 했다. 그리고 珍島에 있을 때부터 羅整菴의 困知記를 읽고 『人心道心傳註』와 『改定大學章句』 등의 저술을 완성하는데 모두 陸象山, 王陽明의 學說을 원용하고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sup>29)</sup> 李植은 그의 名著 『澤堂集』 別集 卷 15 示兒代筆에서 蘇齋의 儒學을 論하여

蘇齋自少厲志苦學 祖述靜菴 聲名高於退溪 及在海中 雖不廢學 憂愁之餘 詩酒遣懷 始讀羅整菴 困知記 以爲廣大精微 不下程朱 用其說 改作人心道心傳註 又改定大學章句 其言皆陸王意也 還朝未久 即大拜 前後在相位十四年 無所建明 唯以杯酒戲謔度日 謂之坐鎮稱爲賢相 蓋懲於禍阱 摧剛爲柔占便宜之道也 想其爲學 志勳途遠 又難中廢徑趨簡捷 立幟而止 其亦占便宜之道乎.

라고 했다. 그의 學은 靜菴을 祖述하여 聲名이 退溪보다 높았고 그의 儒學著述은 陸象山 王陽明의 說을 따랐다 했다.

#### ㄴ. 文學의 淵源과 그의 杜詩學

漢詩의 최고봉은 唐詩요, 그 중에서도 盛唐의 李杜였다. 그래서 李白을 詩仙, 杜甫를 詩聖이라 한다. 조선왕조는 忠君愛國의 詩人 杜甫의 詩를 존중하여 詩의 典範으로 삼고 『纂註分類杜詩』와 『分類杜工部詩諺解』를 왕조적 사업으로 추진 보급하여 東國詩壇의 百花齊放期이던 穆陵盛際(宣祖時代)의 唐詩운동에 밑거름이 되었다. 穆陵盛際에 盛唐의 眞境을 擬한 白光勳, 李達, 崔慶昌의 소위 三唐詩人의 淵原이 소개에 있었다. 朴思菴淳이 오로지 李白을 따른 데 대하여 蘇齋는 자못 杜詩를 法學하여 老杜를 眞眞하였다. 그는 一字一語를 杜詩를 模範으로 했다. 梁慶遇는 霧湖詩話에서

28) 李植, 『澤堂集』 別集 卷之 15 雜書 示兒代筆에

我東國始有文字 先立佛學 前朝君臣 奉佛成俗 程朱之教 麗未始到 安文成始立聖廟 鄭圃隱始變禮俗 二公雖不染佛學 亦未能闡明道術 牧隱陽村兼採並用之類也 佔畢齋一倡真儒 繼起靜菴 以後道學大明 牛童馬卒之外 皆以佛學 爲恥習俗之變不難也 至於退溪愍中原禪學之懷裏 講辨著述 毫釐必察 學者洽然從之 無敢異論 盧蘇齋自海中還 忽爲禪學 退溪大駭 亦不能與之辨 時以詩句挑之 而蘇又答之甚捷 自是爲道學者間 禪禪學 實自蘇齋啓之 眞如朱子時 忽出陸象山也.

라고 했으니 우리 東國이 佔畢齋, 靜菴 이후는 道學이 大明하여 佛學을 부끄럽게 여겼고 退溪가 中國의 禪學을 공격하여 學者들이 모두 여기에 따랐으며 감히 異端이 論하는 者 없었는데 盧蘇齋가 禪學을 함으로써 道學者 사이에 禪學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다.

29) 위의 책, 李植, 『澤堂集』 別集 卷之 15 雜著 示兒代筆.

盧蘇齋五言律酷類杜法 一字一語皆從杜出.

盧蘇齋의 오언을시는 두보의 시 지는 법에 매우 닮았다. 한자 한마디가 모두 두보를 좇아 나왔다.

이라 했으며, 農岩 金昌協은

盧蘇齋詩在宣廟初 最爲傑然 其沈鬱老健莽宕悲壯 深得老杜格力 後來學杜者莫能及……世稱湖蘇芝 然三家詩實不同湖陰組織鍛鍊 頗似西崑而風格不如蘇芝川矯健奇崛 出自黃陳而宏放不及蘇 蘇齋其最優乎.<sup>30)</sup>

노소재는 宣祖 초에 있어 詩가 가장 뛰어났다. 그 침울하고 노건하며 호탕하고 비장한 것은 깃이 杜甫의 詩格을 얻은 것이다. 뒤에 오는 두보를 배운 이가 미치지 못한다. ……세상에서는 湖蘇芝를 칭찬하나 세 분의 詩는 참으로 같지가 않다. 湖陰은 그 시의 짜임새와 다름은 것이 자못 西崑(唐李商隱體)을 닮았으나 風格은 蘇齋만 못하고, 芝川은 교건기굴하여, 黃山谷 陳子昂으로부터 나왔으나 크고 분방함이 蘇齋에 미치지 못한다. 蘇齋야말로 가장 뛰어났구나.

라 했다. 당시 世稱 湖蘇芝라 한 詩壇의 三名家は 湖陰 鄭士龍, 蘇齋 盧守慎, 芝川 黃廷彥이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의 대가는 蘇齋였다고 했다. 蘇齋는 博學多識하여 經術文章이 당대에 超邁한 일대의 천재로 大提學으로 文衡을 典하여 一代 文運을 高登틀었다. 그는 穆陵盛世的 初葉에 있어서 初唐四傑에 比할 수 있는 巨匠으로 오로지 杜詩를 따르고 杜詩를 존중한 東國 杜詩學派의 宗師로 杜詩學에 있어서 뒤의 澤堂 李植과 쌍벽을 이루는 詩壇의 耆龜였다.<sup>31)</sup>

許筠은 蘇齋를 評하여

蘇齋 海月蟲音盡 山風露氣收之句 求之於少陵卷中 亦不可多得.<sup>32)</sup>

소재의 바다에 달빛이니 별베소리 그치고 산바람에 이슬기운 거두며.

의 시귀는 晚唐第一의 詩宗 杜牧의 시집 중에서 구하더라도 많이는 얻지 못한다고 했다. 李德懋는 소재를 評하여,

盧蘇齋我東別立門戶者 其詩全用之於而以字 似非詩家本色 然於其中化爲者也 文之暗室銘縱曰奇健 未免黑窈窕.<sup>33)</sup>

노소재는 우리 조선에서 별도로 문호를 차린 독창적인 시인이다. 그 시는 오로지 之於而以字를 써 마치 詩人의 本色이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化해서 기가 되었다. 文에 있어서 暗室銘은 비록 奇健하다 하나 어두운 암울한 감을 던질 수 없다.

고 했다. 소재는 우리 조선 문단에서 하나의 巨峰이라 했다. 前後 首相을 교대한 思庵 朴淳과 소재 노수신은 다같이 詩必盛唐의 기치를 든 唐詩운동의 驍將이었다. 그러나 朴思庵이 오로지 李白의 詩를 法한데 대하여 소재는 杜詩를 則했다.

30) 金昌協, 『農岩集』 卷 34, 雜識外篇.

31) 文暉鉉, 「朝鮮王朝 中期의 學杜詩風」—특히 穆陵詩壇을 中心으로—, 『韓國語文論叢』, 又村姜 覆樹博士回甲記念論文集, 1976년, pp. 42~46.

32) 許筠, 『鶴山樵談』, 『惺所覆瓿集』 卷 25 說部 4, 惺叟詩話.

3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 5 嬰處雜稿 瑣雅.

당시 文體反正 운동에 詩必盛唐 文必西漢이란 기치밑에 소개는 문장에 있어서 오로지 古文을 儀軌하여 班固, 韓愈, 柳宗元을 効則했다. 宣祖는 소개의 글을 보고, 批答에서 韓愈와 柳宗元의 문장이라 격찬했다. 公은 李朝의 文章家로선 굴지의 文豪였다.<sup>34)</sup> 이와 같은 소재의 문학은 그의 제자 白玉峰에 전수되어 더욱 꽃피었다. 玉峰 白光勳은 一代文章 岐峰 白光弘의 아우다. 소재의 門下에서 杜詩를 배워 蔚然히 群起한 穆陵詩家中에서 可謂 首位를 占했다. 榮達에 뜻이 없고 雲水泉石間에 自娛하고 明나라 使臣이 음에 恩師 蘇齋丈의 館伴이 되어 師弟가 다 詩筆로 詔使를 敬탄케 했다. 明나라 사신으로서 文名이 높던 朱之蕃이 당대 최고봉의 詩宗인 白光勳과 崔慶昌 등의 詩文稿를 보고는 무릎을 치며 칭찬하기를, 白玉峰의 筆法이 王羲之를 배웠고 당시 문장가의 제일이라 했다. 白沙 李恒福은 말하길 世人이 모두 李賀가 다시 태어나고 王羲之가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고 했다. 白玉峰은 書道로 當代의 名筆로 石峰 韓濩와 并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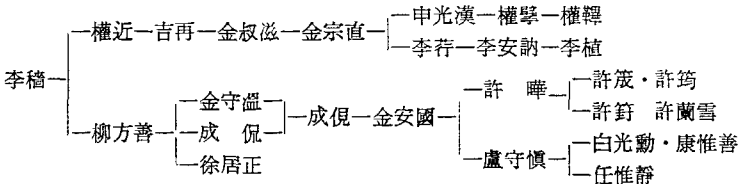
소재는 자신이 동국의 李杜 문장이라 자부했다. 그의 詩 自挽에

塵世紛紛成古今 齊名李杜亦奇男  
其冠逸我望望去 所事逢人歷歷談  
一臥海中神自守 獨行天外影無慚  
賈生能哭吾能笑 俱享行年三十三<sup>35)</sup>

티끌세상 분분하여 古수를 이루고. 李白과 杜甫에 이름을 겨누니  
어찌 奇男子가 아니라. 감투는 나를 더럽히고 아득히 가버리고  
한 일은 사람나나 날날이 말하네. 한번 바다 가운데 섬에 들어누어  
정신을 스스로 지켰다. 하늘 밖에 홀로 가도  
그림자도 부끄러지 않다네. 賈誼는 귀양가서 울었어도  
나는 귀양가서 웃었나니. 함께 33년을 누렸도다.

이 詩 한 수에서 蘇齋는 李杜의 詩境에 비김을 자부했고, 天涯絕島에 귀양가서 東身自潔한 지조를 자부했고, 그의 불운을 슬퍼하지 않고 극복한 그의 詩境을 방불케 한다.

文學의 淵源



5. 乙巳士禍

조선왕조가 건국된지 100년이 지나자 燕山君대에 이르던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들어 나기 시작한다. 개국공신과 世祖翼贊功臣의 후예로 경연과 경제를 소유한 勳舊派와 조

34) 『靑莊館全書』 卷 63, 天涯知己書에 湛軒曰 我國文章新羅有崔孤雲 高麗有李奎報 李牧隱 本國朴挹翠軒 盧蘇齋 崔簡易 車五山 權石洲.

35) 『蘇齋先生文集』 卷之 8.

신 혁명기에 節義를 지킨 정몽주, 길재 연원의 성리학파인 嶺南士林의 중앙 진출로 인한 알력 투쟁이 전개되었다. 영남 士林派의 宗師 金宗直 일파가 중앙 정계에 대량으로 진출하여 이들 新進氣銳한 세력들이 臺諫職을 점유하여 개혁정치를 추진함에 위협을 느낀 保守 훈구파의 반격이 士禍로 나타났다. 그 첫번째의 피비린내 나는 士林의 숙청이 1498(연산 4)년의 戊午士禍다. 金宗直의 「吊義帝文」을 그 제자 金駟孫이 史草에 실은 사건으로 발단되었다. 이를 世祖를 비방하는 大逆無道라고 덮어써워 연산군은 柳子光, 李克墩, 盧思愼과 손잡고 金宗直을 剖棺斬屍하고 金駟孫, 權五福, 李穆, 權景裕, 許磐 등을 죽이고 表沿床, 洪潁, 鄭汝昌, 金宏弼, 鄭希良, 李胄, 李繼孟 등을 杖流했다. 두 번째의 士禍는 연산군 10년, 연산군의 生母 尹妃의 廢位賜死와 관련된 獄事로 任士洪의 密告 선동으로 宮中 府中 士類세력의 다툼으로 방탕 무절제한 宮中세력의 府中세력에 대한 타격으로 시작되어 많은 士類가 禍를 입었다. 尹弼商, 李克均, 成俊, 李世佐, 權柱, 金宏弼, 李胄 등 수십명이 죽었다. 세 번째의 士禍는 中宗反正功臣들에 의한 至治主義, 道學政治를 주장하는 趙光祖 일파를 숙청한 己卯士禍다. 趙光祖, 李紆, 柳仁淑, 朴世憲, 洪彥弼, 金淨, 奇遵, 韓忠, 金湜, 金絃, 安塘, 朴薰, 金安國, 金正國 등이 숙청되었다. 이 때의 加害 勳舊세력은 南袞, 沈貞, 洪景舟로 대표된다.

蘇齋의 學統인 趙光祖 등이 모두 화를 입었고 그의 師傳요 장인인 李延慶도 이 때 화를 입어 벼슬을 버리고 田里에 돌아갔다. 南袞은 숙청제일 머리에 이연경을 적었으나 中宗이 人品과 學德을 존경하여 御筆로 지웠다.

中宗은 王妃 愼氏가 中宗反正時 처형된 역적 愼守勤의 딸이라 하여 反正功臣들의 강박으로 폐출하고 繼妃에 尹汝弼의 女를 王妃로 삼으니 이이가 章敬王后이다. 장경왕후가 중종 10년 元子(皓)를 낳고 죽으니 다시 尹之任의 딸을 왕비로 들이니 이가 유명한 文定王后다. 이 文定王后의 몸에서 중종 29년에 慶源大君이 탄생했다. 그래서 두 王子의 외척들 사이에 암투가 전개되었다.

禮曹判書 大提學 金安老는 그의 아들 金禧가 世子(皓)의 누이 孝惠公主에 장가들어 중종의 駙馬가 되자 慶源大君의 외척인 小尹 尹元老·尹元衡 형제를 실각시키고 문정왕후를 폐출할려다 도리어 金安老가 숙청되었다. 형세 일전하여 다시 등장한 윤원로·윤원형 일파는 世子を 폐하고 慶源大君으로 世子を 삼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에 世子を 수호할려는 世子の 外叔인 尹任 일파와 암투하게 되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大尹(尹任)과 小尹(尹元老, 尹元衡)파로 갈라져 정부는 두 파로 분렬 알력 대립되었다.

중종이 1544년 재위 39년에 돌아가시자, 世子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가 仁宗이다. 이에 大尹 尹任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大尹정권은 李彥迪, 柳灌, 金安國 등 士林세력을 기용했다. 그러나 병약한 仁宗이 在位 8개월만에 돌아가시자 12살난 慶源大君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明宗이다. 王의 大妃 文定王后가 垂簾聽政함에 경국은 형세가 一轉되어 禮曹參議 尹元衡은 知中樞府事 鄭順朋, 兵曹判書 李芑, 戶曹判書 林百

齡, 工曹判書 許磁와 결탁하여 刑曹判書 尹任, 領議政 柳灌, 吏曹判書 柳仁淑, 桂林君 瑠를 처형하고 漢城左尹 宋麟壽, 修撰 李輝, 副提學 羅淑, 司諫 郭珣, 大司成 李滉, 正郎 李中悅·李文樾, 參奉 羅湜·鄭希登·朴光佑 등을 숙청했다. 李芑는 兵曹判書로 右議政을 겸하여 尹元衡과 손잡고 피비린내나는 大獄事를 일으켰던 것이다. 이를 乙巳士禍라 하고 이 둘을 乙巳元兇이라 한다. 仁宗 元年 正月에 司諫院 正言이 된 소제는 동료와 함께 李芑를論했다. 그 후 소제는 吏曹佐郎에 移拜되었다가 明宗 즉위 후 9월에 少尹 일과가 장악한 兩司의 논핵 포문이 작열하였다. 鳳城君 岏은 여러 번 奸兇의 입에 올랐으니 마땅히 大罪를 줄 것이니 그 집에 幽閉시켜 출입치 못하게 할 것이며, 裕罪케 할 것이며, 左議政 成世昌은 겉으로는 踈宕한 체 하면서도 안으로는 참으로 不正하며 尹任, 柳仁淑과 더불어 평소에 서로 사권이 두터우니 정승의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오래 되어 숙지지 않으니 갈아치우고 僉知中樞府事 韓淑은 尹任과 교분이 두터웠다는 공론이 오래 되었고 또한 兇徒의 供招에도 나왔으니 파직하시고, 司僕正 李若水, 前承旨 鄭源, 前正言 李震을 모두 경박한 자질로서 論議를 일으키기를 즐기고 士林을 고요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니 朝列에 들 수 없으니 파직하고 直提學 李若海, 舍人 丁煥, 吏曹佐郎 盧守愼은 物議가 있으니 淸顯의 자리에 들이 부당하니 청컨데 갈아치우자고 주장했다.<sup>36)</sup> 이와 같이 小尹일과는 무자비한 士類의 숙청을 단행함에 소제는 이들에 의하여 파직되어 忠州로 돌아갔다.

乙巳士禍는 이에 끝나지 않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선풍은 더욱 거세었다. 小尹 형제간에 권력 다툼은 尹元老의 처형을 가져오고, 明宗 2년 9월에 文定王后와 李芑를 비방하는 壁書가 전라도 礪山郡 良才驛 벽에 붙었다. 「女王이 執政하고 奸臣 李芑 등이 弄權하여 나라가 망하려는데 이를 서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내용이였다. 이를 副提學 鄭彥愨가 이를 발견하여 보고함에 宰相 李芑·鄭順朋 등 小尹과는 乙巳獄의 餘黨이라 하여 鳳城君(中宗 제 8 子)과 파직되어 淸州에 은거하던 宋麟壽와 通禮院 左通禮 李若水를 처형하고 判義禁府事 院相 權楹, 左贊成 院相 李彥迪, 尹任의 처남으로 乙巳士禍時 光陽에 安置됐던 鄭磁, 司諫院 獻納으로 乙巳에 파직되었던 白仁傑, 正言 柳希春, 前正郎 丁煥을 流配하고 丁未년 3월에 順天으로 유배했던 노수신을 珍島로 移配했다. 여기서 소제의 장장 19년에 걸친 귀향살이가 시작되었다. 외척 권신 尹元衡·鄭蘭貞 夫妻의 집권시대가 계속되면서 孤島에 귀양간 소제에 서광은 오지 않았다.

## 6. 流配生活

乙巳士禍로 인하여 1544년 明宗이 즉위하자 득세한 尹元衡, 李芑 일과에 의하여 명종 2년 士類의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되었다. 1547년(明宗 2) 3월 33살에 順天으로 유배된

36) 『明宗大王實錄』 卷 2 即位年, 『乙巳傳聞錄』, 朝鮮黨爭關係資料集 第三輯 李離和編, 驢江出版社, 1983.

蘇齋는 9월 珍島로 移配되었다. 여기서 소재는 기약없는 유배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絶海의 孤島에서의 귀양살이는 그에게 많은 失意와 絶望과 인간으로서의 痛恨을 안겨주었으나 소재는 이 귀양살이를 황금처럼 이용했다. 宦海風波속에서 조정에 얽매었다면, 득서와 사색과 저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배생활은 소재의 학문이 영달고 알찬 저술을 남기는데, 그의 문학적 작품과 詩世界的 개척에 다시 없이 귀중한 시기였다. 이 점 뒤에 귀양간 丁若鏞과 全正禧의 경우와 같다 하겠다.

소재는 귀양가던 해에 「甲辰書筵講義」를 修正하는 작업을 했다. 世子侍講院에서 강의 하던 강의록이었다.

1548년(명종 3) 沃州(珍島) 귀양살이 하는 소재에 연이어 슬픈 소식이 들어왔다. 봄에 忠定公 權權이 朔州의 謫所에서 별세한 부음이었다. 權公은 소재와 같이 乙巳士禍를 입어 求禮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朔州에 移配되었던 것이다. 선생은 權公의 죽음을 애도하는 詩를 지었다. 겨울에는 師傅요 장인인 癡叟 李延慶의 시거였다. 탄수는 소재와 같이 응저간에 乙巳士禍를 입어 파직되었던 것이다. 귀양사는 죄인의 몸으로 장례식에 참석치 못하고 영전에 吊哭하지 못하는 소재의 심경은 아찔다. 소재는 泣血의 挽詞 3首를 짓고 杜甫의 同谷八韻을 본받아 詩八章을 지어 呼哭했다. 명종 4년 이듬해는 다시 귀양지에서 정다운 동서요 同門인 康舟川惟善이 忠州 誣告獄事로 원통하고 억울하게 杼死한 소식을 접하고 애도하는 詩를 지어 痛哭했다.

1551년(명종 6)에 『註解夙興寐箴』의 名著가 이루어졌다. 명종 7년에는 선생은 거처하는 3間 초가집을 지어 扁額을 蘇齋라 했다.<sup>37)</sup> 蘇는 병에서 蘇生한다는 뜻이니 노수신은 자기가 다시 소생하기를 갈구한 것이나. 소재는 이를 詩지어

營茅三間取一爲齋 輒扁曰蘇 蓋本朱子 所謂我讀我書如病得蘇云爾

朱子生知亞 區區自嗜書  
 盧生天稟下 兀兀儘遺珠  
 妄欲窺孤窻 誰能盡五車  
 游焉志不舍 幸耳病如蘇<sup>38)</sup>

초가집 세칸을 지어 한칸을 齋로 하여 바로 현판을 달아 蘇齋라 했다. 이것은 본시 朱子가 내가 내 책을 읽으니 병이 낫는 것 같다 운운하는 것을 말한 바다.

37) 盧守愼의 號 蘇齋의 蘇字는 世間에 蘇와 蘇의 兩說이 있다. 蘇齋의 後孫들은 蘇를 固守하고 있다. 蘇齋文集도 蘇齋先生文集이라고 刻板했다. 鵝溪 李山海가 撰하고 書한 蘇齋의 祖父 珩의 神道碑에 蘇齋先生의 祖父라는 글에 蘇字로 쓰여 있고 朴承任이 撰하고 石峯 韓護가 書하고 金應南이 篆한 소재의 아버지 鴻의 神道碑에 蘇齋先生의 父라는 글이 있는데 蘇字로 쓰여 있다. 이 두 비는 政宗이던 蘇齋가 相公으로 있을 때 부탁하여 소재가 세운 것으로 이는 蘇齋의 號字를 틀릴 理가 없다. 일국의 相公의 號를 잘못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또 蘇齋 자신이 세운 것으로 틀릴리가 없다. 그러나 後孫의 손으로 된 族譜 文集에는 이 字를 蘇로 바꿔 쓰고 있다. 그리고 노수신이 珍島에 있을 때 如病得蘇란 뜻으로 蘇라 했으니 병이 낫는다는 뜻의 蘇는 蘇字가 아니고 蘇字야만 된다. 그리고 諸 國家의 史籍에도 蘇齋라 쓰여 있다. 그러므로 蘇齋라 해야 만이 옳다고 본다. 佛經엔 蘇生이란 蘇字를 蘇字로 썼다. 그러니 蘇나 蘇나 같은 뜻이다. 그러니 지금의 蘇와 蘇자의 뜻이 다르니 蘇로 쓰여 옳다.

38) 「蘇齋先生年譜」, 『蘇齋集』 卷.

朱子야 생이지지에 가까워도  
 부지런히 책읽기를 즐겼는데  
 노수신은 하늘로부터 받은 재주  
 고고하게 멋대로 구슬같은 글을 지었다.  
 주책없이 되로운 명어를 엮볼려고  
 그 뒤라서 다섯 수레의 책을 다 읽으리  
 놀아도 그 뜻 버리지 않거니  
 형여 병이 날을까나.

明宗 10년, 선생 41살 되는 해에 「註解字訓」과 「童蒙須知」를 지어 二從子에 보냈다. 소재는 조카의 교육을 멀리서 걱정했다. 이 해에 왜구가 호남일대에 침략하여 진도에 침략함에, 소재는 왜구를 피하여 光州에 갔다가 왜구가 물러감에 다시 진도에 돌아왔다. 이 때 「避寇行錄」을 썼다. 명종 11년 소재는 謫所에서 옛 湖堂에서 같이 글읽던 당대의 名儒요 乙巴士稱 후에는 사직하고 전라도 고향에 내려가 학문에만 정진하던 河西 金麟厚와 詩를 교환하면서 除夜에는 감회가 슬퍼 눈물의 글을 지어 보냈다. 明宗 13년에 소재는 退溪 李滉과 「夙興夜箴解」에 관한 서로의 견해를 論하는 편지를 주고 받았다. 明宗 14년에 소재는 「人心道心辨」을 저술했다. 여기서 유학자로서 소재는 一家를 이루는 것이다. 소재는 李滉에 詩를 지어 보냈다. 퇴계와의 우의는 일생동안 변치 않았다. 명종 15년에 李滉은 재차 편지로 소재의 「夙興夜寐箴解」에 대하여 論評했다. 이 해에 河西 金麟厚의 부음을 듣고 애도의 시를 짓고 哭河西二十韻을 지어 통곡했다. 이듬해엔 소재의 「人心道心」을 論駁하는 一齊 李恒의 편지를 받고 답서를 보내고 그리는 詩를 보냈다. 1562년(명종 17) 蘇齋는 당대의 名儒碩學들과 학문논쟁을 하면서 流配地에서 계속 편지와 저술에 힘써 이 해에 「執中說」을 지었다. 명종 18년엔 金啓과 玉溪 盧蘊과 人心道心 논쟁의 書信을 왕복했다. 명종 19년엔 羅士標, 全千鎰과 「人心道心」을 論하는 書札을 교환했다. 이 해에 명종의 배려로 槐山에 移配했다. 이 때 선생은 올라오는 도중에 泰仁으로 一齊 李恒先生을 방문했다. 또 尙州 化寧으로 아버지를 찾아 뵈었다. 이 때 어미는 漢城에 계서 괴산에 모셔 와서 극진히 봉양했다. 이듬해 괴산에서 司成 尹澍와 費隱을 論하는 편지를 주고 받았고, 名儒 大谷 成運에 詩를 지어 보냈다. 珍島(沃州) 유배생활은 소재의 문학의 완숙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그리움과 고독과 체념과 울분과 억울을 기로 읊었으니 沃州 二千韻을 위시하여 精金美珠 같은 시편이 많이 양산됐다.

1567년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하자 大臣 李滉慶 등의 건의에 의하여 장장 19년 간의 유배생활에서 해방되게 되었다. 소재는 아직 방면되기 전에 이 해 괴산서 退溪 李滉에 시를 지어 보냈다. 이 때 퇴계는 선조의 부름을 받고 忠州를 지나는 것이었다. 이 오랜 귀양살이는 소재에 학문의 연찬과 저술의 기회를 주어 소재의 학문이 大成되었고 그의 인격형성에 크게 작용했다.



소재는 귀양살이의 감회를 기로 읊었다. 그의 律詩에서 소재의 감회를 읽을 수 있다.

歲落賦題

天地之東國以南 沃州城外數間庵  
 有難赦罪難醫病 爲不忠臣不孝男  
 客月三千四百幸 生年乙亥丙辰慙  
 汝盧守慎如無醉 補得公私底事堪

천지의 동쪽나라 그 남쪽  
 沃州城밖에 두세간 초가집  
 용서받기 어려운 죄와  
 고치기 어려운 병만 가진  
 不忠한 신하와 不孝한 자식이 되었네  
 귀양살이 3천 4백날 다행이런만  
 나서 지나온 해 乙亥에서 丙辰년이 부끄럽기만 하네  
 너 노수신아 만약 취하지 않는다면  
 공이나 私 무엇으로 도아 감당하리.

除夜泣書

新舊歲爲丙辰丁巳而兩先生年遇之感悶涕泣情發乎言

神鬼無終始 龍蛇有舊新  
 知年懼孝子 夢歲起賢人  
 鷄送高堂曉 筮生絕戊春  
 明朝鏡中色 勳業不關身

게야에 울면서 쓰노라  
 새 해와 묵은 해 丙辰년이 가고 丁巳년이 되건만 두 늙은이 해맞는 감회 괴로워 눈물 흘려  
 정이 넘쳐 말이 되었네.

귀신이야 처음도 끝도 없지만  
 웅과 뱀은 새 것과 묵은 것이 있대요.  
 나이를 아니 효자가 두렵고  
 세월을 꿈꾸니 어진 이를 일어나게 하네.  
 닭은 울어 높은 집에 새벽을 보내고  
 피리 불어 끊인 봄을 되살아나게 하네.  
 내일 아침 거울속 형색  
 勳業 이사 상관없는 몸이리.

이 詩篇 위에 소재는 귀양살이 하는 그의 심경을 담았다. 不世出의 天才 소재의 진도 귀양살이는 그의 驥足을 펴지 못하는 인간으로서의 일울 불만 그리고 암담한 절망과 원망과 비애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詩酒로 회포를 달래기도 했다. 그리고 효자로서 어머니를 모시기 못하는 지통한 마음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내외간의 금슬도 얼마나 그리웠으랴만 소재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주옥같은 詩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여 그의 儒學으로 大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이에서 유배의 의의를

찾게 된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이 궁벽한 곳에서 귀양살이 하던서 그의 몸은 쇠약할대로 쇠약하고 병든 파리한 몸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방던되어 선조가 直提學으로 임명했을 때 사직을 청하는 상소문에,

신이 蒲柳같이 일찍 쇠약하였으되 癘癘의 독이 쌓여 생각하는 것이 올름대고 황금하여 안에서 허하고 밖에서 패하여 잘 보지도 못하오며 왼쪽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잘 듣기도 못하오며 한쪽에서는 고름이 나옵니다. 전부터 기침과 혈기증이 있고, 갑자기 심강과 배에 고통이 있어 알뒤에서 볼드고 끌고 하며 바람과 눈을 무릅쓰고 범하면서 대렬에 나와 숙백하는 데 거의 끊어졌다가 다시 숨쉬었고 入侍하였다가 문으로 나오는 데 쓰러질 뻔하다가 행하였습니다.<sup>39)</sup>

고 하는 것을 볼 때, 소재의 쇠약한 건강상태를 짐작할 만하다.

## 7. 黨 爭

### 7. 東西朋黨과 蘇齋

詮郎 추천 문제로 沈義謙과 金孝元 사이에 갈라지기 시작한 朋黨은 이를 예견하고 거정한 領中樞府事 李浚慶이 임종시에 宣祖께 올린 遺劄 四條에서

四曰, 朋堂의 私를 깨 없애야 합니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몸에 허물이 없고 擧事에 틀림이 없더라도 한다디만 맞지 않으면 이를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行檢을 닦으려 않고 독서를 힘쓰지 않고 高談大言으로 朋比를 지어 심한 허위의 풍조를 이루었습니다. . . 이것은 전하께서 공정히 들으시고 살펴서 이 폐단을 제거하시는데 힘쓰실 시기입니다. 신은 간절히 충성을 다하여 죽음에 다다라 올립니다.<sup>40)</sup>

고 했다. 이와 같은 李浚慶의 유언은 엄청난 과문을 일으켰다. 선조는 大臣을 불러 朋黨의 조짐을 추궁했다. 그러나 大臣들은 이에 명백히 대답치 못했다. 이에 外戚 沈義謙 측에서는 이것이 자기베를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준경을 맹렬히 공격했다. 심의결의 추천을 받은 人士들이 三司에 직잡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와도 관계 되었으므로 三司 즉 弘文館, 司憲府, 司諫院에서는 이를 평지중과를 일으켜 士林의 禍를 일으키려는 망언이라고 맹렬히 공격하여 追奪官職하자고 주장했다.

심의결은 외척이지만 外戚으로 횡포와 위세를 떨치던 李樛를 숙청하여 외척정치를 배제하고 士林을 보호하여 일으킨 공이 있어 널리 士林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保守老成의 元老大臣인 이준경과 新進氣銳한 진보적 개혁주의자인 李珥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준경의 보수노선은 진보적인 奇大升, 李珥 등의 공격을 받아 왔다. 이에 李珥는 맹렬히 반박하여 일어났다. 지금 朋黨은 있지도 않고 小人이 있다 해도 무리를 짓지 못한다. 오직 우국봉공하는 인사들에 公論이 일고 있어 이를 가리킨 것이니 이는 小人들이 나와서 이간을 불어 己卯士禍가 다시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의 유명한

39) 李肯翊, 『燃藜室記述』 第18卷 宣祖朝記事本末.

40) 『東臯遺稿』.

人之將死其言善 鳥之將死其聲哀 東臯之將死其言惡.

이라고까지 신랄하게 매도했다. 그러나 4년 뒤에 乙亥의 당쟁이 벌어지고 말았다. 修撰 柳成龍은 주장하기를 大臣의 임종에 올린 말이 不富한 것이 있다면 변명하면 그만이요, 罪를 주자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金孝元과 李茂慶을 편드는 사람과 沈義謙, 李珣을 편드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乙亥黨爭으로 조정은 두 당으로 兩分되었으니, 獄事를 두고 西人 朴淳, 鄭澈, 李俊白, 金繼輝와 東人 許晔, 鄭宗榮, 朴謹元 등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東人黨은 김효원이 漢城 京東의 乾川洞에 살고 심의겸이 京西 貞陵坊에 살아 西人이라 칭하게 되었다.

<東人黨>

金孝元, 許晔, 柳成龍, 禹性傳, 金誠一, 鄭述, 鄭惟吉, 鄭芝衍, 金宇頤, 南以恭, 崔永慶, 鄭仁弘, 李山海, 李潑, 朴謹元, 宋應溉, 鄭汝立, 許筠, 金貴榮, 李陽元, 李元翼, 柳永慶, 奇自獻, 李德馨, 洪汝諄, 李爾瞻, 李誠中.

<西人黨>

沈義謙, 朴淳, 尹斗壽, 鄭澈, 尹根壽, 柳希奮, 成潭, 奇大升, 李俊白, 南彥經, 洪聖民, 金繼輝, 宋翼弼, 趙憲, 黃慎, 安邦俊, 高敬命, 黃廷彧, 尹晔, 李海壽.

이와 같이 당쟁이 치열하자 당시 右相으로 있던 노수신은 당쟁을 조정·수습하려고 노력했다. 1574년 宣祖 8년 副提學 李珣의 進言을 받아들였다. 이이는 당쟁 장본인인 沈·李 두 사람을 外職으로 내보내어 조정의 浮言을 없애 당쟁을 없애 주기를 노수신에 청했다. 이에 노수신은 선조에 말하여 두 사람을 外職으로 내보내기를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노수신과 李珣의 건의를 받아 들여 선조는 일방적으로 김효원을 경흥부사로 심의겸을 개성유수로 발령내렸다. 선조는 심의겸을 우대 옹호하고 김효원을 배척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蘇齋와 李珣는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東人들은 국왕이 西人 편을 든 것으로 받아 들여 매우 충격을 받았고 노수신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에 노수신과 이이는 다시 국왕께 건의하여 먼 변방의 慶興보다 가까운 三陟府使로 바꾸도록 했다. 그러나 결국 金孝元이 外職으로 배척된 것으로 받아들여 불평불만이였다.

그러나 西人 쪽에서는 노수신이 東西人黨에 不偏不黨의 人士로 받아 들였으나 金孝元에 대한 배려와 들을 外職으로 내보낸 데 대하여 西人들은 노수신을 東人으로 몰아부쳐 공격했다. 이에 울곡 이이는 이를 간극히 만류했다. 이와 같은 이이의 태도도 서인의 불만을 가서 증격 받았다. 西人의 李海壽와 鄭澈은 金孝元을 小人이라고 매도하여 맹렬히 공격함에 이이는 이를 극력 옹호했으며 대사간 홍성민이 김효원의 친구인 李誠中을 탄핵함에 이이는 절연히 사직하고 漢城을 떠났다. 이이의 당쟁조정은 이에 실패하고 말았고, 이이와 함께 당쟁을 없애려 한 노수신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1583년(선조 17) 癸未年에 東人의 都承旨 朴謹元, 典翰 許晔, 大司諫 宋應溉 등이 李

珥를 맹렬하게 공격, 탄핵하고 三司의 공격을 받아, 이이는 선조의 만류를 뿌리치고 兵曹判書를 사직하고 조정을 떠났다. 이후 울곡은 坡州로 내려갔다가 병사했다. 영의정 朴淳과 成渾도 三司의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났다.

이에 노수신이 朴淳에 대신하여 영의정이 되었고 李山海가 吏曹判書, 柳成龍이 예조판서가 되니 조정의 오직은 東人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당쟁은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 李珥·成渾을 옹호하는 무리들은 西人이 되고, 이를 배척 공격하는 측은 東人이 되었다.

東人이 득세하여 집권하게 되니 다시 서로 노선을 달리하는 두파로 나누어지게 되니 이를 南人·北人이라 한다. 禹性傳은 南山밑에 살고 李山海는 洛北에 살고 柳成龍은 영남인이요, 李潑은 北岳 밑에 살아 禹性傳, 柳成龍을 南人 李山海·李潑을 北人이라 했다.

南人黨은

禹性傳, 柳成龍, 李德馨, 李元翼, 金誠一, 李敬中, 鄭述, 鄭琢, 李垓, 鄭經世, 李晔光, 金宇顥, 李敏述, 李誠中, 張顯光이며,

北人黨은

李山海, 李潑, 鄭仁弘, 崔永慶, 鄭汝立, 李爾瞻, 洪汝諄, 朴汝樸, 南以恭, 奇自獻, 柳永慶, 朴承宗, 柳希奮, 許筠.

등이었다. 南人은 이황의 문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北人은 조식의 문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는 것이 특색이었다. 이와 같은 東人의 南人, 北人의 세력들도 그 세력이 얼마가지 못했다. 선조 22년 정여립의 謀逆事件으로 급전직하 몰락하고 말았다.

#### L. 鄭汝立의 謀逆 獄事

1589년(선조 23) 己丑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자 선조는 그토록 신임하고 아끼던 노수신을 파직시키고 말았다. 선조는 大怒하여

傳于大臣曰領中樞盧守愼 甲申年在政院承命薦賢士 乃以金宇顥李潑白惟讓鄭汝立薦之 披見此薦不覺髮豎 自古有如此大臣乎 此卿予素優待 而興亡所係 予不得掩覆 大臣以朝廷公論處置<sup>41)</sup>

라 했다. 즉 선조는 大臣들에 전하여 말하길 領中樞府事 노수신은 甲申年(1584년 선조 18년)에 政院에 있을 때 어진 선비를 추천하라는 명을 받고는 김우옹, 이발, 백유양, 정여립을 천거했다. 그때 추천한 기록을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쭈뼛해진다. 옛부터 이와 같은 大臣이 있는가. 이 사람을 내가 평소애 우대했는데 나라의 흥망에 관계되는 것이니 나도 덮어둘 수 없노라. 大臣들은 조정의 공론으로 처치하라고 했다. 이에 대간들이 탄핵하고 나섬에 노수신은 파직되었다.

鄭汝立의 亂은 東·西 당쟁에 엄청난 회오리 피바람을 몰고 온 모역사건, 옥사사건이었다. 정여립은 재주가 출중하고 성격이 웅망하며 언변이 좋고 통솔력이 뛰어나고 經史와 諸子百家에 통달했다. 명종 22년에는 進士, 선조 3년에는 文科에 급제하고 울곡 이

41) 『宣祖大王實錄』 卷 24 宣祖 23年 3月己未條.

이와 牛溪 成渾의 문하에 들어 스승의 사랑을 받아 이이의 천거로 禮曹佐郎, 弘文館修撰이 되었다. 평소 이이를 숭앙하였으나 이이가 죽고 西人이 쇠퇴하고 東人이 득세하자 東人에 붙어 李滉과 가까이 하고 죽은 李珣를 배반하고 成渾, 朴淳, 鄭澈을 비방하고 對西人 강경책을 주장했다. 이에 宣祖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여립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 全州로 내려갔다. 여러번 조정에서 기용하기를 제청했으나 선조는 끝내 듣지 않았다. 이에 정여립은 선조에 대하여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는 제자를 모아 가르치고 많은 선비들과 교제하여 聲望이 높았다. 이에 그는 鎭安·竹島에 서당을 열어 신분을 차별치 않고 人材를 모아 학문을 가르치고 大同契를 조직하여 무술을 훈련시켰다. 그때 全州府尹 南彥經의 요청으로 大同契員을 이끌고 변경에 침입한 倭寇를 격퇴하자 그의 명성과 위세는 호남에 떨치게 되고 大同契를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그는 林巨正의 활동 무대였던 황해도에 가서 安岳의 朴延齡, 邊崇福, 海州의 池涵斗와 雲峰의 僧義衍, 羅州의 吉三峰 등 不良輩, 奇人, 謀士를 끌어 모아 정감록의 비결 참설을 이용하고 異跡을 조작, 선동하여 민심을 현혹시켜 鄭氏의 등장을 예언했다. 1589년(선조 22) 좋지 않은 소문과 유언비어가 퍼지고 비밀이 누설되자 한강 결빙을 이용, 황해도와 호남에서 거병, 서울에 일시에 진공하여 궁궐을 범하려 했다고 安岳郡守 李軸, 載寧郡守 朴忠侃, 信川郡守 韓應寅 등이 황해감사 韓準을 통하여 告變했다. 이에 관련자들이 체포처형되니 정여립은 아들 鄭玉男과 진안 죽도로 도망해 들어 갔다. 관군의 포위 공격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東人을 숙청하려는 西人들의 조작 무고의 흉계란 설이 강하다.

선조는 정여립의 모반 고변을 받고 大臣을 불러 물으니 左相 李山海, 右相 鄭彥信의 大臣과 李滉, 白惟讓 등이 정여립을 두둔하고 고변은 이이의 문인들의 짓이라 했다. 처음 右相 鄭彥信이 이 獄事를 다스릴 委官이 되었다. 그러나 정철의 사주를 받은 매간들이 역적(정여립)의 9寸親이라 不可하다고 탄핵받아 사직하여 물러났다.

이에 정철이 右相에 大拜되어 委官이 됨에 참혹한 己丑 大獄事가 일어났다. 정철은 가혹하게도 정적인 東人에 대숙청을 단행했다. 李滉, 李浩, 崔永慶, 白惟讓, 鄭彥信, 鄭介淸, 鄭彥智, 柳夢井 등 많은 人士를 죽이고 이 옥사는 2년을 끌어 東人 1000여인이 화를 입었다. 이때 蘇齋는 鄭汝立, 李滉의 黨으로 몰려 과직되었다. 이때 정여립, 이발의 黨人으로서 지목된 人士는 모두 숙청되었으니 金宇顙, 金宇宏 형제, 閔純, 洪可臣 등이었고 鄭澈黨은 平亂의 功으로 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 1等에 商山君 朴忠侃 完山府院君 李軸 淸平府院君 韓應寅 2等에 驪陽君 閔仁伯 淸川君 韓準 南溪君 李綏 金陵君 趙球 宜侯君 南巖 上洛府院君 金貴榮 始寧府院君 柳埶 杞城府院君 兪泓 寅城府院君 鄭澈 鵝城府院君 李山海 益城君 洪聖民 全城君 李準 3等에 完山府院君 李憲國 海州府院君 崔湜 慶林府院君 金命元 鵝州君 李增 鰲城府院君 李恒福 晉興君 姜紳 廣林君 李廷立 등이 있다.

8. 孝子 蘇齋

노수신은 효자로 이름난 선비였다. 소재의 효자상은 李肯翊이 『연려실기술』에서

蘇齋色養悅親無不用極 仕退還家 着短衣入厨舍 躬執爨具 甘滑以進 雖至達官末嘗廢也<sup>42)</sup>

라고 그의 효행을 극찬했다. 소재는 부모를 봉양함에 양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조정에서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짧은 옷을 입고 부엌에 들어 가서 손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바쳤다. 이와 같은 그의 효행은 고관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宣祖 元年 蘇齋는 大臣 李浚慶 등의 건의에 의하여 19년간의 귀양살이에서 석방되어 即日에 弘文館 校理를 除授받았다. 그러나 두 달 후 소재는 부친의 병을 아뢰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宣祖 2년 2월에 선조는 소재에게 選京을 개촉하여 3월에 弘文館直提學兼 藝文館應教를 특별히 임명했다. 그러나 소재는 한달 뒤에 양친을 봉양하기 위해 解職의 疏를 올렸다. 노수신은 「臣의 아버올해 년세 73살, 여위고 늙어 노환이 대단하며 어머니 올해 72살 걱정과 노고로 병을 얻어 숨이 차나이다. 臣이 귀양살이 할 때는 어찌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외람되어 영달하여 몇달째 봉양을 못했다」며 「가서 아버이를 봉양하다 죽어 아버이와 함께 九泉에 가기를 바란다.」고 재차 간곡히 상소했다.

이에 선조는 이 상소를 받아 보고 解職을 간청하여 봉양하겠다는 정성은 참으로 孝子라 아니 들어줄 수 없었다. 그러나 노수신은 學行이 뛰어난 내 바야흐로 어진 이를 얻어 함께 훌륭한 정치를 이루고 싶은데 지근 들어주면 나는 賢者를 잃게 되니 어찌면 좋겠는가고 大臣들에게 물었다.

영의정 李浚慶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이제 殿下의 학문이 날로 진보하고 經筵이 바야흐로 긴요하운데 이와 같은 學問人은 구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을 보내지 말고 그의 아버이를 서울로 모셔와서 봉양토록 하면 근심없이 오로지 進講의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에 선조는 그에게 내려 가서 아버이를 받들어 모시고 오도록 하였다.

소재가 고향에 돌아가서 보니 아버이의 병이 중한 지라 모시고 올 수가 없었다. 6월에 조정에 돌아오에 선조는 副提學 7월엔 大司諫을 제수했으나 소재는 다시 아버이의 看病奉養을 위하여 간곡한 解職歸鄉 상소를 올렸으나 선조는 허락치 않고 말미를 주어 下鄉케 했다. 9월에 上箋과 狀啓를 올려 辭職 歸養老親을 간청하니 소재의 간절한 마음과 뛰어난 효성과 딱한 사정을 보고 감동하여 놓아 주기 않을 수 없어 大臣 李浚慶에게 물어 보았다. 그도 딱한 소재의 정황을 어쩔수 없어 進言하니 선조는 준경의 진어대로 달하길

「經幄 講論이 참으로 급하기 기갈과 같으나 그때의 딱한 사정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42) 『燃藜室記述』 第18卷 宣祖朝記事本末宣祖朝 相臣盧守愼.

本職을 바꿔 가까운 고을원을 주어 어버이 봉양에 편케 하노라」

하고 淸州牧使를 제수하고 10월에 上京하여 謝恩하니, 다시 忠淸道 觀察使에 임명했다. 장차 임지에 부임하려고 하는데 부친의 상을 당하였다. 그래서 급히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다. 이때 서울에 있던 이황이 달려 와서 喪事를 같이 의논하고 城門까지 전송했다. 선조 3년에 소재 55세 正月에 부친을 상주 遠川先塋에 장사지냈다. 이때 孝子 소재는 너무도 슬퍼하고 통곡하고 상례를 극진히하여 병이 나서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관찰사 鄭惟吉이 국왕께 이 사실을 보고했다. 선조는 놀라 內醫를 급파하여 소재의 병을 치료토록 했다.

선조 5년 正月에 소재는 文公家禮에 의거, 3년상을 마쳤다. 선조는 그에게 大司諫을 제수했으나 나아가지 않자 2월에 다시 불러 서울에 들어가서는 謝恩하고 면직하고 돌아가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이를 허락하지 않고 다시 大司憲에 임명했다. 비변이나 사직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간곡한 상소를 올렸다.

宣祖 5年 3월에 국왕은 소재에게 노모를 모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忠과 孝를 함께 다 하라고 명하여 노수진을 내려보내고 경상도에 명하여 驛軍을 내어 그 모친을 호송하도록 명했다. 그리하여 소재는 4월에 어미를 모시고 서울에 돌아왔다.

宣祖 6年엔 국왕이 모부인께 米豆酒肉을 내려 위로했다. 선생 67歲인 宣祖 9年 8월 19일에 모친이 병환으로 누우시고 9월에 상을 당했다. 선조는 承旨를 보내어 조의를 표하고 부조를 보내고 가는 길에 상어를 호송하기를 명하고 상두군을 공급하기를 경상도에 명했다. 선조는 10월에 고향 상주로 운구할 때 발인일에 承旨를 보내어 소재가 춥지 않게 방한복과 雨衣와 藥을 보내었다. 그리고 소재의 건강을 염려하여 內醫를 수행케 했다. 소재는 선조의 성은에 감읍했다.

선조는 承旨를 보내어 宣敎하기를

나의 不敏으로써 卿을 힘입어 國事를 다스렸더니 뜻밖에도 千里의 먼거리에서 大故를 당했으니 내가 마음을 잡지 못하겠다. 卿의 一身은 나 한사람의 의퇴함이 아니고 만백성의 死活이 매인 바이다. 可히 匹夫와 같이 哀毀가 禮制에 넘쳐서 위로는 나의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는 民望을 갖하지 못할 지니 卿은 哀痛을 걱절히 하여 끝내 孝誠하다.

했다. 11월에 先塋에 장사지냈다. 소재는 산소에 廬墓 살며 孝子로 울고 슬퍼함이 지나쳐 병을 얻고 말았다. 장사를 치르고 上京하여 선조께 사은 숙배하고 상소를 올리고 내려올 때 선조는 內醫를 시켜 약을 들고 호송케 했다. 고향에 내려와 정성껏 3년상을 살고 있었다. 선조는 또다시 命하기를 侍墓를 하지 말고 봄이 되거든 서울로 返魂해서 나의 뜻에 副應하라 했다. 그러나 소재가 墓下에 廬幕 살며 哀毀를 지나쳐 生命을 보전키 어렵다는 監司의 보고에 놀라 御醫를 보내어 救命케 하고 承旨를 보내어 宣敎하기를

「禮는 맞도록 함이 貴한 일이며, 生命을 滅하는 것은 孝道가 아니다. 내가 들으니 卿의 執喪

이 禮에 지나쳐 몸이 상하고 야위어서 병이 되었다 함으로 이에 近臣을 보내어 卿이 權度에 따르라 권하노라.]」

하시고 소재의 子弟들에게 諭示하여

「듣건대 每夜 墓所에 올라가서 호곡한다 하니 금후로는 나의 뜻을 말해서 그만 그치도록 하라.」

하셨다. 선조의 서울 返魂하라는 거듭되는 下書에 소재는 几筵을 피시고 漢城에 들어와서 中門 밖 험박한 곳에 겨우 한사람이 용납할만한 여탁을 짓고 엄동설한과 삼복혹서에 도 居喪하여 한번도 문밖에 나오지 않아 사람들이 소재를 보지 못했고 王이 여러번 건강을 염려하여 承旨를 보내어 肉食을 권했으나 끝내 蔬衣薄食을 지켰다.

소재는 右議政으로 大拜된 후에도 18번이나 신병을 청탁하고 사직귀향 양친의 상소를 올렸다. 이에 내린 批答에서 선조는

大臣이란 한 사람을 보필하여 庶政을 揆度하는 위치에 있으니 그 能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지라 가이 쉽게 못하는 것이다. 卿은 덕이 있고 善行이 있고 學識이 있고 才調가 있는 지라 지금 이같이 걱정되는 일이 많은 즈음에 어찌 이다지 간곡히 사퇴하려는가. 自古로 君主를 버리고 국가를 버리고 가이 효도하는 자가 있었는가. 前日의 체직은 장차 우선 경의 마음을 위로 할 뿐이었으며,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정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응치 않음이 없나니 내가 卿의 出仕를 바램이 이같이니 卿의 병은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나오리라.<sup>43)</sup>

고 했다. 소재의 養親과 身病을 가탁한 사직을 이같이 간절히 달렸다.

소재의 孝行은 당대의 귀감일 뿐 아니라 百世의 師表로 길이 남을 것이다. 일국의 재상의 지위에 올라서도 어린애처럼 식모처럼 어머니를 봉양한 그의 효성은 놀랄만한 것이다.

우리는 소재의 孝友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소재는 밑에 아우 克愼을 지극히 사랑하여 형제간의 友愛 또한 출중했다. 그의 문집에는 아우에 제주는 글이 적지 않고 간절 돈독한 혈육의 정을 물씬 느끼게 하는데 감동치 않을 수 없다. 이 같이 소재는 孝友 慈愛로운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

### 9. 政治人 蘇齋의 評價

소재는 能文博通의 文學 宰相이요 선비 政丞이었다. 그리고 선생은 大政治家로서의 偉大한 經綸과 改革의 의지와 역량을 회포하고 있었다. 소재가 當朝했던 시대는 조선 왕조의 문물이 난숙하여 百家齊放하고 百花爛漫하던 조선조의 황금시대인 소위 穆陵盛際였다. 이와 같은 번영의 그늘에는 封建王朝의 제반 모순이 들어나기 시작하고 士禍후의 黨爭이 熾盛하던 때요 壬辰倭亂이란 未曾有의 대전란이 밀어 닥치기 직전이었다.

이 暗雲低空의 시대에 소재는 首相에 올라갔으나 生은 이미 老衰했고 珍島의 귀양살

43) 위의 책, 「蘇齋先生年譜」.



이에서 얻은 持病으로 고통받고 계속 사직을 간청했던 때였다. 그 때문에 소재는 風塵세상을 떠나 江湖에 들어가 學問을 연구하고 後學을 교육하고 吟風詠月이나하고 養親育子나할 생각 뿐이었다. 그래서 正卿時부터 계속 즐기차게 사퇴귀향을 간청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아무리 능력 있는 정치가라도 그의 경륜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시기였다. 그리고 소재의 원만하고 정중하고 온건한 성품이 그의 정치에 잘 나타나서 무리와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

이승익은 『연려실기술』에서 소개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李珥(栗谷)가 入侍할 때마다 많은 말을 아뢰었다. 금(소재)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李珥가 經筵에서 임금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많이 말하는데 일이 생길 것이 두려워 내가 말리고자 하나 서로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했다. 李珥가 이를 듣고 웃으며 “내가 물러가던 말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蘇齋는 걱정할 것 없다. 이미 스스로 말하기 못하고 남의 말까지 듣는다면, 평소에 글을 읽은 사람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같이 하는가”하였다. 韓修가 말하기를 “소재는 글만 능할 뿐 아니라 또 技藝도 있는데 정승의 재주는 지극히 졸렬하니 이상한 일이다.”하니 李珥가 말하기를 “相才를 기예로 볼 수는 없다. 古人은 험한 지경을 밟을수록 氣節이 더욱 돈독하였는데 蘇齋는 그렇지 않다. 20년을 謫所에서 고생한 나머지 기절이 다 녹아 버렸다”<sup>44)</sup>

라고 소재의 조심스럽고 원만 정중한 立朝태도를 평했다. 李珥는 改革의 의지와 경륜을 가지고 기개있게 군왕을 간하고 설득했었다. 그 때문에 李珥는 정승의 반열에 오르지도 못했고 東人들에게 선랄한 공격도 받았고 내치기기도 당했다. 그러나 소재의 원만 온건한 정치적 행세는 人臣을 極하는 一人之下 萬人之上에 오를수도 있었다.

나는 여기서 德溪 吳健의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南冥 曹植의 葬禮 절차를 논의할 때 모인 선비가 數百人이었는데 吳德溪健이 吏曹正郎으로 門人의 首로 東郊에 서고 崔徵士 永慶이 다음에 섰다. 題主의 衣服 문제로 鄭寒岡述 金東岡宇顛 鄭來庵仁弘은 素服을 주장하고 나머지 人士들은 吉服을 주장하여 兩說이 맞서 오랫동안 결정치 못했다.

이에 弊衣敝笠으로 西便에 섰던 李濟臣이 손을 번쩍 들고 나오며 하는 말이 “吳正郎은 先生의 高弟요 位望도 가볍지 않고 朝廷大事까지 參決하는 사람이니 마땅히 한마디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함에 德溪는 신중히 사양하고 결정을 못내리고 검양함에 이제 신이 正色하여 큰 소리로 “이것이 足下가 銓曹에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이로다”고 했다.<sup>45)</sup>

그와 같은 李濟臣의 말은 당시 조선 政界에 있어서 朝士官員의 처신의 철학이었다. 退溪李滉이 죽자 나라의 重望은 巨儒오 文學宰相이던 君子 盧守愼에 있었다. 그러나 宣祖는 그에게 특별한 恩寵만을 加하고 정승의 벼슬을 주었으나 國事를 같이 다스릴 생각이 없었다. 소재 또한 지난 세월의 禍를 징계하여 다기는 道를 행하는 것으로서 自任하지

44) 위의 책.

45) 『南冥先生文集』卷6 師友錄 李教授.

46) 李肯翊『燃藜室記述』 앞의 章, 李珥『石潭日記』.

않았다. 그러나 國人은 오히려 賢人이 조정에 있다하고 의지하여 힘으로 삼았다.<sup>46)</sup>

소재는 이와 같이 온 국민의 願望을 한몸에 받고 우뚝하니 台座에 앉아만 있어도 든든하였고, 백성들의 정신적인 支柱가 되었었다. 栗谷 李珥는 이와 같은 소재의 사실을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무인년에 소재가 정승에서 갈렸다. 李山海가 李珥에게 묻기를 “소재가 정승에서 갈리는 것이 時事에 관계가 있을까 하니 李珥는 “소재가 건의하여 시행한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부족하게 여기지만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비록 뛰어난 인재로 하여금 정승자리에 있게 하더라도 어찌 할 도리가 있겠는가 工匠에 비유하던 소재는 손끝을 맞잡고 空食하는 사람이다. 비록 이익은 없으나 또한 해도 없다. 기와를 려물어 뜨리고 벽에 흙을 만드는 자가 후임이 된다면 그 해가 어찌 적겠느냐.”<sup>47)</sup>

고 했다. 1577년(선조 11) 6월에 仁宗妃 恭懿王大妃가 왜병중에 선조에 柳灌 柳仁淑 尹任 桂林君璠의 職牒을 遷給해 주기를 청했다. 그때 선조가 大臣인 공에 물었다. 그러나 소재가 대신으로서 어물어물 말도 다하지 못하여 임금이 류관, 류인숙의 직첩만을 환급했다. 후자가 노수신에게 말하기를 “공이 젊었을때의 명망이 어떠했는가 이제 정승이 되어 별로 불만한 相業이 없었는데 요전에 대비가 尹任 璠의 복직을 청하여 왕이 대감에게 물었을 때 그 기회를 당하여 진언을 다했어야 옳았을 것인데 어름어름 대답하여 國是를 정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다른 정승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士林이 모두 불쾌하게 여기니 내 대감을 위하여 취하지 않은 바이다”하니 공이 대답하지 못하였다.<sup>48)</sup>

朴淳과 盧守愼이 함께 정승이 되어 수년간을 그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重望이 있었으나 세인들이 별로 그들의 불만한 건의와 업적이 없음을 결함으로 여겼다. 그러나 朴淳이 스스로 經世濟民의 역량이 부족함을 자인하고 오로지 어진 이를 천거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하는데 힘썼기 때문에 李珥 成渾을 극력 천거했다<sup>49)</sup>고 했다.

소재가 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서 『夙興夜寐箴解』를 선조에게 올리면서 立志할 것을 請하는 疏에서 君王의 立志를 강조하고 聖賢의 훈계를 좇아야 하고 仁賢한 德을 친해야하며 大學之道가 돌곳이 있게 되어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이 굳어져 齊家治國平天下가 이루어 진다고 했다. 立志할려던 깨우기를 좋아하고 진취하고 신비를 가까이하고 수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조에게 帝王의 德治의 道를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敬에 귀일한다했다.<sup>50)</sup>

소재가 父親喪中에 선조에게 올린 箴規語 6條는 그의 君王을 바르게 잡으려는 사상의 일단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국왕의 힘쓰는 일이 무엇인가를 걱정했고 시경에 힘썼다.

1. 訓解를 講討에만 힘쓰고 義理를 求함에 힘쓰기 않는 것.
2. 政事를 살리기에만 힘

47) 李珥『石潭日記』, 李肯翊 위 의 책.

48) 李珥『石潭日記』, 李肯翊, 앞의 책.

49) 『燃藜室記述』第18卷 宣祖朝記事本末 宣祖朝 相臣 朴淳.

50) 『蘇齋先生文集』卷8「請先立志疏」

쓰고 治道를 바로 세우에는 힘쓰기 않는 것. 3. 權柄을 잡기에만 힘쓰고 民心에 승할 것을 힘쓰지 않는 것. 4. 前例에 따르기만 힘쓰고 古義를 斷行하기에 힘쓰지 않는 것. 5. 아침하는 者를 좋아하고 正直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6. 才藝를 착하다 여기면서 器局과 學識이 있는 者를 重用하기에 힘쓰기 않는 것. 그래서 그는 宮池의 役事를 罷하도록 請하는 劄子를 올리기도 했다. 거기서 理와 欲을 논하여 欲心과 奢侈를 경계했다, 그는 인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국가 경비의 걸음을 주장했다.<sup>51)</sup>

蘇齋는 一言而蔽之하여 偉大한 政治家로서 公이 품고 있던 經世濟民의 經綸을 펴지 못한 不運한 시대의 불운한 정치가였다. 그는 관직이 首相에 올랐으나 그는 그의 名聲에 名實相符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당시의 時代相이 急激한 變革期가 아니었기 때문에 守成으로 만족할 때였다. 그러나 先見之明이 있는 유능한 정치가라면 未及에 닥칠 土朋之禍란 壬辰倭亂을 예견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 격렬하던 黨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昇平二百年의 타성과 안일에 젖은 君臣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비록 破天荒의 經綸과 先見之明이 있었어도 그 뜻은 펴지 못했을 것이다.

소재는 偉大한 儒學者였다. 당시 고루하고 폐쇄적인 朱子學界에서 陸王學을 연구하고 禪學을 연구한 소재는 당시의 性理學 일변도의 學者中에서는 鷄群一鶴의 참신한 儒者像이었고 그러한 先生의 正學의 바탕위에 儒敎的 王道政治를 부르짖은 哲人政治家였다. 宣祖를 堯舜으로 만들어 이상적인 哲人政治를 펼려고 노력한 정치가였다. 그리고 그는 人民을 사랑하고 淸貧을 신조로 살아간 淸白吏像의 정치가였다. 公이 首相으로서 當朝하고 있던 자체가 국가의 기둥이었고 人民의 支柱로 만민의 輿望을 받는 泰山北斗였다, 君王은 그를 믿고 정치를 맡길 수 있었고 백성은 公을 우러러 정부를 믿을 수 있었다. 이 점에서 蘇相은 萬鈞의 九鼎이었고, 四朝歷仕의 柱石之臣이요 政界의 大老였다. 우리는 조선왕조 중기의 偉大한 哲人首相으로서 蘇齋相國의 존재야말로 조선 政界의 異彩요 百世의 師表로 보는데 인색치 않는다.

## 10. 結 論

이르거 조선 중기의 巨人 소개 노수신을 考究한 것이 되겠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던 소재는 士林派에 속한 士類로 學問을 닦아 東國性理學의 道統淵源의 正統을 계승한 儒學者였다. 그는 『夙興夜寐箴解』란 名著로 당대 儒學界의 巨星이었다. 그는 당시 程朱學 一色의 斯文에서 陽明學과 禪學에 造詣가 있던 斬新한 儒家였다.

文學에 있어서 一代의 文豪로 이름을 떨쳤다. 世稱 湖蘇芝의 稱을 들던 三家中에서도 首位였다. 그의 詩는 杜詩를 法하여 당시 蔚然히 勃興하던 唐詩운동의 猛將이었다. 前後 首相을 같이 하던 朴淳思庵과 함께 唐詩운동을 주도했다. 李白을 따르던 朴淳과는

51) 위의책 「丁憂在郷疏」

달리 소재는 杜詩學派로 東國杜詩學의 巨匠이었다.

官界에 있어서 소재는 壯元及第 이후 벼슬길에 발을 디더 大司諫 大司憲 大提學 吏曹判書를 역임하여 右相 左相 領相에 이른 政界의 巨木이었다. 그는 穩健 慎重한 守成論者로 進步的 改革政治家像과는 멀었다. 이와 같은 소재의 政治사상은 당시 文物이 爛熟하던 宣祖 時代의 時代的 潮流에 부응한 그의 정치적 한계성을 나타낸 것이다. 소재는 哲人정치 王道정치 德治를 주장하는 哲人宰相이었다. 宣祖를 堯舜으로 만들려고 애썼고 人民을 사랑하고 국가 財用의 절약을 주장했고 모범적인 清白吏였다. 당시 그는 국가와 人民의 신망 존경받는 기둥이었다.

소재의 文學과 儒學은 20년간이라는 긴 流配 生活속에서 완숙되었다. 그 때문에 그의 文學은 暗鬱沈痛한 경향이 있었다. 稀世의 天才 詩人으로 波浪萬丈한 生活를 겪어 그의 詩世界는 多樣하고 變化無常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逆境을 克服하는 道人의 세계를 잘 나타내었다.

黨爭에 있어서 소재는 엄정 중립을 취했다. 栗谷 李珣와 손잡고 東西 黨쟁을 조정하여 없앨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東西 어느 쪽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東西 양당으로 부터 栗谷과 함께 공격 받았다. 두 사람의 엄정 중립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栗谷은 親西人으로 간주되고 蘇齋는 親東人으로 간주되었다. 西人은 栗谷의 학파가 주도했고 東人은 소재와의 學的 地闊的 인연이 얽혀 있었다. 결국 東人 鄭汝立을 친거한 책임을 물어 소재는 老年에 罷職을 당하는 不運을 겪고 東人 세력으로 간주되어 西人들에 의하여 肅淸당했다.

蘇齋는 조선 政界에서 唯一하게 首相으로서 詩宗 文豪요 道學 心學의 새 경지를 개척한 巨儒인 政·文·儒의 三個 桂冠을 쓴 文學的 儒家宰相이었다. 蘇齋에 겨눌 文學的 儒家宰相은 조선 500년에는 존재치 않았다. 이에 겨눌 宰相이 있다면 高麗의 文學的 儒家宰相이던 益齋 李齊賢이 있을 따름이다. 益齋 蘇齋의 二大雙壁의 본격적인 연구가 어렵다. 꼭 연구해야 할 民族史의 巨人이다. 이런 면에서 나의 이 蘇齋연구는 이 연구의 개척이 된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 方面 연구에 미진한 점을 두고 두고 보완코자 한다.

이로써 民族史의 巨人 蘇齋의 眞面目의 一端이 밝혀졌다면 이 논문을 계획한 所期의 목적에 다소나마 부합하게 될 것이다.

### III. 思 想

#### 1. 序 論

蘇齋 盧守愼은 中宗 10年(1515年)에 漢陽에서 內어났는데, 字는 寡梅오, 號를 蘇齋 이외에도 伊齊·暗室·茹芝老人이라 하였다. 그는 天稟이 聰明하고 睿智가 되어나서 13세 때에 이미 詩賦를 지었다. 일찍이 丈人인 灘叟 李延慶의 門下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그 후 晦齋 李彥迪에게 弟子의 禮를 갖추어서 「心經」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退溪 李滉과는 그가 文科에 壯元으로 급제하여 弘文館에 근무하고 있을 때 서로 講友로서의 親交를 가졌다.<sup>1)</sup> 그 후 司諫院 正諫과 吏曹佐郎을 역임하였다. 그가 吏曹佐郎으로 있을 때에 仁宗이 승하하고 明宗이 즉위하여 乙巳士禍를 맞게 되는데, 그도 이로 인하여 科擧되어서 忠州로 낙향하였다가 다시 順天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으며, 그 후 다시 良才의 壁書事件으로 珍島로 유배되어 19년간을 지냈다. 珍島 유배時에 「風興夜寐箴」을 註解하였고, 그 후 15년 뒤에 「人心道心辨」을 지었으며 다시 3년 뒤에 「執中說」을 지었다.

守愼이 「風興夜寐箴解」를 脫稿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評을 청하자 대부분의 이들은 ‘道心을 體로, 그리고 人心을 用으로’ 간주하는 蘇齋의 입장(이것은 곧 ‘困知記’의 저자인 羅整庵의 입장이기도 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 중 몇가지 예를 살펴 보도록 하자.

‘그 光靈을 모으고, 그 思慮는 끊어 버린다’라는 말은 禪學的 戒단이 있으니 제거함이 어떠한가. (退溪李滉)<sup>2)</sup>

‘신령함을 모으고 思慮를 그친다’는 말은 곧 朱子가 말하는 ‘敬’이라는 것이니, 뜻과 생각을 定하며 정신을 두루 포섭함이 바로 本源을 함양하는 道인 것이다. 다만 뒷사람(後賢)들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단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禪學에 떨어질까 염려해서이다. (河西 金麟厚)<sup>3)</sup>

‘惟精惟一’이 四字는 곧 사사로운 감정을 이겨서 天理에로 돌아가는 공부이다. 整庵이 ‘道心은 體이니 至極한 體는 볼 수 없으므로 隱微하고, 人心은 用이니 至極히 變하는 用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危殆하다, 고 한 말은 곧 用을 가지고 體로 삼고 動을 가지고 靜을 삼는 것이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이 道心 두 字는 道에 의해서 행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理의 用임을 알 수 있다. (一齋 李恒)<sup>4)</sup>

고 하여, 整庵의 입장을 따라 蘇齋가 ‘道心을 體로, 人心을 用으로’ 보는 것을 비판하

1) 「是時退溪李先生亦伴直多有講劇之樂」(蘇齋先生文集 附錄 p.5)

2) 「聚其光靈 絕其思慮 此兩語 犯禪學 請去之何如」(梁齊先生內集上篇 p.27)

3) 「凝神息慮 即朱子所謂敬者 定志慮 攝精神 而涵養本原之道也 後賢措語 似不能端的 恐因墮於禪也」(上同 p.28)

4) 「惟精惟一四字 此便是克去己私 復還天理之功也 整庵曰道心體也 至靜之體不可見故微 人心用也 至變之用不可測故危 此以用爲體 以動爲靜 誠可笑也 夫道心二字 使見道者觀之 則不待辨論而可知其爲理之用也」(上全 下篇 p.9)

였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道心은 體요, 人心은 用이다’고 한 蘇齋의 학설에 대하여 이를 禪學에 빠졌다고 異端으로 규정하고서 단호히 배척하였다.

性理學은 정통성을 고수하고, 程朱와 세계관을 달리하는 모든 철학사상을 이단시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斯文亂賊’으로 몰아쳐서 생명까지도 빼앗았다. 그러나 新儒學인 性理學은 朱子에 와서 集大成되었다고 하지만, 본래의 儒學은 孔孟學을 宗主로 삼아 발전시킨 것이고 또한 孔孟學이란 堯舜의 行蹟을 憲章하여서 爲人의 德行을 主唱한 것이다. 그렇다면 新儒學의 사상적 입장과 견해를 달리한다 하여 반드시 본래의 孔孟의 학설과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즉 이러한 羅整庵의 사상이 원래의 儒學의 입장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며, 또한 整庵의 「困知記」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蘇齋의 철학사상이 孔孟學의 宗旨와 다름이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점들이 本稿에서 해명해 보고자 하는 연구行方이다.

## 2. 心과 精神

### 1) 마음(心)

蘇齋도 일반적인 性理學者들과 같이 ‘心’을 方寸이라 하였다. ‘方寸이란 곧 사람몸에 있어서 주인되는 바를 가리키는 것이니, 곧 마음(心)이다’<sup>5)</sup>고 定義한다. 즉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써서 心臟이 아프다고 할때와 같이 五臟六腑 중의 한 기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蘇齋는 그의 「人心道心圖」에서 마음을 ‘神明이 오르내리는 집’<sup>6)</sup>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마음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을 이루어 내는 곳이란 뜻이다. 즉 蘇齋는 肉體와 대조되는 意識과 意識作用一般을 마음이라고 한 것 같다. 그리고 ‘人身之所主即心也’라고 할 때의 ‘所主’는 ‘主宰’와 같은 뜻으로 ‘運用한다’·‘統率한다’는 의미이므로 意識作用 뿐만 아니라 身體의 各 器官들을 有機的으로 活動하게 함으로써 各 個體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을 말한다. ‘마음(心)이 一身을 主宰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육체를 기계처럼 여겨서 ‘엔진’을 작동함으로써 기계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기계적 작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各 人間個體들을 ‘意志의이고도 보편적으로 宰制하고 總攝하는 것’<sup>7)</sup>을 말한다.

蘇齋에 의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自然의 四德(元·亨·利·貞)을 품수받았으며, 우리의 本性(仁·義·禮·智) 또한 至善하여’<sup>8)</sup>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본래부터 그 가능성을 갖추어 태어났다’<sup>9)</sup> 그러나 그 중에서도 善心으로 부터 善行을 이루는 이도 있고, 또한 惡心으로 부터 惡行을 저거르는 이도 있으니, 이것은 어떤 연유인가?

5) 「方寸指人身之所主即心也」(蘇齋先生 內集上篇 p.1)

6) 「神明升降之舍」(上全 下 p.7)

7) 主者宰制容之對也 統者總攝主之權也」(上全字訓)

8) 「人之一心 稟得天之元亨利貞 則爲吾性之仁義禮智」, 「至善是之謂性」(上全)

9) 「皆極當然之分」(上全)

여기에 대해서 蘇齋는 ‘이와같은 心理現象은 모두가 뜻(志)에 의한 것이다’<sup>10)</sup>라고 한다. 그는 뜻(志)에 대한 주석에서

(志란 것은 心에) 갈 바가 있는 것을 이룸이니 곧 마음이 이미 主處와 趨向을 定하였다면 달리 무엇을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기필코 결정한 것을 의심치 않으며, 마음이 행하여 결정한 것을 되돌릴 수 없다. 모든 일이 다 이로부터 시작되니, 이것이 곧 뜻(志)이다.<sup>11)</sup>

라고 말한다. 즉 蘇齋가 말하는 뜻(志)이란, 마음(心)이 작용을 시작할 때의 마음의 특수개념이라 하겠다. 사람의 心理現象은 크게 感情作用과 意志作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蘇齋는 人間行爲의 側面에서 情과 意보다는 志에다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感情은 다만 對象의 事物을 만났을 때의 發露이고 意는 다만 뜻(志)의 經營과 往來에 不過한 것이니, 뜻(志)이야말로 진실로 중요한 것이다.<sup>12)</sup>

우리들은 흔히 意志라는 말을 一句로써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蘇齋는 意와 志를 엄연히 구별하고 있다. 곧 그는 意를, 趨向을 定한 志를 計較調整(經爲往來)하여 결단하는 것 쯤으로 여긴듯 하다. 志·情·意의 관계를 마치 다음 보기에서 처럼 생각한 듯하다. 사람이 낭떠러지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곧 情(感情)이며, 또한 이것을 꺾어서 花瓶에다 꽂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서 여러 사람들이 즐기게 하느냐 하는 마음의 결정은 뜻(志)을 定함이다. 만약에 꽃을 꺾으려고 한다면 가파른 벼랑길을 위험하게 기어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멀지만 돌아서 가는 평평한 길로 갈 것이냐고 計量하여 調整하는 것은 意이다. 즉 이러한 志·情·意는 人間個體의 일상적인 행동을 결정하여 완수케 하는 작용이며, 情意的 作用이나 意志的 作用이나 간에 意識現象은 心理現象一般을 포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 2) 精 神

‘精神을 차려라’ ‘마음을 가다듬어라’ ‘정신을 집중(통일)시켜라’ ‘마음을 모두어 한 곳에 썩라’고 할 때의 精神과 마음은 同一概念이며, 또한 이 때의 精神은 마음의 하나의 要素라고도 할 수 있겠다. 蘇齋는 마음의 要素인 精神과 그리고 陽陰 및 魂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神은 陽=魂의 流動하는 妙用이니 곧 精氣의 化한 것이요, 精은 陰=魄이 실제로 定해진 精英이다. 神氣는 신령스러워서 사람이 처음으로 氣에 감촉할 때에 곧 魂을 얻어서 사람 몸속 여러 곳을 貫行하며 無의 本源이 된다. 精神은 다만 하나의 氣이므로 오로지 神으로 포괄하여 표현한다. 神은 생겨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神은 오로지 魂만을 말하는 것이긴 하나 魄을

10) 「心之所之趨向 期必皆由是焉 是之謂志」(上全)

11) 「所之之之往也 即心所存主處趨向定而無他 期必決而不疑 是指所之也 言此心有所存主 而決定不可回 皆自此始焉 所謂志也」(上全)

12) 「或問志比情意孰重 曰情只是遇事發路(露) 意亦不過爲志之經營往來者 則志因重矣」(上全)

포괄하기도 한다... 精神의 神明에 精은 陰氣가 되며 神은 陽氣가 된다. 그리고 精은 靜에 속하고 神은 動에 속한다. 그렇지만 이 모두를 다만 神이라고 표현하여 말할 뿐이다.<sup>13)</sup>

즉 蘇齋는 精神을 풀이하여 ‘精=陰=魄=靜’ ‘神=陽=魂=動’으로 이해하였으며, 이것을 모두 포괄하여 神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蘇齋는 神이란 動性을 가졌으므로 動靜과 魂魄과 陰陽을 일관하여 循環無端하며, 그러므로 ‘動者是難攝하기<sup>14)</sup>’ 때문에 사람들은 배사에 있어서 ‘主一無適의 敬’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보았다.

古來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鬼神을 魂魄과 연관지워 생각하였다. 說文에서는 ‘魂陽氣也 从鬼 云聲<sup>14)</sup>’이라 하고, 左傳에서는 鄭子產이 말하기를 ‘陽曰魂’<sup>15)</sup>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陽氣를 곧 魂이라고 본 것이 분명하다. 또한 陽을 天으로 이해하여 淮南子와 같은 이들은 ‘天氣爲魂’<sup>16)</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사람이 태어날 때 天氣를 흡수한 것인데 이 氣가 바로 魂이며, 魂은 마음의 思惟作用을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陽氣는 無形하며 또는 그 作用에 대해서는 가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周易에서는 ‘遊魂爲變’<sup>17)</sup>이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淮南子是 ‘地氣爲魄’<sup>18)</sup>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로부터 본다면 魄은 陰氣임을 알 수 있다. 이 魄 또한 魂과 같이 陰氣로서의 妙用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天地의 二氣를 흡수받아 태어나니 地의 陰氣는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天의 陽氣는 사람의 정신(氣)을 이루는 것이다. 形體의 知覺운동은 魄의 작용이요, 마음의 思惟作用은 魂의 作用이다. 魄은 형체의 神이요, 魂은 정신(氣)의 神이다.

朱子에 있어서도 이 魂魄의 思想은 별다른 변화없이 종래의 개념을 다만 分析하고 부연설명 했을 따름이다. 「大學」의 或問에서

이 氣를 얻은 연후야 魂魄으로써 五臟百骸를 갖춘 몸을 이룰 수가 있다.<sup>19)</sup>

고 하며, 또한 語類에서

氣는 魂이라 이르고 肉體는 魄이라 이른다.<sup>20)</sup>

맑은 것은 氣이고 흐린 것은 形體이다. 氣는 魂이니 이것을 精이라 하고, 肉體는 魄이니 이것을 質이라고 한다. 소위 精氣는 物이 된다. 모름지기 이 두개가 서로 교감하면 곧 능히 物(萬物·사람)을 이루며 여러가지 정신작용을 한다.<sup>21)</sup>

고 말한다. 이것은 곧 朱子가 사람의 陽氣에 대하여서는 魂이라 하고, 사람의 陰氣에

13) 「神者陽魂之流動之妙 即精氣之化也 精者陰陽實定之英 即神氣靈人始於氣感則得魂以行乎 此身之中隨所實而無之本也 精神只是一氣 故事言神以包之 且以見 神即不生者也 專言神者魂可以包魄且... 精神之神 精陰而神陽 精屬靜 神屬動 此獨言神者以見」(蘇齋先生內集 上篇 p.1)

14) 「動者難攝」(上全)

15) (昭公七年)

16) (主術訓)

17) (繫辭)

18) (主術訓)

19) 「必得是氣 然後以爲魂魄五臟百骸之身」(大學或問)

20) 「氣曰魂 體曰魄」(朱子語類 卷三)

21) 「清者是氣 濁者是形 氣是魂 謂之精 血是魄 謂之質 所謂精氣爲物 須是此兩相交感 便能成物 遊魂爲變」(上全 卷八十三)



대하여서는 魄, 곧 形骸라 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朱子는 五行(水·火·木·金·土)의 氣를 사람의 氣로, 五行(水·火·木·金·土)의 質을 사람의 形骸로 여겼던 것이다. 또한 朱子는

모름지기 魂이란 것은 곧 氣의 神이고, 魄이란 것은 곧 肉體의 神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sup>22)</sup>  
魄은 形骸의 神이요, 魂은 氣의 神이다.<sup>23)</sup>

고도 하였는데, 여기에서 ‘神’이라고 하는 字는 不可測의 妙用을 뜻하는 것이므로 ‘靈’과 통하는 말이다. 사람이 五行의 화합으로 생성될 때는 ‘靈’ 즉 魂魄의 神明함을 품부 받아 태어난다. 그렇다면 이 魂魄은 사람의 정신 가운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인가? 朱子는

「생각하여 헤아리고 探求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은 魂에서 이루어 진다」<sup>24)</sup>

고 하여, 사람의 의식중의 사유작용이 곧 魂의 작용임을 말한 반면에 魄에 대해서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곧 魄이다」<sup>25)</sup> 「능히 기억하는 것은 魄이다」<sup>27)</sup>고 하여 기억의 작용이 魄에서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또한, 「능히 지각할 수 있는 것은 魄이다」<sup>28)</sup> 「기억하고 辨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魄이다」<sup>29)</sup>고 하여 감각적 지각작용과 辨別작용을 魄이 한다고 보았다.

傳統的 儒學의 계승자로 自任하는 朱子가 가령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음(心·精神)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 蘇齋 역시로 전통적 유학 내지는 전통적 程朱學의 계승자라고 하여도 무리 없을 것이다.

天命의 流行을 稟得한 사람의 本性은 純粹至善하지만, 그러나 ‘虛靈不昧한 氣가 유희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體(육체)는 死灰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작용 또한 문란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sup>30)</sup> 蘇齋는 이와같은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문란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고 「風興夜寐箴解」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 光靈을 모아서 그 思念을 끊어 버린다.<sup>31)</sup>

神妙한 작용을 聚定하여서 한가로운 생각을 물리친다.<sup>32)</sup>

이 말들을 보고서 退溪는

이 두 말은 禪學에 빠져들고 있으니 바라건대 제거해 버림이 어떠하겠는가? <sup>33)</sup>

22) 「須知魂即氣之神 魄即體之神可也」(朱子大全 卷五十七 答陳安卿)

23) 「魄者形之神 魂者氣之神」(朱子語類 卷八十七)

24) 「會思量討度底 便是魂」(朱子語類 卷三)

25) 「人之能思慮計畫者 魂之爲也」(上全)

26) 「會記當去底 便是魄」(上全)

27) 「能記憶底 是魄」(上全 卷八十七)

28) 「能知覺底 是魄」(上全)

29) 「能記憶辨別者 魄之爲也」(朱子語類 卷三)

30) 「其不能不誘於氣 亦將體死用亂」(蘇齋先生 內集上篇 風興夜寐箴解 p. 5)

31) 「聚其光靈 絕其思念」(上全)

32) 「聚定妙用 放退閑思」(上全)

라고 評을 가하였다. 夫인 退溪의 말처럼 蘇齋는 禪學에 빠졌었는가, 아니면 도리어 正統 儒學 내지는 正統 朱子學의 학풍을 계승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朱子의 魂魄論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서서도 말하였듯이 사람의 思惟와 判斷과 같은 意識現象 및 육체의 운동은 魂의 작용이요, 知覺과 기억과 같은 意識現象은 魄의 작용이다. 즉 魂과 魄은 모두 육체를 구성하는 기질중에서도 精英한 두개의 微物質인 氣이다. 그러기 때문에 魂魄이 意識現象을 이룸에는 반드시 여기에 내재하는 理와 의 공동작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朱子가 말하는 意識現象은 마음 또는 魂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朱子가 말하는 마음과 魂魄은 '同體異名'이란 말인가? 이러한 의문은 「朱子語類」의 「마음은 氣의 精爽이다」<sup>34)</sup> 「魂魄은 形氣의 精英이다」<sup>35)</sup>라는 구절을 보면 더욱 강렬해진다. 그렇지만 朱子는 이와는 달리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所覺者是 마음의 理이요, 能覺者是 氣의 靈이다.<sup>36)</sup>

靈處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性입니까? 靈處는 단지 마음일 뿐이지 性은 아니다. 왜냐하면 性은 다만 理이기 때문이다.<sup>37)</sup>

氣中에는 하나의 스스로 靈妙한 것이 있다.<sup>38)</sup>

이로부터 본다면, 朱子는 곧 마음을 氣 그 자체로 본 것이 아니라 氣의 靈妙한 능력을 말한 듯 하다. 靈能은 본래 氣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긴 하나, 淸濁한 氣와 昏明한 氣에 모두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氣中에서도 淸輕하고 秀英한 氣에게만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秀氣만이 참다운 魂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魂魄이 곧 靈能이며 또한 마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魂魄인 氣가 이 靈能 즉 마음에 具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知覺과 思惟등의 意識現象은 魂魄을 具有한 靈能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로 이것을 魂魄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엄밀하게 말해 볼 것 같으면 魂魄을 가진 靈能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朱子가 意識現象을 魂魄의 작용이라고 한 것은 그 裏面에 靈能을 예상하여 말한 것으로, 이것은 아마도 그가 靈能 보다는 魂魄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朱子가 意識現象을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 것은 魂魄 가운데서 靈能을 剔出하는 것으로 곧 魂魄보다 靈能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여기에서 마음은 魂魄이 가진 靈能이므로 魂魄인 氣보다는 抽象的인 것이지만 그러나 性인 理보다는 具體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朱子는 이것을

33) 「此兩記犯禪學 請去之 何如」(上全 三子論夙興夜寐箴解 往復錄)

34) 「心者氣之精爽」(朱子語類 卷五)

35) 「魂魄是形氣之精英」(上全)

36) 「所覺者 心之理也 能覺者之 氣之靈也」(上全)

37) 「問靈處是心 抑是性 曰靈處只是心 不是性 性只是理」(上全)

38) 「氣中自有箇靈底物事」(上全)

「마음은 性에 비한다면 微細하나 자취가 있고<sup>39)</sup>,  
(마음은) 氣에 비한다면 스스로 그러하니 靈能이다.」<sup>40)</sup>

고 말한다.

太極이 動靜하여 陰陽이 되고 氣(陰陽)가 凝聚하여 形體를 갖출 때, 太極은 이 形體에 墮在하여 本性이 되고, 또한 마음의 意識現象을 卷起함에 있어서는 氣의 精英한 魂魄인 靈能에 內在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靈能은 太極과 渾然一體를 이루므로 구체적으로 太極과 分離시킬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靈能和 太極이 混一하여 하나를 이룬다고도 할 수 없다. 이 兩者는 ‘一而二’이면서도 동시에 ‘二而一’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靈能 즉 마음은 意識을 일으키는 하지만 다만 그것을 일으키는 원리일 따름이고, 어떠한 의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원리는 性일 것이다. 즉 마음과 性의 공동작업에 의해서 意識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구체적인 發現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朱子는

(이와같이 다음에서 情이 발현하는 것이므로) 性과 같이 情 또한 마음이 統轄한다.<sup>41)</sup>  
마음이 性을 內具하고 있으며, 마음이 情을 發現케 한다.<sup>42)</sup>

고 하였다. 이 말의 뜻은 마음과 性이 動하지 않아 情이 發現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과 性은 未發이며 情은 마음에 潛在해 있다라는 의미이다. 즉 마음은 氣의 靈能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순한 靈能만이 아니라 性을 內具하고 있으며, 또한 情을 潛在하고 있는 靈能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心統性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 3. 持敬說

蘇齋는 理想的 人間像을 聖賢에 두고, 하루 24時間을 持敬에 힘썼다. 다시 말하자면 天道的 「誠者」와 사람의 「誠之」가 하나(一) 되기로 努力했다. 그는 對象의 事物과 接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도 恒常 人間의 觀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또 對人關係에 있어서 듣고 보고 말하는 諸般의 行動擧止에도 敬으로써 一貫하는 것을 生活信條로 삼았다. 그래서 그의 持敬으로서의 日課를 차례에 따라 列擧하여 본다.

“하루의 計劃은 새벽에 세운다고 한 옛 사람들의 말과같이 그는 그 날의 日課에 있어서 敬으로써 一貫되도록 마음의 姿勢를 새벽에 가다듬었다. 즉 사람이

「새벽에 잠이 깰면 곧 精神作用을 하게 된다.」<sup>43)</sup>

이 때의 맑은 精神은 孟子的 「夜氣」<sup>44)</sup>와 같아, 物欲에 가리워져 있지 않는 平靜한 마

39) 「心比性則微有迹」(上全)

40) 「比氣則自然又靈」(上全)

41) 「心統性情」(朱子語類 卷五)

42) 「心是包含該載 敷施用處」(上全)

43) 「寐形神始開 而覺也」(蘇齋先生 內集 下篇 懼塞錄)

44) 「養以夜氣 貞則復元」(上全)

음이므로

前日에 잘못된 것을 뒤우쳐 바르게 고치고 지금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곧 그 端緒를 찾아서 省察한다.]<sup>45)</sup>

즉 一事一物에도 그 理致(理之當然·其所然)<sup>46)</sup>가 있으므로 그것을 明瞭하게 밝혀 各 各 일들의 「條理」<sup>47)</sup>에 따라 차례를 좇아서 생각과 行動을 했다. 비록 感覺的 對象이 目前에 없다 하더라도 그 義理의 當然함과 그렇게 된 까닭을 默而識之하였다. 이것이 孔子的 이른 바 “새로운 것을 아는것(知新)이요, 子夏의 이른 바 “나날이 그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sup>48)</sup>고 한 말일 것이다. 孟子가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착한 마음씨를 갖게 하고, 程子が 事物과 接하기 前에도 主一無適의 敬으로써 善한 마음을 가다듬다」<sup>49)</sup>고 한 것을 우리에게 깊이 살필 것을 타이른 말이다. 잠이 깨어 자리에서 일어난 어둑한 새벽이지마는

「洗手하고 머리를 빗질하고 衣冠을 차려 端正히 앉아 몸 姿勢를 바꾸고, 이 마음을 가다듬으면 밝기가 旭日과 같다. 嚴肅하고 整齊하면 虛靈不昧하고 平靜한 마음이다.»<sup>50)</sup>

곧 “敬以直內”하기 위해서는 「外樣을 바로 잡아서 그 마음(心)을 靜安케 하고 마음에 保存된 것이 밖에 이른다」<sup>51)</sup>고 하여 즉 그는 存心을 하기 위해서 外樣을 嚴莊케 할 必要性을 強調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精粗一致를 主張하기 위해서 本末의 兼舉를 내세운 것이다.

또 讀書工夫는 마치 孔子가 그의 弟子들과 더불어 聖師의 가르침을 親切하게 傳하던 弟子들은 그것을 敬聽하고 弟子들이 이에 對해서 疑問이 있어 바로잡기 위해서 물으면 몇 번이고 對答하여 그름을 바꾸도록 힘썼다고 한다. 蘇齊 역시도 讀書方法을

「經典을 처음 펼침에 嚴師의 앞과 같이 살가하고 친구들과 같이 그 開示의 가르침을 謹受하여서 오직 그것을 體認하고자 한다. 그 말을 상세히 分辨함에 어려운 말을 곧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그만 두지 않는다.»<sup>52)</sup>

고 한 것을 본다면 요즘의 討論式 方法으로써 聖賢의 말을 敬虔하게 천착해서 體得하고 그것을 實際的 行爲에 活用하는데 그 意義를 찾았다고 하겠다. 朱子가 「讀書는 모름지기 主敬을 爲先하여 거기에 나아가 義理를 推求하고 하는 일에 나타낸다」<sup>53)</sup>고 한 것과

45) 「夜氣之生 無所壞害 而於昔所失 則悔悟而知改 今所有則尋繹 而加察」(上全)

46) 「蓋得見義理之當然及其所以然也」(上全)

47) (上全)

48) 「孔子所謂知新 子夏所謂 日知其所亡者也」(上全)

49) 「鷄鳴而孳孳爲善 程子曰 未接物時 只主於敬 便是爲善」(上全)

50) 興興櫛衣冠端坐斂形提撥此心 敬如出日 嚴肅整齊 虛明靜一」(上全)

51) 「制之於外 以安其內 存之於內 以達于外」(上全)

52) 始發古書 惕然如嚴師之臨上 親友之與處 謹受其開示之訓 而惟欲其體認 詳辨其論 難之辭而不明 則不措斯」(上全)

53) 「讀書須以主敬爲先 方可就此田地上 推求義理 見諸行事」(上全)

같다. 그러므로 그 讀書工夫는

「위로는 講讀하는 글(書)을 두루 다 理解함(內外之既攝)을 根本으로 삼고 아래로는 事物에 當하여서 應用되도록 하는 그것을 立言한다.」<sup>54)</sup>

고 하였으니 곧 그는 知行並進의 眞知를 主張하였으므로 實學者이기도 하다.

「事物과 應接하는……마음(方寸)은 깊고 고요하다. 精神을 모으고 생각을 쉰다(凝神息慮), 精神(精=陰·魄·靜, 神=陽·魄·動)의 動·靜은 無端히 循環한다. 오직 마음(心)은 靜하여서는 本心の 保存함을·動하여서는 省察함을 살핀다」<sup>55)</sup>의 “凝神息慮”를 蘇齋는 그의 「夙興夜寐箴解」에서 「聚光靈 絕其思念」으로 註解했다. 이것을 본 退溪는 禪學的 色彩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것을 「聚定妙用 放退閑思」로 다시 訂正하였다. 생각컨데, 李朝時代의 性理學은 一方的 程朱學이었으므로 經典의 解釋도 程朱의 註解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래서 間或 學者들이 事物의 狀態, 특히 精神狀態의 適切한 表現을 道敎와 佛敎의 語句로 驅使했다면 異端으로 몰아쳐서 斯文亂賊으로 規定되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 우리네의 新儒學은 獨創의 發展을 하지 못하고 程朱學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蘇齋가 그의 「夙興夜寐箴解」에서 「聚定妙用 放退閑思」로 고친 理由도 아마 程朱學에 符合시키기 위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朱子는 知覺과 思惟를 氣中에 스스로 하나의 靈妙한 能力이라 고 한 바가 있다. 「凝神息慮」를 「聚其光靈 絕其思念」으로 풀이한 것이나, 또 「聚定妙用 放退閑思」로 訂正한 것이나 간에 이것은 朱子의 靈能을 따서 「虛靈不昧한 靈妙한 作用을 聚定한다」는 뜻으로 表現한 것이다. 마음이 事物에 對하여 「感而遂通」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物)이 그 事物의 理致를 觀察하여 事理에 따라 헤아림이 다량하고 옛날에 강구한 밝은 지혜가 지금의 作爲한 자취를 證體하여 곧 다른 바가 없다면 天理와 나의 明知가 밝지 않음이 없다.」<sup>56)</sup>

「마음이 한 몸을 主宰하지 못한다면, 廢物(滯)이다. 그러므로 應接한 후에 主宰하는 것은 이미 마음(心)을 떠났거나 혹은 事物과 마음이 같이 떠났고 혹은 그것(對象의 事物)에 얽매인다면 그 感應은 오직 그 情에 當하여 이미 이겼으니, 곧 마음의 作用은 다시 그 바를 잃었다.」<sup>57)</sup>

사람은 日常的 生活에 있어서 對象的 事物에 「感動되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나」<sup>58)</sup> 이 마음이 事物에 끌리어 感動될 때도 恒常 그 「省察해야 한다」<sup>59)</sup> 곧 이렇게 하여야만 天理(天之所以)인 體와 나의 明知(我之明者)인 用이 合一된다고 하여 體用無間說을 主張하였다.

54) 「上本內外之既攝 下起事物之當應 其爲立言」(上全)

55) 「事至斯應……方寸湛然 凝神息慮 動靜循環 惟心是監 靜存動察」(上全)

56) 「言事物之來感而遂通 卽物觀理隨事度宜 以昔講明之知 證今作爲之迹 而無所違忤則 天之所以與我之明者 無不明矣」(蘇齋先生 內集上篇 夙興夜寐箴)

57) 「心之爲物 不活則滯故 應接之後 事物已過心 或與之俱往 或爲其所縛 則所應 雖當其情已勝 而此心之用, 復失其正矣」(上全)

58) 「動者 難攝也」(上全)

59) 「此者 而省察也」(上全)

반드시 한 마음에 잠간의 過誤는 있으나 靈明한 本體는 本來 다름이 없으니, 靈能을 聚精會神하고 쓸 때 없는 생각을 放退하던 明鏡止水와 같이 호리도 좋아하고(好), 미워하고(惡) 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은 虛靈不昧하고 無欲하여 專一한 象이 된다. 「비록 鬼神이 있어도 그 때를 엿보지 않는다. 이 平靜한 마음을 가져 存心養性을 한다.」<sup>60)</sup>

즉 마음이 外的 事物과 接하지 않을 때는 恒常 虛明靜一한 精神狀態를 갖게 하기 위해서 雜된 생각을 버리고 聚精會神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곧 「靜而存養」<sup>61)</sup>의 功夫다. 退溪가 이 語句에 對해서 禪學的 色彩가 있으므로 除去할 것을 勸하였으나 佛敎의 沙石集(四)에 「衆生에는 本具한 佛性이 있다」는 뜻으로서 「靈光」이라 했을 따름이고 「光靈」이라고 한 바는 없다. 그러므로 이 「光靈」을 朱子가 말한 바의 빛나는 「靈能」으로 풀이하는 것이 妥當하다. 또 河西는 蘇齊의 「凝神息慮」에 對한 풀이는 端的으로 分明히 表現해야 한다고 勸하였다. 즉 「訓語는 直截하고 明白해야 한다. 朱子의 말에 의하면, 「凝神息慮」는 곧 朱子의 이른 바, 敬은 뜻과 생각을 定하며 精神을 잡아 本原을 기르는 道다」<sup>62)</sup>고 한 것과 같은 뜻이므로 朱子의 말을 그대로 옮겨야지 萬若에 獨創의 言語를 使用하거나 또 道敎와 佛敎의 語句를 그대로 引用하는 것은 벌써 禪學과 道敎에 빠진 것이라고 警戒시켰다. 그러나 蘇齊는 「聚定妙用하고 放退閑思」하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聖賢의 가르침인 「靜而存養」을 할 수 있는 功夫라고 생각하여 河西의 忠告를 끝끝내 거절했다. 이러한 修養工夫는 마음이 하는 것이다. 體와 用을 兼併하고 動과 靜을 兼該하여 끊임없이 反覆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能히 한 몸의 主宰者가 되어서 寂靜한 마음일 때는 곧 理致의 本體가 파악되고 그리고 그 理致의 作用은 活用된다.」<sup>63)</sup>

고 한다. 즉 그는 體用兼該하게 動靜無間하도록 꾸준히 存養과 省察의 功夫를 쌓아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곧 子思의 「戒懼·謹獨의 가르침」<sup>64)</sup>이요, 程子의 「一箇 敬字를 拈出한 것에 該當한다」<sup>65)</sup> 그래서 學者는 모름지기 存養과 省察에도 恒常 敬으로써 對해야 한다.

또 그는 讀書한 후의 餘暇를 利用하여 理知活動에서 벗어나 情意作用으로써 精神을 조용히 쉬게 하여 性情을 保養해야 한다고 한다.

「물에서 헤엄치(游·泳) 그 氣를 펴고 그 理致를 따라 몸을 움추리는 모습이 없는 從容한 象을 가진 이것이 君子의 엄전하고 너그러운 道다.」<sup>66)</sup>

고 한다. 朱子도 역시 「괴롭게 힘 쓰는 것은 不必要하다. 괴롭게 힘 씀은 즉 옳지 않다.

60) 「必其一物才過 眞體依前 聚定妙用 放退閑思 如明鏡止水 無毫釐蚩蚩之痕 有虛明靜之象」(上全)

61) 「此靜而存養也」(上全)

62) 「訓語要直截明白 依朱子之說 凝神息慮 即朱子所謂敬者 定志慮 攝精神 而涵養本原之道也」(上全)

63) 「能爲一身主宰而寂 而理之體 無不立感 而理之用 無不達矣」(上全)

64) 「中庸首發 戒懼謹獨之訓」(上全)

65) 「拈出一箇敬字 以當之」(上全)

66) 「當優游涵泳 以展其氣 而順其理 無局促態 有從容之象 此君子張弛之道也」(上全)

또 終日토록 讀書은 不必要하다. 어떨 때는 靜坐하여 存養함도. 다 修養工夫다.]」<sup>67)</sup> 이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恒常 事物의 理致를 익혀서 本性을 涵養하고 또 六藝(禮·樂·射·御·書·數)의 즐거움 같은 것도 다 理致가 있으니 곧 마음이 收斂된다. 마음이 莊嚴하면 몸이 꺾지고 마음이 放肆하면 몸은 躁急하고. 이것 또한 敬을 外面하겠는가. 오직 비움은 自己를 爲한 學이랴야 되는 것이니 能히 그 뜻을 알지어라.」<sup>68)</sup>

고 한다. 蘇齋 역시 程朱子들과 같이 盡終日 理智的 活用인 讀書에만 精神을 쏟지 말고 때로는 事物들을 玩賞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놀음으로 抒情을 純化하면서 그 眞理(理致)를 터득하는 것도 學者들의 할 일이라고 한다.

누구나 다 해질 무렵이면 意氣가 消沈해 진다. 「夙與夜寐箴」에서

「해질 무렵이면 사람은 피로해서 昏昧한 氣가 쉽게 더해진다. 그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그 容態를 莊敬케 하고 舉動을 正齊하면 마음(心)의 虛靈不昧(精明)를 振拔케 한다.」<sup>69)</sup>

의 虛靈不昧(精明)를 蘇齋는 그의 註解에서 「마음(心)의 本體로 바꾸었다. 아마 이것은 朱子의 「所覺者는 마음(心)의 理요, 能覺者는 氣의 靈이다」<sup>70)</sup>고 한 것의 「氣之靈」을 마음(心)의 本體로 본 듯하다. 그리고 또, 本箴의 註에

「強力한 사람이라도 그 몸의 疲勞가 없을 수 없다. 몸이 조금이라도 피로하면 氣가 곧 消沈해진다. 學者는 여기에서 더욱 警戒하고 두려워 한다. 그 内外를 檢束하여 이 마음을 提起한다면 이 마음은 恒常 같아서 灰(灰木)로 돌아가지 않는다.」<sup>71)</sup>

고 한 것의 「檢其内外 提起此心 此心常活의 內容을 그는 添削해서

「그 内外를 檢束하여 精彩를 起發하여 빛난다(虛靈不昧)면 곧 이 마음(心)은 恒常 活動을 主宰하여 灰(灰木)로 돌아가기 않는다.」<sup>72)</sup>

고 한다. 즉 마음(心)의 內·外와 體와 用을 分明하게 밝혀 說明하면서 體와 用的 兼該를 主張하였으며, 또 마음인 主宰者는 恒常 動과 靜에 一貫되게 「主」字를 넣은 것이다. 그러므로 上蔡先生도 「敬은 늘 스스로 경계하고 깨닫는 法이다」<sup>73)</sup>고 했다. 사람의 마음이 精彩하기 못할 때는 外的인 言動과 作態를 바로잡으면 精明, 즉 靈能이 振發된다고 喚醒했다. 또 같은 갈 때도 恒常 마음(心)을 收斂하여야 한다.

67) 「不要若著力 苦著力 便不是 又曰不必盡日讀書 或靜坐存養 皆是用功處」(上全)

68) 「輔氏曰 常玩物理 以養性 且如六藝之游 皆理所寓 而心所收者也 心註則體舒 心肆則體躁 斯亦豈外於敬乎 惟夫學爲爲己之學者 能知其味也」(上全)

69) 「日莫人倦 昏氣易乘 齊莊正齊 振發精明」(蘇齋先生 內集 上篇)

70) 「所覺者 心之理也 能覺者 氣之靈也」(朱子語類 卷五)

71) 「強有力者 不能無其體之疲 體少疲 則氣便沈矣 學者 於此 尤警惕焉 檢其内外 提起此心 則此心常活 而不爲灰木之歸矣」(蘇齋先生 內集 上篇)

72) 「檢其内外 以起發精采 光明 則主常活 而不爲灰木之歸矣」(上全)

73) 「敬是常惺惺法」(上全)

「밥이 깊으면 곧 잠을 자는데 손과 발(手足)을 恭肅케 하고 思惟를 하지 않으면 다음(精神·魂魄)이 安定한다」<sup>74)</sup>

「잠은 精神을 休息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放肆할까마 두렵다. 그러므로 비록 몸의 筋肉과 骸骨의 긴장을 풀지마는 그러나 오히려 그 恭肅한 容態는 잃지 않는다. 대개 惰慢한 精神으로서는 敢히 잠깐도 <恭肅>한 것을 몸에 갖추지 못한다. 이미 몸이 惰慢함이 없게 하던 또한 터문이 없는 생각을 짓지 않고, 쓸데 없는 상상을 물리친 연후에야 나의 心神은 安定되어서 放肆한 바가 없다」<sup>75)</sup>

마치 이 말은 朱子가 「魂과魄이 交結하여 잠을 이루나 마음은 그 가운데 있어서 지난 일에 의해서 생각함이 꿈을 지어 냈다. 萬若 心神이 安定되었다면 꿈은 또한 뒤바꾸어지지 않는다」<sup>76)</sup>고 한 말과 같은 뜻이다. 孔子가 「잠은 죽은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sup>77)</sup>고 하였다.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收斂하는 工夫를 해야 한다고 警戒한 말이다.

이렇게 蘇齋는 마음의 動·靜에 있어서 一貫되게 持敬에 힘썼다. 즉 다시 말하자면 夙興에서 夜寐까지 오로지 主一無適하게 敬으로써 내가 나를 對하고 또 對象의 事物에 對應하였다.

#### 4. 人心道心說

新儒學者라면 누구든지 道心과 人心를 들어 說明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것이 儒學은 元來 人間의 道德的 行爲에 主眼을 두고 있으므로 自然히 心性問題를 擧論하지 않을 수 없다. 中國의 性理學 곧 新儒學을 集大成한 朱子가 道心과 人心을 分辯한 것도 바로 이런 趣旨이다. 이 人心道心說이 「尚書」의 「大禹謨」에서 처음 보인다. 舜이 禹에게 王位를 讓位하면서 말한 그 密旨에

「사람의 마음은 不安하기만 하고 道를 向한 마음은 隱微하다. 오로지 精神을 하나(一)로 모아 誠實한 마음으로 中正의 道理를 지키라.」<sup>78)</sup>

고 한 것에서 비롯했다. 그래서 이 人心道心說이 性理學者 一般에게 매우 重要한 命題로서 다루게 되었다. 이 命題가 바로 正統儒學의 道統을 잇는 理論的 근거로 삼게 되었다. 蘇齋 역시 例外는 아니다. 즉 人心道心이 비록 두 가지로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 根柢되는 것은 오직 마음(心)일 따름이라고 하여 그의 理論을 展開하였다. 그는 羅整庵의 「因知記」에서 말하는 心性論을 따랐다. 整庵은 그의 「困知記」에서 朱子의 人心道心說을 評하기를,

「무릇 마음(心)이란 것은 다 己發이다. 程子도 일찍 이 말을 하였는데 이미 스스로 움직이지 않

74) 「夜久斯寢 齊手斂足 不作思惟 心神歸宿」(上全)

75) 「寐所以休息 則恐其易於放肆也 故雖舒布其 筋骸之束 而猶不失其恭之容 蓋以惰慢之氣 不敢須臾設於身體也 既使身體不慢 而又不能爲胡思 閒想所引去 然後吾之心神 得以安定而無所放矣」(上全)

76) 「魂與魄交而成寐 心在其間 依舊能思慮 所以做出夢 若心神安定 則夢寐 亦不至顛倒」(上全)

77) 「寢不尸」(論語 鄉黨篇)

78)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尚書·大禹謨)



다고 생각해서 改正했다. 朱子の 文章은 程子の 舊說을 引用하고 改正한 것을 引用하지 않고 마치 書傳의 人心道心の 해석을 다 已發이라 했다. 中庸序에서도 知覺되게 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말도 역시 다 已發의 뜻이다.]<sup>79)</sup>

고 하였다. 그렇다면 朱子는 人心道心을 어떻게 보았을까.

「惻隱·羞惡·辭讓·是非는 情이요, 仁·義·禮·智는 性이다. 마음(心)은 性과 情을 統攝한다.»<sup>80)</sup>

고 하였다. 즉 그는 마음(心)의 定義를 「心統性情者」로 한 것이다. 朱子는 性을 本然之性, 곧 仁·義·禮·智의 理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人間의 本性을 理, 즉 太極이라 한다. 또 그는 情을 惻隱·羞惡·辭讓·是非 등이라 했다. 그러나 朱子의 이른바 情의 概念內容은 이것만이 아닐 것이다. 그는 이른바 「情이란 것은 性의 動이다」<sup>81)</sup>고 하였으므로 性의 發顯을 모두 情으로 보았던 것이다. 朱子는 四端(즉은·수오·사양·시비)뿐만 아니라, 喜·怒·哀·樂·愛·惡·欲 등의 感情을 비롯해서 知覺·思惟·判斷·意志 등의 精神作用과 모든 心理的 意識現象까지 모두 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心統性情」이라는 말은, 마음(心)이 本然之性, 즉 太極인 理와 一切의 意識現象을 統攝, 管攝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心)은 性과 情을 合친 것으로서, 性과 情을 度外하는 別다른 마음(心)은 없다. 특히 그는 性을 體라 하고, 또 情을 用이라고 한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마음(心)의 概念은 性과 情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朱子는 伊川의 說인

「마음(心)은 하나(一)다. 體를 가리켜 말한다면, 寂然不動이요, 用을 가리켜 말한다면 感應해서 天下의 理致를 遂用하는 것이다」<sup>82)</sup>고 한 것을 이어 받아

「네가 寂然하여 不動한 것은 性이요, 感應해서 天下의 理致를 遂通하는 것은 情이다.»<sup>83)</sup>

고 하였고, 또 大學或問에서

「마음(心)이 物됨은 質로 一身을 主宰함이다. 그것은 體, 즉 仁·義·禮·智의 性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즉, 惻隱·羞惡·辭讓·是非의 情을 가지고 있음이다.»<sup>84)</sup>

고 했다. 그러므로 朱子는 性을 體라 하고 情을 用이라 하고 있다. 朱子의 이른바 性은 理인 까닭에 事物이 아직 이르기 前에는 思慮의 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情 또한 發顯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心)의 體다. 이 때의 마음(心)은 寂然不動한 天命의 性이다. 마음(心)의 體란 情이지만 아직 發動하지 않은 寂然한 하나의 性이다. 事物과 接하

79) 「凡言心者 皆是已發 程朱子嘗有是言既自以爲未當 而改之矣 朱子文字用程子舊說 未及改正處 如書傳釋人道心 皆指爲已發 中庸序中 所以爲知覺者 不同一語」(蘇齋先生 內集 下篇: 權塞錄)

80) 「惻隱羞惡辭讓是非情也 仁義禮智性也 心統性情者也」(孟子集註 公孫丑上)

81) 「情者 性之動也」(孟子集註 告子上)

82) 「心一也 有指體而言者 寂然不動是也 有指用而言者 感而遂通天下之故是也」(近思錄: 道體)

83) 「夫寂然不動是性 感而遂通是情」(朱子語類 卷五)

84) 「心之爲物 實主於身 其體則有仁義禮智之性 其用則惻隱羞惡辭讓恭敬是非之情」(大學或問)

여 感應함으로서 이 寂然한 性은 비로소 움직여서 情이 되고 마침내는 天下의 理致에 通한다. 이 情이 곧 마음(心)의 用이다. 이와 같이 朱子는 性情·體用을 合해서 마음(心)이라 하였으므로 道心과 人心은 마음(心)일진데 道心도 已發로 보았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整庵은

「道心은 性이요, 人心은 情이다. 마음(心)은 하나로, 둘(人心·道心)이라 하는 것은 靜·動의 나눔이요, 體·用의 不同이다. 道心이란 所謂 사람이 나서 곧 高요하니, 天의 性이다. 所謂 未發의 中은 天下의 大本이다. 決코 已發이라 할 수 없다. 萬若 道心을 已發이라고 한다면, 또한 무엇으로 大本으로 할까. 道心은 心이요, 性이란 道의 體요, 人心은 情이요, 情은 道의 用이다. 그 體는 하나(一)일 따름이다. 用은 千變萬化의 不同이 있다. 그러나 道 아님이 없다.」<sup>85)</sup>

「道心은 寂然하여 不動한 것이다. 지극한 精體는 볼 수 없으므로 隱微하다. 人心은 感觸되어 遂通한다. 지극히 變化하는 用은 헤아릴 수 없으므로 危殆롭다.」<sup>86)</sup>

고 하여 곧 道心은 性 곧 寂然하여 不動한 未發인 道의 體요, 人心은 情, 곧 感而遂通하는 已發인 道의 用이라고 했다.

朱子는 그의 「語類」에서 「人心 人欲也 道心 天理也 聖人以 此二者 對待而言」<sup>87)</sup> 그는 또 「只指心作已發 便一齊無本了 夫既有人心爲之用矣 又奚必以道心別爲大本之已發 而不以爲未發之大本乎」<sup>88)</sup>라고 하였다. 여기에 對한 整庵의 見解는

「耳·目·口·鼻와 四肢의 欲에서 發顯하는 것은 바르고(正), 바르지 않음(不正)이 있고, 惻隱·羞惡·辭讓·是非의 端緒에서 發顯하는 것은 不善함이 없다……發顯의 善음(正)은 곧 善에서 發顯이고, 發顯하여서 옳지 못함(不正)은 곧 善에서 發顯이 아니다. 대개 形氣와 四端이 어찌 교섭이 없을 것이며, 形氣는 어찌 四端이 타는 기틀이 되지 않을 것이며, 四端은 어찌 形氣가 실은 바 主人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道心은 性이요, 人心은 情이다. 그리고 情은 스스로 形氣와 四端을 兼한 것이다.」<sup>89)</sup>

고 하여 朱子의 道心과 人心에 對하여 反對한 것이다. 즉 朱子는 「性即理」란 觀點에서 볼 때, 마음(心)은 體와 用을 가졌다. 未發의 前은 마음(心)의 體고 已發된 무렵부터는 마음(心)의 用이란 뜻이다. 마음(心)을 “心의 體”, “心統性”, “心即理”라는 觀點에서 본다면 이것은 곧 德性이다. 이 德性은 分明히 形而上이지만, “人心”, “心統情”, “心兼用”이란 觀點에 본다면 品性 곧 形而下다. 즉 道心과 人心은 道德의 意識 또는 道德實踐上의 意義에서 마음(心)을 規定지운 것이다. “道心은 天理다” 또 「道心 則原於性命之

85) 「道心性也 人心情也 心一也 而兩言之者 動靜之分 體用之別也 道心即所謂人生靜 天之性也 所謂 未發之中 天下之大本也 決不可作已發看 若認道心爲已發 則將何者以爲大本乎 道心性也 性者道之 體也 人心情也 情者道之用也 其體一而已矣 用則千變萬化之殊 然而莫非道也」(蘇齋先生 內集下篇 懼塞錄)

86) 「道心寂然不動者也 至精之體 不可見故微 人心感而遂通者也 至變之用 不可測故危」(上全)

87) (上全)

88) (上全)

89) 「發於耳目口鼻四肢之欲者 有正不正 發於惻隱羞辭讓是非之端者 無有不善 ……發之正 即是善之發 發而不正 即不是發於善 夫形氣四端 何嘗不相交涉 則形氣豈不爲四端所乘之機 而四端豈不爲 形氣所載之主乎 ……然則道心是性 人心是情 而情自兼形氣四端也與」(上全)

正」<sup>90)</sup>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義理와 부합시켜 한 말이다. 그래서 그는 聖人は「元來 仁義禮智의 心を 稟受한 것이니」<sup>91)</sup> “惻隱·羞惡·辭讓”是非의 情은 道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道心에 대하여서는 別다른 異議를 제기할 수 없으나, 「人心은 形氣之私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人欲이다」<sup>92)</sup>고 한 것에 대해서는 疑問을 갖게 된다. 感覺器管(口·耳·鼻·目)과 四肢의 形氣는 本來부터 사람이란 體에 갖추어진 것인데, “形氣之私”의 「私」는 무엇을 말한 것일까, 聖人は「形氣之私」가 없다는 말인가. 聖人도 배가 고프다고 知覺되면 自己(私)의 배를 채우려는 생각을 하고 목이 마르다고 知覺되면 自己(私)의 목을 추기려고 생각한다. 이것은 聖人이나 凡人을 莫論하고 다 必須的으로 要求하는 것이다. 이것을 人欲이라고 한다면 聖人도 必然性을 느끼고 있는 事實인데, 이러한 人心을 「人欲 또는 危殆함이다」<sup>93)</sup>고 한다면 朱子는 理論上의 矛盾을 犯하고 있다. 이와같은 矛盾을 露呈시켜 批評하고 整庵의 說을 따른 蘇齋는

「人心이 人欲이라면 道心은 已發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만 人心이 善惡을 兼했다고 하면 道心은 未發이라 해야 옳다.」<sup>94)</sup>

「人心은 善惡을 兼했다는 주장에서 본다면 道心은 반드시 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95)</sup>

以上과 같이 蘇齋는 그의 文集에서 朱子의 人心道心說에 對한 理論上의 矛盾을 지적하고 整庵의 「困知記의 主張을 따라 道心은 體요, 人心은 用이요, 道心은 未發의 體라고 하는 理論을 세웠다.

생각컨대 聖人도 人心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人心을 모두 人欲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만약에 七情이 人心에 속한다고 해서 七情이 모두 人欲이며 惡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七情은 人心·道心·善惡의 總名이요 通稱이다. 四端만이 道心이고 七情은 人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善한 것은 道心이고, 人心은 善과 惡이 있으므로, 이 兩者를 統一的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朱子가 弟子들에게 程子說을 빌려서 「人心은 人欲이므로 危殆하다」<sup>96)</sup>고 한 것은, 舜이 禹에게 傳授한 密旨인 「人心은 危殆하고 道心은 隱微하나니 精密히 하고 한결같이 하고서야 眞실로 그 中을 잡으리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의 「精字의 해석을 分曉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蘇齋는 말했다. 즉,

「道心은 즉 天理가 마음(心)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 發顯은 氣이므로 人心이라 한다. 곧 節度에 맞고 節度에 맞지 않기도 함으로 危殆하다. 그리고 그것의 未發은 곧 無形이므로 隱微하다. 그 위대함을 보고 그 隱微함을 앎은 반드시 精密하게(精), 한결같이(一)하는 功夫를

90) (朱子中庸章句序)

91) 「道心은 本來稟受得 仁義禮智之心」(朱子語類：卷七十八)

92)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朱子中庸章句序)

93) 「人心者 人欲也 危者 危殆也」(朱子語類：卷七十八)

94) 「人心爲人欲 則道心爲已發也 人心爲善惡 則道心爲未發可也」(蘇齋先生 內集上篇 懼塞錄)

95) 「以人心兼善惡觀之 而知道心必爲體」(上全)

96) 「人心人欲 故危」(上全)

加한 까닭이다. “精”이란 人心을 省察한다는 것이니 곧 “察”이라 이른다. 대개 二者(精·察)의 사이는 섞을 수 없으니, 배움에 있는 脩는 곧 動時的 功夫다. 「一」이란 것은 道心을 保存한다. 곧 이른다 그 本心の 바름을 지켜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니, 배움에 있는 脩는 靜時的 功夫다. 允執厥中을 지극히 한다. 대개 極히 精一의 功夫는 참답게 그 中을 얻음을 말한다. 動靜에 스스로 偏倚와 過·不及이 없음과 같다.」<sup>97)</sup>

곧 그는 道心과 人心은 모두 사람의 마음(心)이다. 우리의 氣(肉體)에 生來의 天理를 稟受하여 태어났다. 곧 그것이 人間의 性(本性)이다. 이 때의 性은 純粹至善한 것이지만, 그것이 事物과 接觸에 있어서 때로는 善한 情으로 發顯되기도 하고, 때로는 不善한 情으로 發顯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心理現象은 行爲主體者인 마음(心) 如何에 달려 있다. 사람이 事物과 接觸하지 않고 혼자 고요히 있을 때는 「生之謂性」인 人間의 本性을 涵養하기 위해서 主一無適하게 곧 敬(一)으로써 存心養性을 하여 善心(道心)을 지키기에 힘쓰고, 또 事物과 接觸 때에 일어나는 心理現象이 偏倚와 過와 不及하지 않고 中節되도록 行爲主體의 主宰者인 마음(心)을 主一無適하게 敬으로써 省察하여 行爲한다면, 道心과 人心의 區別이 없는 理想的 道德界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個人과 個人, 個人과 集團, 集團과 集團, 그리고 國家와 國家, 곧 서로의 關係 속에서 살아 간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一定한 行爲規範 또는 道德規範이 있어야 한다. 이 規範은 그 사람의 處地, 즉 社會의 地位, 名望, 그리고 知識程度에 따라서 行爲規範, 倫理規範의 差를 要求하는 것은 事實이다. 堯가 舜에게 傳受한 「允執厥中」이란 말이나 또 舜이 禹에게 傳授한 「人心은 惟危하고 道心은 惟微하니, 惟精惟一이라야 允執厥中한다」도 그의 處地와 知識을 감안하여 忠告한 道德意識과 道德規範일 것이다. 곧 朱子가 程子の 말을 引用하여 「人心은 人欲也요, 道心은 天理다. 聖人이 이 二者로써 對待하여 말한」<sup>98)</sup> 道心은 地位高下를 莫論하고 要求하는 理想的 實踐命題라고 한다면, 人心은 누구나를 莫論하고 갖추고 있는 道德心理, 또는 道德意識을 提示하면서 바람직한 人間像을 要求하는 實踐命題다.

### 5. 執中說

蘇齋는 그의 人心道心說에서 말한 바와 같이 執中說에 있어서도 體와 用을 一源無間으로 보고 있다.

「堯·舜의 “中”은 어떤 “中”이나, 體·用의 “中”이다. 무엇을 “執”이라고 말하느냐. “執”은 지키이다(守). 마음(心)이 已發하여 스스로 능히 “이것(中)을 지켜서 過·不及이 없는 作用(用)을 하도록 省察함이다.」<sup>99)</sup>

97) 「道心即天理具於心者 而其發也以氣 故謂之人心 便有中節不中節 故危 而未發則無形 故微 見其危 而知其微 所以必加精一之功 精者察人心 即所謂察 夫二者之間 而不雜也 在學者 則動時功也 一者存道心 即所謂守其本心之正 而不離也 在學者 則靜時功也…至於允執厥中 蓋極言精一之功 以爲真得其中 若動靜自無偏倚過不及者也」(上全)

98) 「人心欲也 道心天理也 聖人以二者 待對而言」(上全)

99) 「堯舜之中 何中也 體用之中也 何謂執 執猶守也 自心已發 而察之爲能守之 於無過不及之用」(上全)

「마음(心)이 未發일 때부터 이것(中)을 保存하여 능히 不偏·不倚의 體를 지킨다.」<sup>100)</sup>

고 하였으니, 그 “中”의 解釋은 朱子の 所謂 「一以守之」<sup>101)</sup>와 子思의 所謂 「期月守之也」<sup>102)</sup>와 그 뜻이 같다. 또 朱子는

「그 지킴이란 것은 잃지 않음이다. 作用에 <中>을 지키면 곧 쉬이지 않아서(不雜) 이에 그 體를 保全하는 것이다. 體에 <中>을 지키면 곧 떠나지 않아서(不離) 이에 그 作用에 일일히 合當한다.」<sup>103)</sup>

고 한 것을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心理作用 곧 已發은 그 마음(心)에서부터 비롯되므로 作爲(言·行)로 옮기기 前에 우리의 마음(心)을 省察해야 한다는 것이다. 省察은 言·行으로 옮긴 것만을 省察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心)의 <中>을 省察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으나 마음(心)은 性과 情을 統攝·統轄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心)의 <中>을 善觀했다고 한다면 벌써 그것은 已發이다. 그래서 곧 마음의 <中>일 때도 見聞의 理致(知覺)가 처음부터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中>을 未發에 求한다고는 할 수 없다.

「마음덕은 바(物)가 있다고 하면 비로소 成事하는데 소용이 되는 일(養)을 말한다. 배개 이미 마음덕은 것(物)이라면 반드시 求하려는 것이 있고 그리고 成事하는 데 소용이 되는 일이라면 어찌 求한 功績이 없겠는가.」<sup>104)</sup>

즉 마음(心) 속에 올바른 人間像을 그리면, 곧 내가 그렇게 되기를 힘 쓰고 또 힘쓰면 반드시 “中和의 理”를 體得한 聖人の 경지에 到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듯하다. 伊川의 說에

「잠시도 위태롭다. 學者는 未發之時에 자부심이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害가 됨으로 用功에 힘 쓴다.」<sup>105)</sup>

朱子도 「執持(守)의 뜻은 곧 이 마음(心)이 먼저 스스로 움직임(動)이다.」<sup>106)</sup>

李延平도 「靜中에서 大本인 未發時의 氣像을 體認하도록 사람을 가르쳤다.」<sup>107)</sup>

延平이 朱子에게 준 글에서 말하기를 羅先生은

「내로 하여금 喜怒哀樂未發을 中이라 이르기를 지키도록 시켰다.」<sup>108)</sup>

이 「執」은 글자(字)로서는 가지다(持)라는 뜻이지만 訓으로서의 지키다(守)라는 것이다. 程子와 朱子 역시 「執」을 지키다(守)라는 뜻으로써 實際的 行爲로 옮기기 前에 <中>을 지키는 것으로 「執」字를 使用한 듯하다. 이 「執」에 대한 見解는 未學들이 말하는 「求

100) 「自心未發而存之爲能守之 於不偏不倚之體」(上全)

101) (上全)

102) (上全)

103) 「其守不失是也 用之守而不雜 乃所以保全其體 體之守而不離 乃可以曲當其用」(上全)

104) 「言有物 始言養 夫既謂之物 則必有求之地 而謂之養 則豈無求之之功」(上全)

105) 「殆一時 恐學者 於未發時 矜持太過 反爲之害 故勉以用功」(上全)

106) 「有執持意 即是此心 先自動了」(上全)

107) 「教人 於靜中 體認大本未發時氣像」(上全)

108) 「令某於靜中 看喜怒哀樂未發之謂中」(上全)

爲」 즉 行動으로 옮긴 후의 省察을 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풀이하여 본다면, 詩經의 「民之秉彝」<sup>109)</sup>의 멋멋하다(彝)는 스스로 마음(心)에 이미 갖춘 것이니 移奪할 수 없는 것 「秉」이므로 「不秉而秉」<sup>110)</sup>이요, 國語의 「據於德」의 德은 스스로 마음(心)에 얻은 것이니, 지켜서 잃지 않은 것이 「據」이므로 「不據而據」<sup>111)</sup>요, 書經의 「五子之歌」에서 「사람이 세 번은 失手할 수 있는데, 원망이 어찌 표면에만 밝혀지랴. 원망은 보이지 않을 때 圖謀해야 하느니라」<sup>112)</sup> 이 「不見其圖」도 역시 남을 원망하기 前의 「不圖之圖」<sup>113)</sup>다. 이 「不秉而秉」·「不據而據」·「不圖之圖」라는 뜻의 內容은 孟子的 “存心養性”과 같으며 子思의 戒懼와도 같은 內容이다. 그러므로 不偏不倚(中)는 곧 性·天·心·德의 體를 말한 것이고 「所秉」·「所據」·「可圖」는 孟子的 存心養性이요, 子思의 戒懼·慎獨이다. 이 存養과 戒懼는 未發의 中節을 精一하게 지킨다라는 뜻이다.

공자가 「敬으로써 마음(心)을 바룬다」(敬以直內)<sup>114)</sup>고 한 것이나 程子が 「操之之道」<sup>115)</sup>라고 한 것을 吟味하여 본다면 「中」, 곧 「敬」라는 것이 아니고, 「中」을 지키기 위하여 主一無適하게 「敬」을 기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人心과 道心에서 말한다면 道心은 體요, 人心은 用이지만 不偏不倚한 「中」을 잘 지켜 體得한다면 그것이 곧 道心이요, 人心의 發顯에도 不善이 없다는 것이다.

## 6. 結 論

蘇齋는 사람의 肉體와 對照되는 意識과 意識作用一般을 마음(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음(心)은 意識作用 뿐만 아니라 人間의 身體的 行動을 統率·統轄하여 有機的으로 活動케 하는 總帥者라 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 天理를 稟受한 것이 곧 本性(仁·義·禮·智)이다. 그러므로 理一의 見地에 본다면 그것은 純粹至善하다. 理와 氣의 습으로 마음(心)이 된 것이지만, 心理的 現象·意識現象의 生成的 立場에서 본다면 그것은 分明히 氣活動의 結果다, 그러나, 理는 늘 個體 속에 分殊로서 內在한다. 즉 理의 分殊가 內在하는 곳이 곧 마음(心)이다.

그리고 人間의 精神을 마음(心)의 한 要素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精神은 「精=陰=魄=靜」, 「神=陽=魂=動」으로 理解하였으며, 이것을 包括하여 「神」이라고 表現했다. 陽氣는 사람의 精神(氣)을 이루고, 陰氣는 사람의 肉體를 이룬다. 그래서 魂은 곧 思惟作用을 하게 하고 魄은 곧 知覺운동을 하게 한다. 이 魂魄의 神明을 「靈」이라고 한다. 朱子 역시 이 神妙한 魂魄作用을 「靈能」<sup>116)</sup>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靈能」을 생

109) (詩經：蕩之什 丞民)

110) (蘇齋先生 內集下篇 懼塞錄)

111) (上全)

112) 「一人三失 怨豈在明 不見其圖」(書經：夏書)

113) (蘇齋先生 內集 懼塞錄)

114) (上全)

115) (上全)

116) (前揚：註 ㉔)

來的으로 우리네의 마음(心)에 具有하고 있다. 그러나 事物과 應接함에 있어서 間或 호리게 되기가 일 수다. 그러므로 蘇齋는

「靈能을 聚精會神하여 쓸데 없는 생각을 放退하면 明鏡止水와 같이 호리도 好惡의 마음이 없어, 마음(心)은 虛靈不昧하고 無欲하여 專一한 象이 된다.」<sup>117)</sup>

고 한다. 사람은 元來 能覺할 수 있는 精明과 또 無欲한 性, 즉 至善한 마음(心)을 갖고 태어 났다. 이 마음을 蘇齋는 道心이라고 한다.

「人心이 人欲이라던 道心은 己發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마는 人欲이 善과 惡을 兼했다고 한다면, 道心은 未發이라고 해야 한다.」<sup>118)</sup>

고 했다. 곧 그는 道心은 體·性·未發로 보았고, 人心은 用·情·己發로 보았다. 사람의 心理的 現象의 根柢는 性인 體란 것이다. 비록 外的으로 發顯되지 않은 未發이기는 하지마는 거기에는 벌써 見聞의 理(知覺)가 있으므로 해서 마음(心)의 <中>을 지키려는 마음이 싹 튼다. 그 마음(心)의 靜일 때는 늘 主一無適한 敬으로써 存養·省察·慎獨에 힘쓸 것이며, 그 마음(心)이 外的 事物에 感動되어 行動(言·行)으로 옮긴 後에는 敬으로써 늘 省察·警戒한다. 性理學者 一般은 人欲을 不善으로 보고 禁欲을 주장하고 있지만 蘇齋는 人欲을 肯定하고 있다.

「性이란 天理가 마음(心)에 갖추어져 있다. 事物을 感覺하여서는 움직인다. 性의 欲이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인데, 마음에서 形成한다.」<sup>119)</sup>

즉, 欲및 他情(七情·四端)도 天性이다. 만약 欲을 否定하여 罪惡視한다면 그것은 곧 人生을 否定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그는 欲을 人生의 必須的이고 當然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人生에 있어서 必須的이고 當然한 것이라 하더라도 萬若, 放肆한 情으로 나타나는 欲이라면, 그것은 罪惡이 될 수 있지만은 不偏不倚하고 過·不及이 없이 節度에 맞게 欲을 부려 行爲했다면 그것은 惡行이 아니라 善行이요, 不善한 情이 아니라 善情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行動(言·行)함에 있어 恒常 執中하는 데 敬을 손아 行動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끝으로 結論을 지은다면 蘇齋의 思想은 理氣混一體·心性一物·道心人心의 體用相即을 主張했다고 하겠다.

117) (前揚：註 ㉞)

118) (前揚：註 ㉟)

119) 「天之性也者 天理具於心也 感物而動 性之欲者也者 好惡形於也」(蘇齋先生, 內集上篇, 懼塞錄)